



8

1985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5. 8호

(루계 454)



◆◆◆◆◆◆◆◆◆◆ 차 례 ◆◆◆◆◆◆◆◆◆◆

개선광장에	4
은 인 (외 1 편).....	4
잠들다, 여기 동해기슭에	5
매 후.....	6
김일성 장군.....	15
주체의 해발아래 찬연히 꽃피여온 해방후 희곡문학	22
백두산아 !.....	29
영원히 대오속에	30
해방산의 달밤.....	30
당신은 위대한 조선의 미래 김정일, 김정일 동지	31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 영광을	31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에 대한 깊이있고 격조높은 형상.....	32
꽃 사 발	36
어머님의 진달래	37
꽃바구니	37
조 국.....	38

해돋이의 도시	39
조국의 품에 안겨	40
나의 청춘	40
내가 살던 집	40
소원은 해를 따라... ..	41
그 사랑 고마워서	42
조국과 문학	43
새삶의 탄생과 개화	43
그날을 더듬어볼 때마다.....	44
조국땅과 더불어	45
조국과 인생. 40년	46
성장과 사변	48
8월의 아침에	49
나의 추억 (외 2 편).....	50
땅	50
긴 등별의 소녀	51
울기강반의 밤에	52
나의 신념의 길	53
아 버 지	54
푸른잔디	55
오늘도 승무의 길 달려가는... ..	60
단 추.....	61

나의 이름	67
울진형님	68
형제의 나라 조선에서	76

개선평장에

신진순

나 다시 왔노라
여기가 나의 고향
나의 삶이 시작된 곳

그 어드메였더뇨
빛발치는 그분의 웃음
후광으로 받들어모시였던
푸른 숲은

그 아드메였더뇨
민족의 기쁨
화산으로 터져올랐던
그 하늘은

우리에게로 오신
장군님 발걸음
받들어모시였던 소중한 땅
밟으며 밟으며
나 여기 섰노라

푸른 하늘
짓누르던 첩첩어둠
깨여지고
갑자기 트인
푸른 하늘

빛발치는 태양이
그분의 영상
내 가슴속 영원한
그날의 **김일성**장군님

높은 연단,
열정으로 물결친
그날의 그 음성
삼천리 강토우에 울려퍼져
오늘도 여기에 메아리치노라

여기서 손들어가리키신
곧고 넓은 승리의 한길우에
우리모두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쳐온
40년을 뛰어넘어
오,
나 오늘 여기에 섰노라

꿈처럼 아름다운 개선평장이여 !
만민이 우러르는 평양
투쟁의 노래
행복의 예언
누리에 울려퍼지는
오늘의 평양
영광의 개선평장이여 !

나 여기 섰노라
새로운 투쟁
그분앞에 맹세 다지며
나 여기 섰노라

조선에서 깨여진
제국주의 단말마의 먹장구름
행성에서 깨끗이 벗겨버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

은 인 외 1 편

김 철

베푸신 은혜 바다에 비하려니
바다의 깊이에 한이 있고
안겨주신 사랑을 산에 비기려 하니
산도 높이에 끝이 있어라

노래하려 했노라-
저 하늘에 무궁한 해와 별에 의탁하여...

하나 별들에는 그이 지니신 육친의 정이 없고
해빛에도 그이의 안광에 언제나 번쩍이는
예지로운 사색의 빛발은 없었구나

아, 세상에서 가장 인정깊은분이시며
세상에서 가장 비범한 위인이신 우리 수령님 !
내 만일 그이를 한생의 은인으로 맞이하지

못했다면
어찌했을것인가...

나를 낳은 어머니를
《엄마!》한마디 조선말로 부른탓에
해 저문 교정 차거운 땅에
죄인처럼 두무릎 꿇어야 했던 나는
말과 글, 성마저 빼앗겼던 식민지소년

나의 작은 가슴에 그리도 엄청났던
모멸받는 민족의 슬픔과 아픔을
이 세상의 그 누가
털어줄수 있었던가, 가셔줄수 있었던가

없었더라!
오로지 우리 수령님께서
눈보라치는 밤 우등불을 돌구시며
백두산 남쪽의 피울음소리를 들어주시었고

오로지 한분 그이께서만
만리 빙설천지를 헤쳐오시었더라!
오시여 이 몸을 안아일으키시고
조선의 첫 연필을 쥐여주시었더라!

쥐여주시었더라
그 연필 나와 함께 단단히 잡으시고
해방된 조국땅에 써주시었더라
저 푸른 하늘도 산과 바다도

오로지 나를 위하여서만 존재하고있음을
영원한 진리로 깨우쳐주셨더라

아! 때로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하면
그 모든것 혹시 꿈은 아니었던지...
그것이 참으로 꿈이 아니었다면
꿈같이만 흘렀구나, 40년 세월이여

그 해와 달들에 낮과 밤들에
언제 한번 편히 쉬셨던가 우리 수령님!
이 땅우에 지지리도 역겨웠던
마지막 그날까지 다 가셔주시고도
자신을 칭송함에 마땅한 말은
지금껏 나에게 아니 가르치셨거니

고루고골라도 달리는 못고루는 나의 시어여
해를 따라 깊어만지는 은정에 달을 말이 없고
날과 더불어 뜨거워만지는 사랑 따를 글 짓지 못해
내 40년전에 필생의 무기로 받아안은 그 붓으로
오늘 다시 땅에 가득 이 말을 새기노라

은인이시여! 어버이이시여!
산이 바다 되고 바다가 산 되도록
길이 건강하시여
우리 민족 만대를 보호하시라!
해와 달이 다하도록 별세계가 끝나도록
자애로운 한품에 인민을 안으시고
천세만세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시라

잠들다, 여기 동해기슭에

잠들다, 여기 동해기슭에
쏘련군대 장병들 고이 잠들다
한뭉을 꽃을 봉분앞에 놓으니
그날의 포성 다시 들려오는듯

세월은 가고
그날의 애슬숲은 키높이 자랐는데
그 나무 그늘에선
새들이 짹을 지어 새끼를 날리누나

어찌 알랴, 저 생명들이야

멀고먼 서쪽
창문가에 붓나무 설레는 집들에선
이날 이때까지도
아들들의 죽음을 믿지 않는 어머니들
여기 아침의 나라를 생각하고있음을...

위대한 사상에 충직했도다!
성스러운 위업에 바쳐졌도다!
이 땅우에 영원할 자유와 번영 위해
푸른 눈동자, 금발머리 청춘들이
해빛 밝은 산천을 그러안고 누웠도다

매혹

김형지

1

수림가를 따라 뻗은 오솔길로 두 늙은이가 팔을 끼고 다정하게 속삭이며 걷고있다. 야꼬브 씨호노비치 노비첸코와 그의 안해 마리야 에메노브나이다. 총각처녀시절부터 사랑에 취하여 밤이 지새는 줄 모르고 걷군하던 이 길을 백발이 성성한 지금도 변함없이 즐겨 걷는 그들이었다.

수림우에서는 저녁노을이 불타고있었다.

이런 때의 수림은 참으로 장엄하면서도 아름다웠다. 바야흐로 연록색 새잎이 뻗뻗 돌아나기 시작한 락엽송도, 은백색 껍질이 유난히 번쩍이는 붓나무도, 사시장철 남청색잎을 자랑하는 도고한 가문비나무도, 아름다운 노을빛을 받아 더욱 신비롭게 빛났다. 게다가 수림속에서 풍겨오는 송진내는 또 얼마나 향긋한가.

노비첸코는 볼수록 장엄하기만한 수림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다가 가슴이 빠근하도록 봄의 향을 들이마시고나서 혼사소리처럼 말했다.

《참 좋거던, 우리 씨비리의 봄은!》

《그래서 한평생 여기서 사는게 아니예요. 저것 좀 봐요.》

마리야 에메노브나가 한쪽 손을 들어 붓나무쥔언저리를 가리켰다. 거기서는 머리에 뿔같은 깃판이 있고 꼬리쪽에 선명한 금띠가 있는 알락달락한 새들이 쫓기도 하고 쫓기우기도 하면서 날아예고있었다.

《황여새군.》

노비첸코의 입가에는 느슨한 미소가 어리었다. 그런 때면 반나마 벗어진 그의 넓은 이마의 주름살이 퍼지는듯싶었고 그의 파란 눈은 유난히도 선량하게 빛나곤하였다.

《야슈까, 우리 씨비리에는 아름다운 새들이 정말 많지요?》

마리야는 남편을 사랑어린 눈길로 바라보며 말했다.

《많지, 조선에도 많구. 저 황여새두 엄혹한 겨울이 오면 조선에 간다우.》

《호호... 참 당신두. 그저 말끝마다 조선이군요. 그러다간 애들처럼 꿈결에도 조선을 찾겠어요.》

《그렇는데도 모르지. 김일성 주석동지께서 우리 쏘련을 공식친선방문하신다는 소식을 들은 이즈막엔 정말 조선이 못견디게 그림소.》

향수에 젖은듯한 남편의 목소리는 마리야의 가슴

에도 애뜻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남편한테서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한두번만 들은 그가 아니었다. 그래서 마리야에게도 어느덧 조선은 참으로 잊을수 없는 가까운 이웃나라로 되었다. 하지만 요즈음엔 그 생각때문에 잠조차 설치는 남편을 보기가 여간 민망스럽지 않았다.

《야슈까, 그만해요. 당신의 그 마음을 나를 내놓으면 누가 알아주겠다구 그래요.》

《조선의 벗들이 알아주지.》

《당신두 참, 조선을 떠나온지 근 40년세월이 흘렀다는걸 잊으셨어요?》

《하긴 당신 말이 옳소. 나는 너무도 평범한 쏘련 병사였구. 그사이 참으로 많은 세월이 흘렀지...》

노비첸코는 이렇게 말하며 주머니에서 담배갑을 꺼냈다.

마리야는 그 은담배갑에 깃든 사연을 너무나 잘 알고있었다. 그것은 남편이 제대되어 귀국하게 되었을 때 존경하는 김일성 동지께서 은시계와 함께 친히 보내주신 선물이었다.

남편은 그렇다고 어데 가서 사랑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가보처럼 귀중히 보관하면서 애용하는 은담배갑이었다.

마리야는 그 담배갑에서 담배 한대를 꺼내여 남편의 입에 물려주고 불까지 붙여주었다.

노비첸코는 말없이 안해의 손을 꼭 잡았다. 근 40년세월 항상 그래온 안해가 그지없이 고마우면서도 또 언제나 미안한 그였다.

사실 한 살림을 꾸려가자면 꼭 남정들의 손이 가야 할 일이 오죽 많은가.

한데 노비첸코는 한손이 없는 관계로 모자 결 못하나 박아주지 못하면서도 안해에게 이렇게 담배시중까지 시키는것이 미안했고 때로는 죄스럽기도 하였다.

노비첸코는 지금도 그런 알찌근한 마음때문에 안해의 손을 말없이 쓰다듬는것이였다. 쓰다듬을수록 나무옹이처럼 마디가 지고 험한 안해의 손에서 오는 감촉때문에 가슴이 쓰렸다.

(처녀때는 그 누구의 손 못지않게 곱고 부드러웠었는데 한손 없는 나와 같이 살다나니 궂은일, 마른일 도맡아 하느라고 이렇게 되었지...)

노비첸코가 이런 알알한 생각을 하고있는데 마리야가 조용히 손을 뺐었다.

마리야는 남편의 살뜰한 애무가 싫지 않으면서도 자기때문에 지나치게 마음을 쓰곤하는게 언짢았다. 더구나 오늘저녁엔 본의아니게 남편이 조선에서

한손을 잃은걸 누가 알아주겠는가고 말해버린것 같아서 입술을 깨물고싶도록 후회되었다.

마리야는 그래서 얼른 말머리를 돌렸다.

《그만 들어가지 않겠어요?》

《벌써?》

《보도시간이 되어오는걸요.》

《그럼 어서 들어갑시다.》

노비첸코는 안해가 이끄는대로 집으로 향했다.

어느새 노을은 사라지고 숲저쪽에서부터 어둠이 검은 장막을 퍼며 발벌발벌 기어들고있었다. 이젠 락엽송과 가문비도 가려볼수 없었다. 흰뱀나무조차 희미해졌고 꽃향기만 더 짙어졌다. 꽃은 가리워도 향기는 가리울수 없다는듯이.

노비첸코는 꽃향기, 풀향기에 어지간히 취해버린듯 말없이 걸었다. 뱀나무가지사이로 보이는 씨비리식 물매급한 뽕죽지붕 밑에서 반짝이는 등불이 어서 오라 손저어 부르는듯싶었다.

노비첸코는 걸음을 재우쳤다.

그가 집에 들어섰을 때 손자녀석들은 제방에 들어가 숙제를 하는지 보이지 않고 텔레비존앞에는 아들 이완과 딸 라이썬만 앉아있었다.

텔레비존에서는 조선예술인들의 노래와 춤이 나오고있었다.

노비첸코는 벌써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하였다.

김일성 주석동지께서 쏘련을 방문하시는 소식을 내보낼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보도시간이 되자 화면에 나타난 방송원이 흥분된 목소리로 감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신 존경하는 **김일성** 동지께서 당 및 국가대표단을 인솔하시고 모스크바로 가시는 길에 쏘련의 국경도시 자바이칼스크를 통과하시였습니다.》

방송원의 목소리와 함께 화면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자바이칼스크역구내가 펼쳐지고 뒤이어 **김일성** 동지를 모신 특별렬차가 구내로 서서히 들어서는 광경이 나타났다.

노비첸코는 숨을 죽였다.

이윽고 **김일성** 동지께서 한손을 높이 드시고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답례를 보내시며 렬차에서 내리시는것이였다.

《여보 마리야! **김일성** 주석동지이시오!》

노비첸코는 마리야의 손을 꼭 잡으면서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만면에 햇빛처럼 밝은 미소를 담은 거룩하고 인자하신 **김일성** 동지의 모습!

그것은 노비첸코에게 너무나도 그림던 모습이였다. 오매에도 잊은적없는 친근한 모습이였다.

텔레비존화면에서나마 그이의 모습을 우러르노라니 노비첸코는 북받쳐오르는 감격을 금할수 없었다.

마리야도 가슴이 뜨거워나는듯 남편의 손을 덧잡으며 뜨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야코프 찰호노비치! 당신을 축하해요. 그렇게도 **김일성** 주석동지를 뵈고싶어하더니...》

《고맙소! 마리야 에메노브나,

그렇지만 말을 타면 경마잡히고싶다는 조선속담처럼 그이를 텔레비존화면에서 뵈고나니 이젠 직접 몸가까이에서 만나뵈고싶구만.》

노비첸코는 뜨거운 걱정을 누르며 대답했다.

《원, 당신두 꿈을 꾸는게 아니우? 당신이 어떻게 것처럼 위대하신분을 몸가까이에서 만나뵈수 있단말이에요?》

《노보씨비르스크역으로 달리자면 혹시 만나뵈수 있지 않을까?》

《아유, 그 몸으로 근 800리길을 어떻게 간다구 그래요.》

안해가 걱정하는 말에 아들 이완이 끼여들었다.

《간대두 그렇지요. 그이께서 아버지를 어떻게 알아보시겠어요. 환영군중이 저렇게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이완!》

노비첸코는 돌연 언성을 높였다.

《넌 한 인간의 위대성에 매혹되어본적이 있느냐?》

대답을 못하는 아들을 안해가 변호했다.

《교생이란 말을 모르고 자란 애들이 그런 리치를 어떻게 알겠수.》

따는 그렇다. 교생을 모르고 자랐으니 인정귀한 줄 알리가 없다.

노비첸코는 문득 자기가 **김일성** 동지를 왜 그리도 못잊어하고 왜 그리도 만나뵈고싶어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싶었다.

그는 딸 라이썬더러 텔레비존을 끄게 하였다.

노비첸코는 방안이 조용해진 다음에도 한동안이 지나서야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2

《**김일성** 주석동지의 존함을 내가 처음으로 들은 것은 1939년 〈합인골사건〉 때였다.

그때 우리 병사들속에는 **김일성** 장군님께서 쏘련과 몽골에 대규모적인 침략행위를 감행하고있는 일본놈들을 배후에서 호되게 족치고계신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떠돌았다.

하지만 그이는 물론 그이께서 조직령도하고계시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도 만나볼수가 없었다.

공동의 원수를 반대해서 함께 싸웠지만 전선이 달랐거든.

한데 아시아에서 일본파시즘을 중국적으로 쓸어버리는 성스러운 싸움터에서 우리는 바로 **김일성**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항일유격대원들과 감격적인 상봉을 하게 되었다.

그중에는 강영준이라는 동무도 있었는데 어떻게 나 로어를 잘하는지 처음 만났는데도 꼭 구면친구 같더구나.

하지만 우리는 오래동안 함께 싸우지 못했다. 일본파시즘을 격멸하는데 도무지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으니까.

결국 강영준이와도 만나자 헤어진셈이지. 그러나 그는 깊은 인상을 남겨놓고 떠났다.

그래서 나는 평양에 들어서자 영준을 찾기 시작했다.

영준을 찾기는 조런치 않았다.

한데 내가 소련군대사령부 경비중대에 소환된지 며칠후였다. 불일이 있어서 **김일성** 장군님을 호위하는 조선경위대원들을 찾아갔던 나는 거기서 뜻밖에 도 강영준을 만나지 않았겠니.

우리는 부둥켜안고 그냥 울고 웃으며 돌아갔다.

한동안이 지나서야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영준동무, 축하하네 ! 이 세상의 행복을 독차지 했구만.〉

〈그만큼 책임도 중하지 !〉

〈그야 물론 ! 그런데 장군님은 어떤분이신가?〉

〈허허... 우물을 통채로 들고 마시겠군.〉

노비첸코동무, 우리 나라에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だね.〉

그 말을 들으니 참으로 **김일성** 장군님을 한번만이라도 뵈고싶어지더구나.

한데 장군님을 뵈옵는 행운이 뜻밖에도 그 며칠 후에 차례지지 않았겠니. 우리 소련군대사령관이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시는 **김일성** 장군님과 동행하게 되어 나도 우리 사령관을 따라나가게 되었거던.

나는 우선 그러럼 명망이 높으신 **김일성** 장군님께서 30대의 청년장군이시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해빛에만 비길수 있는 밝은 미소를 만면에 담고 계시는 그이를 나는 뵈을 잃고 우르르고있었다.

이윽고 **김일성** 장군님께서 〈자, 그럼 떠납시다.〉 라고 말씀하시며 승용차에 오르신 때에야 나는 자기의 임무를 자각하고 서둘렀다.

나는 영준이와 한승용차에 올랐다.

승용차는 평양시를 벗어나 서남쪽으로 달렸다.

영준은 말 한마디 없이 이쪽저쪽을 예리하게 살펴더구나.

나에게도 경비임무가 있었던것만큼 그런 영준이가 못마땅해서 좀 불부는 소리를 했다.

〈그쪽만 살피시오. 이쪽은 내가 책임질테니.〉

〈고맙소.〉

영준은 역시 한마디로 대답하고 그냥 감시를 계속하다가 갑자기 승용차를 멈추게 하였다.

나는 무슨 일인가싶어 영준이를 돌아보았다. 한데 영준은 벌써 승용차에서 뛰어내려 앞으로 달려가고있었다.

나도 승용차에서 뛰어내려 급히 영준의 뒤를 따라왔다.

김일성 장군님께서 어느새 승용차에서 내리셨는지 한손을 허리에 가볍게 얹으시고 갈림길너머 야산쪽을 깊은 감회에 잠겨 바라보고계시더구나.

나는 웬일이냐고 영준에게 물었다.

영준은 내 귀에 입을 대고 조용히 소곤거렸다.

〈저기 저 언덕너머 만경대에 우리의 경애하는 **김일성**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고향집이 있다고. 오늘은 아마 들려보시려나 보오.〉

영준은 기쁨에 겨워 속삭였지만 나는 여간 놀랍지 않더구나. 글썄 생각해봐라. 장군님께서 조국에 개선하신지 언제인데 지척에 있는 고향집에도 여태 들리지 않았었다니 어디 쉽게 리해되느냐.

그래서 고개를 기웃거리는데 장군님께서 조용히 혼자 말씀처럼 뇌이시더구나.

〈20년만에 보는 고향이군...〉

김일성 장군님께서 조국광복을 위하여 20성상 헤쳐오신 혈전만리를 더듬어보시는듯 한동안 아무 말씀 없으시더니 이윽고 부관을 부르시었다.

〈내 대신 한번 들어가보오. 들어가면 늙으신 조부모님이 계시겠지요. 내 인사를 전해주오. 그리고 나라가 해방되었으니 며칠 있지 않아서 나도 돌아올것이라고, 또 좋은 세상이 올것이라는것도 말씀드리고... 그럼 래일아침 이자리에서 만납시다.〉

장군님의 그 말씀을 들은 영준은 꼭 흐느끼며 돌아섰다.

나도 눈굽이 찡해지더구나. 20년전에 나라를 찾기전에는 돌아오지 않으리라라는 굳은 맹세를 남기시고 떠나셨었다는 정든 고향집, 늙으신 조부모님이 일일천추로 기다리고계실 고향집, 그 고향집을 지나 장군님께서 찾아가신곳이 과연 어덴줄 아느냐, 저기서 10여키로메터 떨어져있는 제강소였다. 늙으신 조부모님들보다도 해방된 로동계급을 먼저 만나시려고 고향집을 지나 제강소로 가셨단말이다.

생각해봐라. 어느 나라 수령의 전기에 로동계급부터 만나보려고 20년만에 찾은 고향집을 지나간 일이 있는가를.

나는 새삼스레 부풀어오르는 뜨거운 격정을 안고 그이를 모시고 달리는 승용차를 지켜보았다...》

노비첸코는 그때의 감동이 그대로 살아나는듯 여가서 이야기를 끊고 뜨거운것을 삼켰다.

이완도 감동을 금할수 없는듯 한동안이 지나서야 입을 열었다.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김일성** 주석동지께 매혹된것은 바로 그때였군요.》

《그렇다 !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

노비첸코는 안해가 짜모와르에서 따라주는 차관을 받는데 라이싸가 오빠에게 눈을 흘겼다.

《오빠 알지도 못하면서 왜 결론부터 앞세워요? 아버지 ! 어서 이야기를 계속해주세요 네?》

이완은 그러는 라이싸를 도끼눈으로 흘겨보았다. 마주앉으면 아이때부터 노상 수탉처럼 싸우는것이였지만 실은 어느 형제들보다 사이가 좋은 그들이

었다.

마리아는 그런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라이쌍을 가볍게 나무랐다.

《너무 보채지 말어라. 어련히 들려주지 않을라구.》

노비첸코는 안해의 말에서 그도 못견디게 듣고 싶어하는 조급한 마음을 읽었다. 그래서 마시던 차잔을 원탁우에 놓았다.

3

《내가 보고들은 이야기들을 다 하자면 정말 끝이 없다. 그러니 내가 직접 목격한 사실중에서 한가지 이야기만 더 하기로 하자.

가을도 저울어가는 어느 일요일이었다.

아침결에 영준이한테서 전화가 왔더구나. 일요일인데 휴식하지 않느냐구.

나는 휴식한다고 대답했다. 실지 그날 우리 소대는 휴식했었으니까.

《그럼 저녁 7시에 동무들을 데리구 우리한테 놀러오라구.》

영준의 말이었다.

나는 반대했다.

《이번에는 자네가 우리한테 놀러올 차례가 아닌가?》

그러자 영준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니.

《야슈까! 그러지 말구 오늘저녁엔 나한테 꼭 오라구. 내 결혼식을 하네.》

《뭐? 결혼식? 그럼 우선 전화로 축하하네! 그러구 저녁에 가서 다시 축하해주지.》

나는 약속대로 분대장 세동무와 함께 영준을 찾아갔다.

나는 영준을 만나자 축하해줄 대신에 두덜거리기부터 했구나. 물론 룡담이였지만 좀 섭섭했던것도 사실이다. 난 마리아의 사랑편지까지 언제나 공개했었는데 영준은 결혼식을 하는 날까지 비밀에 붙였거던.

영준은 얼굴을 붉히며 대답을 못하더구나.

나는 그제 재미나서 한발 더 다그쳤다.

그러자 영준은 《사실은 그런게 아니라 저-》 하고 머뭇거리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니? 장군님께서 처녀를 소개해주셨다는거야.

그때 내가 얼마나 놀랐겠니.

내가 너무도 놀라와하자 영준은 내 손을 꼭 잡으며 물기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의 장군님께서서는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는 내가 얼마나 외롭겠는가고 하시면서 빨리 결혼시켜야겠다고 말씀하셨다지 않아.

그러자 한 일군이 내가 어려서부터 남달리 고생을 많이 한 우리 타자수처녀를 대하는 눈치가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다.

그 말을 들으신 장군님께서서는 처녀의 마음을 알

아내는 재간이 있는가고 하시면서 누구 자신이 없는가고 물으셨다는거야.

아무도 대답이 없자 장군님께서서는 나를 열네살부터 데리고있었으니 이 일도 자신께서 직접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면서 한 일군을 보내시여 처녀의 의향을 물으셨다거던.

그런데 그 처녀동무가 마침내 어제 저녁에 대답을 드렸어. 한테 오늘은 벌써 이렇게 결혼식을 하게 해주셨다네.)

〈영준이 !〉

나는 영준을 힘껏 포옹하고 축하했다. 그것은 김일성장군님의 고귀한 품모에 감동된 격정의 폭발이기도 했다.

이윽고 영준이가 내 손을 잡아끌었다.

식당에는 낮익은 경위대원들과 항일혁명투사들이 빙 둘러앉아있었다.

나는 영준의 소개로 그의 애인과 인사를 했다.

정말 영준이가 탐을 낼만한 처녀였어.

우리가 인사를 끝내고 자리에 앉았을 때였다.

뜻밖에도 존경하는 김일성장군님께서 결혼식장에 들어서시는것이 아니겠니 !

나는 너무도 놀라 용수철에 튕겨나듯 벌떡 일어서며 군인본연의 습관대로 차렷자세를 취했다.

〈오, 소련군대동무들도 왔구만 ! 반갑습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먼저 영준이와 그의 애인을 축하해주시고 내앞에도 손을 내밀어주시었다.

나는 그때 얼마나 감격하고 황송했던지 그이께서 내미신 손을 어떻게 잡았던지 전혀 기억이 없다. 한없이 소탈하시면서도 인자하신 그 거룩한 모습을 우러르느라고 자신을 아주 잊고있었으니까.

나는 일어섰던 참가자들이 모두 자리에 앉았을 때에야 정신을 차렸는데 그제서야 장군님께서 참석하신 그자리에 그냥 앉아있는것은 무엄하기 그지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만 돌아가려고 벗어놓았던 군모를 슬그머니 집어들었다.

장군님께서서는 그러는 나를 의아한 눈길로 바라보시며 물으시더구나.

〈아니, 왜 벌써 모자를 집어들니까?〉

〈돌아가보겠습니다. 장군님께서 참석하시는줄 모르고 그만 버릇없이...〉

〈허허...여기에 장군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엔 영준동무의 결혼을 축하하러온 그의 동지들과 벗들이 있을뿐입니다.

동무야 우리 영준동무와 각별한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냥 가면 영준동무가 얼마나 섭섭해하겠습니까.〉

어서 앉으시오. 동무네가 참가해서 영준동무의 결혼식은 더 의의가 있습니다. 국제적성격을 띠게 되었던말입니다.

그렇지 않소? 영준동무 !〉

〈그렇습니다 ! 장군님 !〉

영준의 목소리는 끝없는 감격으로 하여 무뎠히 떨렸다.

내 가슴도 몹시 뛰었다. 그자리에 장군은 한사람도 없고 영준의 동지들과 벗들뿐이라는 겹쳐하신 말씀이 사람들의 가슴을 얼마나 뜨겁게 울리는 것이냐.

그것은 진정 인민의 수령만이 가질수 있는 가장 고귀한 품모였다!

나도 그 높으신 인품에 놀려 다시 그자리에 주저 않고말았다.

장군님께서는 그제서야 옆에 앉아있는 일군에게 말씀을 건넸시였다.

〈아무래도 동무가 먼저 한마디 해야지 않겠소?〉

장군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일군이 축하의 말을 하고 모두 영준의 결혼을 축하해서 잔을 들었다.

장군님께서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일어나서 영준이와 그의 애인을 축하하시고 그다음엔 나와 우리 동무들앞에 잔을 내미시였다. 얼마나 황송하고 감격스럽던지.

나는 지금도 그때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지어 그날밤의 술맛까지도.

참, 이완 년 〈조선소주〉가 얼마나 맛있는 술인지 모르지? 마실 때는 향기로운데 일단 마셔놓으면 은근히 취기가 오르거든.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니 그 술맛이 어찌면 조선사람들의 성격을 말해주는듯싶어 그런다. 언제나 친절하고 마음 후한 조선사람, 그러나 일단 성이 나면 맹호같이. 참으로 강의하고 억세면서도 선량한 민족이다. 또 락천적이기도 하구. 그들이 노래와 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날밤도 술이 몇순배 돌아가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영준이도 부르고 그의 애인도 부르고 나도 청에 못이겨 씨비리민요를 불렀지.

이렇게 돌림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부르고난 너대원이 글씨 **김일성** 장군님께 노래를 불러주실것을 청하지 않았겠니.

나는 그 너전사를 마뜩지 않은 눈길로 바라보았다. 아무리 결혼식장이래도 상하 구별이야 분명해야 할게 아니냐.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직 나 하나뿐이었다. 조선동지들은 한결같이 박수갈채를 보내며 재촉했으니까.

장군님께서는 천천히 일어나시더니 노래를 부르시였다.

굵은 중음으로 〈사향가〉를 부르셨는데 말그대로 고향을 생각하는 노래였어. 가사는 한마디도 모르겠는데도 장군님께서 어떻게나 감정을 담아 서정적으로 부르시는지 나는 그 노래를 들으며 내 고향 씨비리의 프라브노예마을을 그렸다. 울울창창한 수림, 내가 사랑하는 봇나무, 넓은 광야, 맑은 물이

흐르는 시내, 시내가로 통한 오솔길, 그 오솔길가에 서 너의 엄마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밤을...

너의 어머니를 생각하니 끝내 눈물이 나더구나. 너의 어머니와 결혼식도 못하고 사는 일이 떠올랐던게다.

너희들은 모르지? 〈38년의 가물〉을. 우리 프라브노예에서는 그 〈38년의 가물〉 때보다 더 굶주린 때는 오직 전쟁시기를 제외하고는 한번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을 할수 없었다.

한데 영준의 결혼식은 얼마나 굉장했겠니. 음식상을 넘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그보다도 존경하는 **김일성** 장군님께서 친히 참석하시여 축하의 노래까지 불러주셨기에 하는 말이다.

장군님께서 부르시는 노래에 한껏 심취되어 고향 생각을 하던 나는 요란한 박수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알고보니 장군님께서 노래를 끝내신 것이었다.

나도 조선동지들과 같이 장군님을 우러르며 박수를 쳤다.

참으로 얼마나 거룩한 모습이였겠니. 그것은 정녕 전사들의 기쁨을 자신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시는 인민의 참다운 수령의 모습이였다!

그 거룩한 인품에 매혹되어 조선사람들은 혁명적 의리를 생명보다 귀중히 여기면서 그이를 따라 걸음마다 죽음이 지켜선 투쟁의 험난한 길을 곳곳이 걸어왔고 마침내 혁명의 승리를 이룩한 것이었다!

나는 이 귀중한 진리를 존경하는 **김일성** 장군님의 모습에서뿐아니라 그이를 우러르는 전사들의 모습에서도 보았다.

고아의 설음, 머슴살이의 고달픔을 너무도 쓰라리게 맞본 나여서 그 진리가 그리도 가슴뜨겁게 안겨오고 **김일성** 장군님의 거룩하신 인품에 그렇게도 완전히 매혹되었는지도 모른다.》

노비첸코는 여기서 이야기를 끝냈다.

마리아도, 라이싸도, 이완도 크나큰 감동에 빠져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윽고 이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이제 모든게 리해돼요. 존경하는 **김일성** 주석동지께 아버지가 그토록 매혹된것도, 그리구 것처럼 **김일성** 주석동지를 몸가까이에서 뵈우고싶어하는 그 심정도.

어머니,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노보씨비르스크에 다녀오겠어요.》

《아주 잘 생각했다. 그게 좋겠다.》

마리아가 젖은 목소리로 아들의 의견을 지지했다. 그러나 노비첸코가 반대했다. 70고령이지만 이완을 데리고 다녀야 할만큼 늙었다고 생각지 않는 그였다.

결국 그날밤은 아무런 합의도 보지 못했다.

하지만 마리아는 남편이 혼자서든, 둘이서든 어쨌든 떠나리라는걸 알고있어서 이튿날은 전적으로 남편의 길떠날차비를 하였다.

한데 중낮때였다. 노비첸코가 살고있는 프라브노

예마을 쏘베트위원장이 주당에서 온 한 일군을 데리고 찾아왔다. **김일성** 주석동지께서 벌써 두차례나 노비첸코의 아름다운 소행에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이번 걸음에 친히 노비첸코를 만나보실 의향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었다.

《**김일성** 주석동지께서요?》

노비첸코는 너무도 감격스러워 더는 아무 말도 못했다. 38년전에 있었던 일을 잊지 않으시고 회고 해주신 것만도 고맙기 그치없는데 친히 몸가까이 불러까지 주시니 그 크나큰 은정앞에 과연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는가.

《그저 누구나 그자리에 있었다면 달리는 행동할 수 없었을 그런 일을 했을 뿐인데...》

노비첸코는 목이 메어 더 말을 못하고 뜨거운 것만 삼켰다.

그러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지금껏 잊지 않으시고 계시는 일은 과연 어떤 것일까?

4

영준의 결혼식에서 커다란 충격을 받은 노비첸코는 생각이 깊어졌다. 평소에 영준이가 들려주던 이야기들도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흥벽을 쳤고

김일성 장군님의 신변안전을 두고 영준이네들이 그토록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것도 경위대원이라는 직책상의 무때문만이 아니라 위대한 인간에 매혹된 그들의 신념이며 의지라는 것을 새삼스레 느끼게 되는 것이었다. 사실 외국사람인 자기도 그이를 위해서라면 불속이라도 뛰어들고 싶을진대 그이의 품속에서 자라난 영준네 경우야 더 말할 무엇 하랴.

(장군님의 안녕은 조선혁명을 위해서뿐 아니라 세계혁명을 위해서도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노비첸코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그런데 평양학원개원식에 사령관을 따라나갔던 노비첸코는 명준이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게 이상하여 물어보았다.

놀랍게도 영준은 며칠전에 토지개혁을 앞두고 농촌에 나가셨던 **김일성** 장군님을 모시다가 그만 부상을 당하여 입원하였다는 것이었다.

《음!-》

노비첸코는 지그시 이를 앙다물었다. 토지개혁을 앞두고 반동놈들의 준동이 더욱 우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그도 알고있었다. 하지만 이런 불상사가 생길 줄은 미처 생각 못한 그였다.

노비첸코는 그날 근무를 끝내자 내쳐 영준이가 입원하고있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영준은 죽은 듯 기신없이 누워있는데 갓 결혼한 그의 안해가 침대곁에 앉아 소리없이 울고있었다.

그 정상을 본 노비첸코는 속에서 불이 일었다.

(어느놈이 금방 결혼한 신부한테서 남편을 앗아 가려 했는가?)

노비첸코는 타끓는 증오를 주체할 길이 없어 딱

틀어진 주먹만 우들우들 떨고있는데 영준이가 슬며시 눈을 떴다.

원썬놈들의 총탄은 영준에게서 피만이 아니라 눈정기마저 빼앗아간 듯 머무랄갈던 눈은 흐리멍텅했다. 언제나 미소가 남실거리던 입술도 조갈이 일어 험상궂었다. 그리던 벼를 보니 반가운 듯 빛을 잃었던 그의 눈에 한가닥의 정기가 돌았다.

노비첸코는 질끔 솟구치는 눈물을 견잡을 생각도 있고 영준의 손을 꼭 쥐었다.

《영준이! 어떻게 된 일이지? 응? 어느놈이, 어느놈이 이렇게 만들었는가 말이지?》

《야슈까! 난, 난 아무 일 없어. 난 행복하오.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녕을 지켜냈거든!》

《영준이!》

노비첸코는 가슴이 뭉클해서 더 말을 못하고 영준의 손만 정겹게 쓰다듬었다. 오늘날라 영준이가 더 돋보였다.

(친위전사란 바로 영준이 같은 사람들인가! 한몸을 바쳐 수령의 안녕을 지켜내고 그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는 이런 전사들이!)

노비첸코는 자못 승엄한 생각을 안고 병원을 나섰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서였다. 평양역전광장에서 3.1운동 27돛경축 평양시군중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이날 쏘련군대사령부 책임일군들도 주석단에 초대되어 노비첸코는 조선경위대원들과 함께 다시금 경비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노비첸코는 영준이가 부상당한 사건이 있는 직후여서 특별히 높은 경각성을 가지고 광장으로 나갔다.

광장이래야 역전앞 공지였고 주석단도 관자로 바빠 만든 가설무대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새벽부터 여기로 흥수처럼 밀려들었다. 장군님께서 누구보다 먼저 찾아주셨던 강선제강소의 강철전사들, 탄부들과 철도로동자들, 호미와 낫을 쥔 농민들, 학생들...

《**김일성** 장군 만세!》

《조선독립 만세!》

이런 대형구호판들이 수풀처럼 일어서고 《토지는 발같이하는 농민들에게!》라고 쓴 프랑카드가 기발처럼 날렸다.

그밑에서는 사람들이 춤을 추었다. 새남을 부는 사람, 징을 울리고 북과 장고를 치는 사람, 경총 경총 뿜을 쏘며 춤을 추는 남자들, 머리수건에 울긋불긋하니 꽃을 달고 땅에 끌리도록 긴 꼬리치마를 입고 춤을 추는 녀인들, 아버지들의 어깨우에 올라서서 재롱스레 춤을 추는 소년 소녀들...

그 모든 것이 노비첸코에게는 생소한 것이어서 신기하게만 보였다. 그래서 갖고 간 책을 볼 생각도 있고있던 그는 갑자기 광장이 터질듯이 울리는 만세의 환호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께서 송진내가 풍기는 높지 않은 주석단에 오르곤했었다.

노비첸코는 그제서야 자기의 숭고한 의무를 자각하였다.

(나는 흥분해서는 인된다! 령철한 리성과 높은 경각성을 가지고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노비첸코는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들고있던 책을 품속에 질러넣고 주석단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립초중인 병사들에게도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것이였다. 주석단과 군중과의 거리가 얼마 멀지않은 조건에서 더욱 그랬다.

주석단에서는 벌써 **김일성** 장군님께서 연설을 하고계셨다. 약간 거싯하면서라도 광장을 찌렁찌렁 울리는 목소리, 열정에 넘치신 손짓, 일단 우리르면 눈을 뗄수 없었지만 노비첸코는 애써 걸음을 옮겼다. 따발총을 메고 서있던 병사가 몸을 뒀다.

노비첸코는 그 병사앞으로 다가서며 조용히 그러나 명령조로 엄하게 말했다.

《눈을 팔지 말것! 최대의 경각성을 가지고 주위를 예리하게 살필것!》

노비첸코는 립초중인 매개 병사들에게 똑같은 명령을 주며 주석단끝까지 갔다. 왼쪽측면부터 주석단후면까지는 조선경위대원들이 서있고 주석단 오른쪽부터 앞면까지는 자기네 병사들이 서있었다.

노비첸코는 영준이 대신 나온 동무와 주석단 호위문제를 두고 몇마디 의견을 나누고나서 다시 걸음을 옮겼다.

주석단 오른쪽측면을 지켜선 병사들도 하나같이 믿음직스러웠으나 노비첸코는 똑같은 명령을 다시 주며 앞쪽으로 나오고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였다. 주석단으로 무엇인가 날아왔다. 그 무슨 짐승의 꼬리처럼 흰연기도 날렸다.

《음?》

노비첸코는 초인간적인 힘을 다해 몸을 날렸다. 잡아보니 그것은 흰종이에 싼 수류탄이였다. 이미 십지에 불이 당기여서 쑹쑹 소리가 났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아슬아슬한 순간이였다.

노비첸코는 반사적으로 연락쪽을 바라보았다. 아무 일도 없는듯 연설을 계속하고계시는 **김일성** 장군님의 모습이 확 안겨왔다.

그 순간 노비첸코의 머리에는 주석단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번개쳤다.

(던져야 한다!)

허나 던질곳이 없다. 앞에도, 량옆에도 시위군중... 그렇다고 금시 터질 수류탄을 붙잡은채 그냥 서있을수는 더구나 없다.

마침내 비장한 결심을 다진 노비첸코는 수류탄을 불안으며 소리쳤다.

《수류탄이다!》

그는 판자를 둘러친 주석단후면으로 몸을 날렸다.

《팡!-》

뢰성벽력같은 폭음, 물썩 피어오르는 포연...

뜻하지 않은 폭음에 놀란 광장이 파도처럼 설레이며 주석단으로 눈길을 모았다.

김일성 장군님께서 폭음이 울린 주석단뒤쪽을 한번 피끗 돌아보셨을뿐 연설하시던 자세 그대로 태연히 서계셨다.

그 모습은 정녕 일제 100만 관동군을 전몰케 하던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의 모습이였다.

거룩한 그 기상에 놀린듯 반동놈들도 더는 얼씬하지 못했지만 경위대원들과 주석단성원들은 그이의 신변이 넘려되어 일시에 모여들었다.

《장군님! 위험합니다!》

《일없소. 우리야 백두산에서 싸우던 사람들이 아니요. 놀랄것은 없소!》

김일성 장군님의 말씀은 마이크를 통하여 광장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광장에서는 폭풍같은 환호가 일어났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신 **김일성** 장군 만세!》

《친일, 친미 반동들을 타도하자!》

광장은 한동안이 지나서야 진정되였다.

광장이 정돈되자 **김일성** 장군님께서 연설을 계속하시였다.

허나 노비첸코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는 중상을 입고 쓰러졌다. 품속에 질러넣었던 책에는 선홍색 붉은 피가 물들고...

5

승용차는 수림가로 뻗은 길을 따라 쾌속으로 달리고있었다. 차창으로는 양떼흐르는 초원이며 트랙포르들이 줄지어늘어선 벌판이 끝없이 흘렀다.

노비첸코는 차창을 조금 열어놓았다. 구수한 봄냄새를 실은 훈훈한 봄바람이 스며들며 백발이 성성한 그의 머리칼을 훑날렸다.

(참, 어찌먼 그리도 인정이 깊으실가. 근 40년이란 긴긴세월이 흘렀는데도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친히 몸가짜이로 불러주시다니.)

노비첸코는 이런 뜨거운 생각에 잠겨있었는데 주당에서 온 일군이 조용히 물었다.

《**김일성** 주석동지께서는 노비첸코동무의 소행을 영웅적행동이라고 높이 평가하신다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여태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까?》

노비첸코는 저으기 당황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노비첸코는 이처럼 소박하고도 겸손한 씨비리사람이였다.

노비첸코는 한동안이 지나서야 주당일군에게 말했다.

《나는 공산당원으로서, 병사로서 자기 의무를 다했을뿐인데 **김일성** 주석동지께서 그것을 영웅적소행으로 값높이 사주시는것이지요. 이이께서는 위낙 전사들이 해놓은 자그마한 일도 그렇게 값높이

평가하시는 그런분이시랍니다.

나는 조선에 가있을 때 그것을 직접 보고듣고 느끼곤하였습니다.》

노비첸코는 제풀에 자기가 보고듣고 느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승용차는 노보씨비르스크역에 도착하였다.

역구내에는 환영군중들이 꼭 들어찼는데 주의 당, 정권기관 책임일군들도 나와있었다.

노비첸코는 주당일군이 시키는대로 영접나온 간부들다음 자리에 섰다. 책임적인 간부들과 한자리에 나란히 서보기는 난생처음인 그였다.

하지만 구내에서 폭풍같은 환호성이 터져오르자 어색한 기분도 가뭇없이 사라졌다. 특별렬차가 서서히 구내로 들어오고있었던것이다.

노비첸코는 터져나올듯이 높뛰는 심장을 달래며 특별렬차만 주시했다.

렬차가 몇차 **김일성** 주석동지께서 만면에 해빛을 안으시고 내리시는것이였다.

오매에도 그리던 **김일성** 주석동지를 뵈옵는 순간 노비첸코는 꼭 흐느끼며 뜨거운 눈물부터 쏟았다. 왜 눈물이 앞서는지 알수 없었다.

그날 **김일성** 주석동지께서 환영군중들에게 답례를 보내시고 마중나온 일군들과 인사를 나누실 때에야 자신을 다잡고 열린 손수건을 꺼내서 눈굽을 훔쳤다.

하나 미리부터 생각해두었던 인사의 말씀조차 드리지 못했다. 웬일인지 목이 꼭 메여 입을 열수도 없었지만 **김일성** 주석동지께서 그럴틈을 주지도 않으셨다. 노비첸코를 보시자 뜨겁게 포옹해주신것이였다.

《그래 건강은 어떻습니까?》

김일성 주석동지께서 이렇게 물어주시어서야 노비첸코는 황급히 몸가짐을 바로하며 말씀드렸다.

《예 ! 저는 아주 건강합니다. 주석동지께서 건강하신 모습을 뵈오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주석동지께서 병원에 입원해있는 저에게 조선의 유명한 약재들과 진귀한 식료품들을 보내주신 뜨거운 사랑과 크나큰 배려를 지금도 잊지 않고있습니다.》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노비첸코동무의 영웅적소행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응당한 평가였습시다.》

언제나와 같이 모든것을 인민들의 소행으로 돌리시는 **김일성** 주석동지의 높은 인품에 감동되어 뜨거운것을 삼키는데 그이께서는 동행간부들과 영접나온 쏘련간부들에게 38년전의 일을 감회깊이 회고하시고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것이였다.

《노비첸코동무가 이렇게 영웅주의를 발휘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주석단에 있던 우리 당의 핵심들

이 다 희생되었을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민들은 지금도 노비첸코동무를 영웅으로, 국제주의전사의 모범으로, 조쑤친선의 상징으로 잊지 않고있습니다.》

《주석동지 !》

가까스로 누르고있던 걱정이 폭발되어 노비첸코는 뒤말을 잊지 못했다.

자기가 아닌 다른 어느 공산당원이, 아니 평범한 보통병사가 그자리에 서있었대도 다르게는 행동할수 없었을 그런 일을 **김일성** 주석동지께서는 영웅적 행동으로, 국제주의전사의 모범으로, 조쑤친선의 상징으로 높이 평가해주시는것이 아닌가 !

아!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는 참으로 얼마나 고매한 덕망을 지니신 위대한분이신가 !

노비첸코는 북받치는 걱정때문에 그냥 흐느끼는데 **김일성** 주석동지께서는 그의 팔을 꼭 끼시며 좀 견차고 말씀하시였다.

노비첸코는 그제야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애써 진정하려 하였다.

그이께서는 노비첸코가 얼마간 진정되었을 때 가정형편에 대하여 물으시였다.

노비첸코는 가까스로 자신을 다잡으며 자식 6남매에 손자들만도 11명이나 된다고 말씀드렸다.

《손자만 열한명이라-한개 분대군 ! 아주 대단합니다 !》

김일성 동지께서는 기쁨을 금할수 없는듯 크게 웃으시다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심중하게 물으시였다.

《부인은 건강합니까?》

《예, 건강합니다.》

《건강하다...》

김일성 주석동지께서는 이렇게 되뇌이시며 몇걸음 옮기시다가 담배를 꺼내어 노비첸코에게 권하시였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이께서 권하시는 담배를 받기가 무엄한듯싶어 노비첸코는 어망결에 주머니에서 담배갑을 꺼내고 보니 사연깊은 은담배갑이였다.

《주석동지 ! 이 담배갑은 38년전에 주석동지께서 저에게 은시계와 함께 보내주신것입니다.》

《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는 로씨야 담배가 들어있는것 같은데 오래간만에 조선담배를 한대 피워보시오.》

노비첸코는 더는 사양할수가 없어서 그이께서 주신 담배를 받았다.

한데 주석동지께서 성냥불까지 켜서 내미시는것이 아닌가.

노비첸코는 너무도 황송하여 한걸음 뒤로 물러서며 말씀드렸다.

《후에 피우겠습니다.》

《그러지 말구 어서 불이시오. 한손이 없으니 담

배를 피우재도 여간 불편하지 않겠는데.》

그 뜨거운 말썬에 대번 눈물이 솟구치는것이였지 만 그 이상 사양하는것도 실례가 될것 같아 노비첸코는 그이께서 커주신 성냥불에 담배를 붙였다.

그이께서도 담배를 붙이시고 시름겹게 한모금 피우시고나서 가라앉은 음성으로 물으시는것이였다.

《한손으로 성냥불을 켜기는 불편하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석동지 ! 너무 걱정하지 말아주십시오. 라이타를 쓰기도 하지만 안해가 늘 도와줍니다.》

《부인이, 부인이... 참 훌륭한 부인입니다. 한 가정을 꾸려가자면, 더구나 어렵고 힘든 일이 아직 적지 않게 남아있는 농촌에서 살자면 남자들의 손이 가야 할 일들도 많겠는데 연약한 녀성의 몸으로 그 일을 도맡아하면서 남편의 옷을 입혀 주고 단추를 채워주고 담배시중까지 들어주자니 부인의 수고가 얼마나 막심하겠습니까.》

참, 훌륭한 부인입니다. 돌아가면 부인에게 나의 뜨거운 인사를 전해주시요.》

《주석동지 !》

노비첸코는 다시금 왈칵 눈물이 솟구치는것을 견잡을수 없었다.

고향사람들도 한손이 없는 자기에게는 심심한 동정을 표시하기도 하고 가끔 일손을 도와주기도 했다.

그러나 안해의 남모르는 고충과 수고를 리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런데 한나라의 국가수반이 어찌면 외국의 한 녀성의 수고까지 것처럼 깊이깊이 헤아려주시는것인가 !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감격해하랴.

(여보 ! 마리아 !

김일성 주석동지께서는 누구나 그자리에 있었다면 그렇게밖에 달리는 행동할수 없었던 38년전의 일을 두고 영웅으로, 국제주의전사의 모범으로, 조조친선의 상징으로 높이 평가해주시였을뿐아니라 한손이 없는 나와 같이 사는 당신의 수고까지 헤아리시고 친히 따뜻한 인사까지 전하라고 하시요.

듣소? 마리아 !

경애하는 **김일성** 주석동지는 이처럼 크나큰 사랑과 고매한 덕성을 한몸에 지니신 위인중의 위인이시란말이요 !)

노비첸코가 안해와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야기하고있는데 주석동지께서 조용히 말씀을 이으시는것이였다.

《노비첸코동무》

오늘은 시간이 허락치 않아 오래 이야기하지 못하고 헤어져야 하는게 여간 섭섭하지 않습니다. 부

인과 아들딸, 손자들을 데리고 우리 나라에 와주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에 오면 그때 시간을 내여 오래오래 이야기합시다.》

《주석동지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노비첸코는 친히 가까이 불러주시여 만나주신것만도 영광스럽기 그지없는데 또다시 초정까지 해주시니 그 감격을 표현할길 없어 같은 말만 되뇌이였다.

김일성 주석동지께서는 그러는 노비첸코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자, 그럼 우리 평양에서 다시 만납시다 !》

노비첸코는 그제야 **김일성** 주석동지께서 떠나셔야 할 시간이 되었음을 알아차렸다.

《존경하는 주석동지 ! 부디 만수무강하시고 행복하실것을 삼가 축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부인과 함께 우리 나라에 꼭 오시오.》

김일성 주석동지께서는 다시 한번 노비첸코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고 렬차에 오르시였다.

군중들은 다시금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김일성** 주석동지를 모신 특별렬차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아 ! 20세기가 낳은, 끝없는 사랑과 높은 덕망을 지니신 위대한 인간 ! 인민의 위대한 수령 !)

노비첸코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으며 차츰 멀어져가는 특별렬차를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배웅하였다.

그러나 노비첸코는 **김일성** 동지께서 돌려주시는 사랑의 폭과 깊이를 다는 모르고있었다. 자기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게 될줄도, 조선을 방문하게 되면 얼마나 뜨겁고 열렬한 환영을 받게 되리라는것도 그리고 그것이 다 **김일성** 동지께서 마련해주신것이라는것을 모르고있었다.

그에게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급했다.

김일성 주석동지께서 안겨주신 끝없는 영광과 크나큰 사랑을 안해에게, 자식들에게 어서 빨리 전하고 싶었다.

다급한 그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승용차는 쾌속으로 달렸다. 차창으로는 그가 것처럼 사랑하느 씨비리 별판이, 초원이, 수림이 다가왔다가는 뒤로 흘러가군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느끼지도 못했다. 야꼬브 찌호노비치 노비첸코의 머리속에는 **김일성** 동지의 거룩하신 영상만이 깊이, 더 깊이 새겨지고있었던것이다.

김일성장군

(쏘련) 엔. 그리바쵸브

1

침착하고도 다정하신 태도
웃음어린 안광-
그이는 담화에 만족하시여
우리 말을 주의깊이 듣기도 하시고

쏘련의 예술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조선의 예술이 전투적으로 되려면
모든 일을 신속히 성취해야 된다고
그이는 친히 말씀도 하시고

무용가들도 가수들도
배움에 창작에 분발해야 된다고
틈만 있으면 몸소
곳곳에 가봤으면 좋으시겠다고

정부일군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한가지로
청진에선 노래, 강계에선 연극을
보고 듣고 했으면 좋으시겠다고...

화기어린 담화도 끝날무렵
창문을 바라보시며
우리들중 사냥군이 있느냐고
그런 사람도 있다 하니 기뻐하시고

지금은 밤에도 낮에도
기러기떼들이 날아들어
강줄기따라 골짜기에 찬다고
그리운 표정으로 말씀하시며

이런 때 어느 저수지숲속에 앉아
무르익은 벌을 바라보며
기러기떼를 기다릴 때
산마루에서 내리는 석양도 좋으며

지느러미를 쳐든듯
상류로 오르면서
흐르는 물결과 서로 다투는
서해의 밀물을 바라보는것도 좋으며

마을사람들의 노래소리 들으며

산허리에도 지붕에도
빛을 뿌리며 솟아오르는
조선의 밝은 날을 맞이함도 좋으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늦도록 앉았더니
어느덧 저녁이슬에 나무잎도 젖고
내물도 수풀과 맘껏 속삭인듯

38선에서 떠난 밤바람은
조선의 높고낮은 산마루를 날아넘어
논판이며 수수밭을 열른 지나
두만강 푸른 물에 잠기는데

장군계선 그 무엇으로든지
말로든지 안색으로든지
눈섭의 움직임으로든지
우리에게 슬픈 기색을 보이지 않으셨다

그러나 우리들은 집으로 가는 길에
슬픈 사실을 알았다-
바로 며칠전에 병환으로
그이의 부인께서 세상을 떠나시였음을...

집에선 어린 자제분들이 말없이 모여앉아
어머님생각에 잠겨있으리라
우리들은 이런 슬픔을 잘 안다
그처럼 가슴아픈 일은 없다

그 어떠한 힘이 솟기에
모든 비애를 한심장에 안으시고
첫새벽부터 강철의 의지로
일손을 잡으시는것인가

싸움의 마당에서
최후까지 앞으로 내닫는
두려움 모르는 전사의 마음-
장군은 그 마음의 화신!

어둠이 짙어갈 때까지
나라에 더 많은 식량을 보내주려고
논밭에서 쉴새없이 일하는 농부의 마음-
장군은 그 마음의 화신!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며
공장과 탄광을 복구하는
이 나라 노동자의 힘-
장군은 그 힘의 화신!

쓰팔린의 초상화가 벽에 걸린 사무실
그이와 담화하는 여기에서
홀연 이삭패는 소리도 들리고
강철의 우뢰소리도 울려오는듯

기척소리도 나는것 같고
발자욱소리도 들리는듯하더니
유구한 력사의 주인-영명한 인민은
장군의 어깨뒤에 나란히 서는듯

거리와 마을을 일떠세우고
거창한 언제와 관계수로를 펼친 인민-
이들이 불쌍한 인민이란 말은
어리석은 력사가들의 잠꼬대같은 소리

한번 나섰거니 물려서진 않는다고
인민은 세상에 장엄한 선언하였다
한번 우뚝 일어섰거니
다신 허리굽히지 않는다 웨쳤다

대양건너편에서 불행을 퍼뜨리는 이때
인민의 위대한 아들
가장 영재롭고 가장 대담한 아들-
김일성장군 여기에 서계시다

담화를 끝마치면서-
《사냥하러 가렵니까?》
《장군께선 가시겠습니까?》
《유감스러우나 갈사이가 없습니다

남쪽은 너무도 소란합니다
개들처럼 씨우고있는 매국노들-
인민은 그속에서 신음합니다》
장군은 조용히 창문을 내다보신다

장군은 남쪽을 바라보신다
그이의 시선을 따르며 우리들은
그제야 처음으로 보았다-
끝없는 분노에 타는 그이의 안광을-

2

그해가을은 누르러 붉어

불길같이 대지에 퍼졌다
달구지 굴러가는 소리
달리는 자동차소리에 어울리어

해바라기도 무겁게 머리숙였고
어느덧 배추도 서적거린다
다정하여 애뜻한 흙냄새풍기는
무르익은 가을철의 마을이여-

우리는 지구의 여러 위도에서
높아진 가을하늘이며
붉게 물든 가을언덕도
나뭇기는 락엽도 많이 보았다

그러나 여기에선
창문에 울타리대인 이 집에선
락엽지는 소리도 더 잘 들린다
그 조용한 속삭임까지도...

집은 다른 집과도 같이
굴뚝에선 연기도 나고
지붕도 알맞게 물매쳤고
벽도 누른 흙으로

우물가에 큼직한 독도 놓였고
드레박도 걸려있고
집으로 들어갈 때 신발벗는
토방돌도 믿음직이 놓여있고

집은 얼른 보기에다 가난한 집
작고도 가벼운 집-
이런 집이 어떻게 서있는가
의문도 갖게 하는 집

폭탄의 폭풍이 다 무엇이라-
이런 수수깡집은
어깨를 대이고 지그시 밀어도
두사람이면 넘어뜨리리라

우리들도 어린시절에
불품없는 집에서 살았다-
통바람이 제멋대로 드나들고
마루바닥은 흙같이 검은 집

어둑한 천정
구석마다 슬픔이 서린 집-
하건만 우리 자란 그 집은
이 집에 비하면 궁궐이리라

여기에선 세기를 지나오면서
빈궁이 모든것을 통솔했느니
옷이란 몸에 걸친것뿐
설날에도 밥 한그릇 있었던가

무서운 지난날에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살았는가
감옥의 콩밥보다 좋다는것 -
썩은 쌀에 김치쪽...

우리는 뛰는 마음을 걸잡으며
이 집의 종이문을 연다-
장군의 어린시절로 들어가는
소년시절로 이끄는 이 종이문을

여기에서 그이는 성장하였다
여기에서 그이는 어느때가
안개낀 대동강물결을 거슬러오르는
흰 돛의 나루배를 보시였다

배사공의 구슬픈 노래를 들으시며
한숨도 가슴깊이 지으셨고
쓰디쓴 그 노래의 애라는 구절은
그이의 마음을 눈물로 태웠다

오솔길이 얹힌 여기서
그이는 어느날 아침 왜놈은 보셨더라
불행의 구름을 휘감고
시퍼런 칼날 절걱거리는 왜놈의 물골을

차고도 독한 그놈의 거동-
어리신 그이는 쉽게 알수 있었다
선조의 귀를 베어낸 그놈
할아버지들을 철쇄로 얹은 그놈을

신음도 눈물도 애원도
놈들의 검은 량심을 울릴순 없었다
무서운 악마와도 같이
놈들은 이 땅에 달려들었다

찌는듯한 그날 정오에
놈들의 날창앞에서
누군지 강가의 붉은 언덕으로
마지막길을 걸었다

그날밤 굶은비 창문에 뿌릴제
바람소리 파도소리 속에서도

그이는 사격하는것도 보았고
외마디비명도 들었다
이것으로 그이의 어린시절은 끝났고
백두산 눈속으로 내짚은
청춘의 길-싸움의 길 시작되었다
온 나라를 구원하는 길-

이 가을엔 여기로 사람들도 많이 오나니
인민주권의 혜택에 감격하여
두메마을 아낙네도 로인도
어제날의 농부-오늘은 대학생인 젊은이도

성진 어느 공장 로동자도
동해의 어느 어촌 어부도
만경대의 오솔길에서 친척같이 만났다
장군님의 빛나는 생애를 본받으려이다

천리길 먼길도 가까와보이는
장군님의 고향으로 오는 길-
뉘보다도 마을사람들이
더 많이 여기로 오거니

모두 돌아보고는
손으로 어루만지기도 하고는
먼지이는 길을 걸으면서
마을과 마을에 집과 집에 전하여라-

《그이는 우리 사람이시다 !》
《그이는 우리같은 사람이시다》
《그이는 이 땅이 낳은
농부의 아들이시다》

그리하여 마음과 마음은 이어지고
심장과 심장은 서로 열리어 전하는 말-
《우리들의 행복한 앞날을
그이와 쓰팔린이 이야기하셨다네-》

땅에 붙은 조선집에서
산기슭에 추녀가 닿은 그 집에서
우리는 설명이 없어도
그이가 지니신 힘을 잘 알았다

고통의 지난 세월에-
지하의 투쟁과 로력의 그날에도
그이는 인민에게서 인민에게로
그이는 인민의 마음으로 살으시였다

높은 산은 무너진다 하여도

대하는 말라 불이 인다 하여도
김일성 장군 한분으로 화신된
조선의 의지는 못꺾으리라 !

3

북쪽엔 별들을 다칠듯 높이 솟은
오각의 흰 산이 있는데
세상에서 이 산과 비길 산은
그 어디에도 없다네

산우에 호수있어
사람들은 하늘의 높이라 부르는데
그믐밤같이 캄캄도 하여지고
피이한 광채를 뿜치며 빛나기도 하고

한번 이 산을 본 사람은
한번 피상한 절벽을 본 사람은
영구한 얼음의 세계를 알며
죽음의 침묵을 인식한다네

이 산의 절벽으로 오른 사람은
낭떠러지로 기여오른 사람은
산골짜기에서 찾지도 말란다네
산 사람이라 믿지도 말란다네

순간 사람의 피는 얼음이 되고
이상한 백광에 타버린 낮엔
어느덧 서리발이 지나고
흰눈송이들이 덮인다네

그런데 한번은 사람이 이 지옥을 지나 넘었다
빨찌산부대를 거느리고
죽음과 싸워이겼다
영원의 침묵도 깨쳐버렸다

한주일동안이나 왜놈들은
빨찌산들을 추격하였다
앞길은 험하고도 간고해
구원의 길은 막힌듯했다

왜놈들은 굶주린 송남이떼같이
아우성치며 달려들었다
흰 이발을 드러내며
목숨을 물어뜯으려 날치였다

전사들은 피흘리며 싸우면서
장군님의 명령을 받아 산오로 올랐거니
하늘의 지붕으로-

친지있는 산정으로

어떤 전사들은 마지막힘을 잃으면서
장군님께 간청하였다
얼고있는 피를 녹이려
죽음의 백병전에 나갈것을

원썩앞으로 기여들어가서
그놈을 끌어안고 절벽에서 떨어져
떨어지면서 그만 얼음이 될것을
장군님께 간청하였다

그때 기진한 전사들에게
장군님께서 높이 하신 말씀-
《그것은 쉬운 죽음이다
누구나 그렇게 죽을순 있다

그렇다고 적의 총구는 멎지 않는다
적의 칼은 칼집에 들지 않는다
조선엔 죽은 사람이 너두도 많아
조선엔 산 사람이 있어야 한다 !

비록 이 시각은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제생명에 대해 맘대로 못한다
우리들은 운명을 인민에게 바치였거니
또한 인민이 그를 결정한다 !

누구든지 인민과 더불어 한대렬에 선 그 힘
그 힘을 옹바로 타산하라
누구든지 그 힘을 백배로 안으라
로씨야 10월혁명의 빛을 보라

누구든지 이 진리를 모르거든
이 말의 뜻을 모르거든
부대의 행진에 방해말라-
내려가서 죽으라 !

누가 내려가겠는가?-》
전사들은 대답이 없었다
《원하는 사람이 없는줄로 안다...》
별들은 새벽으로 흘렀다

산정에 아침해 얼어붙었을 때
빨찌산들은 바위를 넘어
아득한 절벽에서 내리어
배후공격으로 원썩을 죽였다

아직도 산마루엔
영원의 침묵이 흐르는 그곳엔

거꾸러진 채 얼음에 얼어붙은
왜놈들이 있으리라
누군들 말하지 않으랴
오늘도 침략에 날뛰는놈들이
그날의 그 절벽에 얼어붙은
왜놈들의 뒤를 안따르리라고

지금은 조선사람들이
간곳마다 전설을 이야기한다
그때의 싸움, 그때의 영예를 노래하는
백두산행군을 말하는 그 전설을

경모와 사랑으로 빚어진
그 많은 가지가지의 전설은
김일성장군의 대담한 정신을 말한다
강철같은 그의 모습을 전한다

4

지금은 장군이 어디 계신가?
오늘 맥아더는 이것을 알고저 한다
황둥개 미친듯 날뛰면서
이것을 알고저 한다

수령과 인민은 래일에
어떠한 공격으로 대답할것인가-
측면공격인가 정면공격인가
맥아더는 이것을 알고저 날뛰다

재더미된 도시에서 마을에서
우뢰소리 쇠소리 속에서
무엇이 일어설것인가
평양은 승리를 준비하고있거니

대통령의 고막이 터질 때까지
워싱턴은 승전고를 울리라 해라
아직은 아직은 이르다
총결짓기는 너무도 이르다

어떤자들은 자기를 침이 마르도록 찬미했다
그담엔 더러운 침을 질질 흘리었다
ulgami에 목을 매고
숨을 쉼덜거리면서

때문에 맥아더는 불안을 느낀다
그의 뒤를 따르는 알수 없는 두려움
저녁이면 백골인지 그림자인지
실새없이 눈앞을 지난다

마지막단풍도 타버리고
땅위에 바위에 서리내린다
오래지 않아 조선의 산골짜기에서
눈보라 울부짖으리라

바다도 흰 파도를 무겁게 뒤척이며
폭풍을 불러 높이 불러
어지런 연기를 피우고있는
맥아더의 함대에도 달려들리라

이 시각에 아득한 절벽사이로
눈보라속에서 추위를 무릅쓰고
서장으로 행군하리라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이 시각에 대만의 해변에선
높은 파도 절벽을 부시거니
광대한 중국이 우뢰를 들고
공격의 태세를 갖추리라

중국에서 남으로 나가면
백주에도 총탄이 날리며
바오다이의 파괴통상에
소리도 없이 박힌다

다시 남으로 더 나가면
매국노들의 등뒤를 겨누어
필리핀들이 제때에 사격한다
말라이들도 그에 지지 않는다

그리하여 맥아더는 미친듯 서들면서
군사지도를 찾는다
그러나 그 많은 지도들중에서
하나의 지도만은 찾지 못하리라

공격의 창끝을 옳바로 타산한 그 지도
그 지도를 맥아더는 못찾는다
그 지도는 **김일성**장군의 수중에 있거니
그 지도의 힘은 무서운것이다

그 신비로운 잠재력...
천번일격하는 그 시각...
짧은 명령서에 옮겨질
그 계획과 강철의 글은 무서운것이다

쉬임없이 전과를 받으며 보내며
무전수들은 밤낮을 잊었다

무너진 락엽은 누른 파도같이
전사들의 밤길을 휩싸는데

강점된 평양에서도
불붙는 산마루에서도
쏟아지는 총포탄에
양키들은 잘린듯 거꾸러진다

그들의 멸망은 가깝고
안주에서 도망칠 때도 되었다고
패망의 시각이 왔다고
틀림없는 징조들은 말하거니

불빛에 눈이 어두워진 승냥이같이
전차도 길을 잃고 더듬거리며
농민들도 간첩들을 잡아
인민군대에도 몰아오고

양덕맹산 어느 골짜기에선
빨찌산들의 수류탄에
《토벌대》들이 몰살하였다
어느덧 눈속에 매장되었다

맥아더는 창문앞에 지도를 놓고
눈에 심지를 켜고 점을 친다
태일은 무엇이 기다리느냐고
이 전쟁은 어떻게 끝나느냐고

집집에서 침략자들을
증오로 불사르는 전쟁
어둠속에서 원썬들
탄환으로 죽이는 전쟁
이런 전쟁에선 어느때든지
더 많은 폭탄예비가 있어야 한다

5

조선은 멀기도 하고
지평선은 포연에 잠기었다
그러나 두번의 전쟁은
김일성장군께서 어디 계심을 내게 말하였다

쓰팔린그라드의 격전이며
불타는 드네쁘르의 초원은 내게 말했다
그이는
머물러야 될곳에 계시리라!
그이는 자신이 계시야 될곳을
뉘보다 더 잘 아시리라!

하건만 전사들의 이야기를 믿을진대
철화속에서 생겨난 그 말을 듣건대
그이는 표식없는 보통군복을 입으시고
부대에도 여러번 나타나시었다네

친히 침착한 동작으로
모든것을 시찰하신다네-
무기는 제자리에 있는가
탄약은 넉넉한가

어느 중대에선
새벽 참호결을 지나시는
외투주머니에 손을 넣고 《아리랑》을 부르시는
그이를 보았다고 말하고

노래소리 비록 낮았건만
새벽바람이 전해주는 그 노래-
그 노래의 아름다운 두절만은
어느 병사인지 푹푹히 들었다네

이것은 평양에서 있었다는 일
동쪽에 솟는 아침해를 바라보시며
장군은 몸소 군대를 이끄시고
적진을 공격하셨다네

그 공격에 양키들은 추풍락엽이 되었는데
그이 하신 말씀-두고보자!
이것은 복수가 아니다
복수는 아직 앞에 있다-

포탄이 비오듯하는 원산에서
장군께선 포연속에 친히 나타나시여
용감한 병사에게 군공메달을 주시는것을
제눈으로 보았다는 전사도 있고

함흥에서 파편에 상처받으시고서도
탄환에 불탄 련대기를 손수 드시고
육박전에 나가셨다는 이야기도 있고

남포 어느 격전에선
그이를 본 사람도 많다 하며
그이는 밤마다 체일선에 나타나
초소들을 모두 시찰한다 하시며

그이와 빨찌산 두사람이 동행하는데
그들은 먼 지난날에
백두산 눈속에서, 얼음속에서
전설의 행군을 함께 한 전우이라네

장군께서 어디에 가시고
어디엔 안가셨는지
전진속에서 불길속에서
어떻게 걸으셨는지 나는 모른다

병사들의 신성한 전설에서
어느것이 실화인지
어느것이 풍설인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나는 잘 알고있다-
폭격속에서 포연속에서
장군은 새힘을 준비하신다
양키참모부의 귀들은 예상도 못하는...

나는 잘 알고있다-
장군은 모든 맥아더들의 예산을 깨뜨리며
오래지 않아 평양으로부터
남으로 사단들을 보내리라

나는 잘 알고있다-
다시 양키들은 수원으로 도망치리라
수치의 기발-유엔의 기발은
신작로 개울창에 처박히리라

놈들에겐 태양도 검게 보이고
눈우의 피도 불길로 보이리라
인천바다로 물려들어
대구에서 거꾸러져 무덤을 찾으리라

이 전쟁에 참가하려고
마지막으로 북 울리며 온놈들은
모두다 부산의 푸른 바다속에
돌맹이같이 떨어지리라

눈물과 고통을 잊어버리고
최전선전역에 걸쳐
바다로부터 바다에 산으로부터 산에
김일성 장군 만세소리 높아진다

불타는 모든 심장들을 걸쳐
전승의 높은 신념을 울리며
조선의 남북에 걸쳐
김일성 장군 만세소리 높아진다

잠도 없이 교대도 없이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장군은 명철한 지혜를 펴시고
강철의 의지를 버르신다

폭격소리에 강산이 뒤울리며
땅크들이 육박전에 내닫는 전선에서-
3천리를 굽어살피시며
령장은 걸으신다

모든것을 들으시며 보시며
모든것을 알으시며
오직 하나의 목적을 가르치신다
사단과 군단만이 아닌
3천만을 결전으로 불러일으키신다

폭격에 무너지고 불탄 조선에
아직은 명절이 오지 않았건만
전쟁의 어려운 이 시각에도
령장은 벌써 승리를 내다보셨다
나의 심장은 이렇게 말한다-

1950. 11

주 해

서사시 《**김일성** 장군》은 소련시인 엔. 그리바초브가 1950년에 창작발표한 작품이다.

시인은 1949년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접견을 받았으며 그때 받은 깊은 감동과 뜨거운 흠모의 감정을 서사시에 그대로 생동하게 반영하였다.

엔. 그리바초브는 현재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며 소련 사회주의로력영웅이며 로련 최고소베트대의원으로 활동하고있는 오랜 시인이다.

이 서사시는 혁명시인 조기천이 번역하였으며 이미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시기에 우리 나라 여러 출판물들에 발표된것을 오늘 조국해방 40돐을 맞으며 다시 편집한다.

주체의 해발아래 찬연히 꽃피여온 해방후 희곡문학

강 진

영광스러운 항일혁명연극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 받은 우리의 희곡문학은 해방후 창조와 혁신으로 수놓아진 새시대와 함께 자랑찬 로정을 걸어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적문제사상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독창적문제이론의 향도밑에 해방후 우리의 희곡문학은 혁명발전의 매단계마다에서 제기되는 시대적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제때에 민감하게 반영함으로써 내용에서 가장 혁명적일뿐아니라 형식에서도 가장 혁신적인 새로운 희곡문학으로 찬란히 개화발전하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의 특징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높은 사상예술성에 있습니다.》

모든 문학예술이 그러한바와 같이 희곡문학도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옳게 반영하고 그에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줄 때만이 높은 사상예술성을 가질수 있다. 해방후 우리 희곡문학이 걸어온 자랑찬 력사적로정이 이를 잘 실증해주고있다.

지난 40년동안 우리 희곡문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인 문예로선과 당의 독창적인 문예방침에 따라 온갖 반동적인 부르조아문예사상조류와 반사실주의적요소와의 치렬한 투쟁속에서 시종일관 혁명과 건설이 제기하는 절박하고 의의있는 사회적문제들을 제때에 예리하게 반영하고 심오하게 천명함으로써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빛나게 구현해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초기부터 문화인들은 문학예술이 철두철미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능동적으로 반영하고 절박한 시대적 문제들을 새로운 성격형상을 통하여 깊이있게 구현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해방후 희곡문학은 바로 이 강령적교시를 관철구현하는 길에서 우리 시대 인간들의 극적성격을 새롭게 창조해왔으며 예술적갈등의 새로운 특질을 참신하게 구현하고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작품들을 창조해왔다.

그리하여 주체의 해발아래 찬연히 꽃피여온 해방후 희곡문학은 그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도 있어보지 못한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였고 지난 시기의 그 어떤 희곡문학파도 구별되는 새로운 사상예술적특성을 가지게 되었다.

×

해방후 우리 극작가들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혁명적가정을 직접 형

상한 희곡창작에 온갖 창작적심혈을 기울여왔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에 우리 시대의 영광에 찬 력사적로정과 조선인민의 지향이 가장 숭고하게 반영되어있고 자주성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뿌리와 그 진수가 빛나게 구현되어있기때문이다.

이로부터 민주건설시기에 벌써 우리 극작가들은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오시며 광복의 새봄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흠모의 정을 안고 조기천의 서사시에 기초하여 《백두산》(한태천 각색)을 창작하였으며 전후시기에 들어와서 장막희곡 《조국산천에 안개 개인다》(리준순 작)와 《우리 어머니》(리동춘 작)를 창작한데 뒤이어 집체작으로 된 《푸른 소나무》, 《위대한 어머니》 등의 장막희곡들을 창작함으로써 수령형상창조에서 귀중한 경험을 쌓게 되었다.

《푸른 소나무》, 《우리 어머니》, 《위대한 어머니》 등의 장막희곡들에서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으로의 방향전환의 위대한 선구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의 빛나는 형상과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이시며 열렬한 공산주의혁명투사이신 강반석녀사의 숭고한 형상을 빛나게 창조하였다.

그리고 《조국산천에 안개 개인다》와 《백두산》 등은 력사적인 보천보전투를 전후한 1930년대 후반기에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의 새로운 양상을 정확히 령도해오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품모와 주체적인 혁명로선, 탁월한 전략전술의 생활력을 감동적으로 형상하고 있다.

작품들은 한결같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로정을 력사-년대기식으로 반영하는데 그치지 않고 위대한 령도자,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품모를 감동적으로 형상하고있다.

또한 이 작품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품모를 그 어떤 론리적인 설명으로가 아니라 주체사상의 해발아래 혁명적세계관을 끊임없이 세워나가고있는 각이한 인물들과의 다양한 극적관계속에서 형상하고있다.

단적으로 《조국산천에 안개 개인다》에서 사령관동지의 위대한 품모는 박성룡일가와 문영부부를 비롯한 유격대원들과의 다각적인 인간관계를 통하여 극적으로 형상되고있다.

레장감을 마련할 돈이 없어 잔치를 못하고있는 사정까지 헤아리시여 남몰래 비단옷감을 보내주신 장군님의 위대한 사랑속에서 혁명투사로 자라나는

박성룡의 성장과정이 이를 잘 말해주고있다.

유격대에 입대하기 위하여 밀영에 찾아온 박성룡이 장군님이신줄 모르고 장군님과 흉금을 털어 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과 총가목을 부러뜨려서 제재를 받게 된 성룡이를 따듯이 타이르시고 밤을 밝혀가며 친히 총가목을 고쳐주시는 장면, 대원들과 허물없이 엿을 함께 나누시는 장면 등은 인민적 수령으로서의 장군님의 위대한 인간품모를 잘 보여주고있다.

해방후 우리의 회곡문학은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형상을 창조하는데서 귀중한 경험을 쌓았을뿐아니라 혁명전통주제의 작품창작을 통하여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항일혁명투사들의 다양한 성격을 형상함으로써 지난 시기의 극적성격과는 전혀 다른 우리 시대 혁명가들의 새로운 극적성격을 창조하였다.

인류의 회곡문학발전사는 자기 시대를 대표하는 인상깊은 극적성격들을 수없이 창조해왔다. 사실에 있어서 해당시대의 회곡문학은 그가 어떤 극적성격을 창조하였는가에 따라 그 질적특성이 규정된다.

왜냐 하면 그 시대를 대표하는 극적성격이란 당대의 사회계급적모순과 시대적리상을 가장 극적으로 체현하고있는 인물들이기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시기의 회곡문학에 등장한 극적성격들은 대부분 당대의 지배계급이나 사회악에 의하여 희생당하는 수난자들이었거나 비극적운명의 수동적인 체현자들이었다. 이들이 체현하고있는 극적성격의 본질은 흔히 개인적운명의 좁은 울타리속에서 침울하게 고민하거나 부정이 강요하는 난관앞에서 몸부림치며 모래기다가 끝내 파국적인 운명의 나락속에 굴러떨어지고야마는 넓고 진부한 극이었다.

그러나 해방후 우리 회곡문학에 등장한 혁명투사들은 이러한 개인적운명의 비극을 수동적으로 체현한 인물이 아니라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능동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인물들로서 걸음마다 원수들을 타승해나가는 과정에 발현되는 다양한 극성의 체현자들이다. 물론 이들이 개척해나가는 운명의 앞길에도 원수놈들의 간악한 책동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우여곡절이 가로놓이게 된다. 하지만 이들은 탁월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고있음으로 하여 그 어떤 애로와 난관도, 우여곡절도 능동적으로 타개해나간다. 따라서 이들의 극적성격의 본질은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핵으로 하는 능동적인 극성의 체현자라는데 있다.

이에 있어서 대표적인 작품은 장막희곡 《해발》, (전병설, 리성준)이다.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높이 받들고 원수들이 살판치는 삼엄한 정황속에서 희생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군중들을 묶어세우며 조선인민혁명군의 조국진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 충성의 귀감으로 되는 녀성혁명가

의 빛나는 형상을 창조하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새로운 특질은 평화적민주건설시기에 창작된 장막희곡 《태양을 기다리는 사람들》(박령보 작)의 주인공 신병옥의 형상에서도 찾아보게 된다. 그는 적기관에 들어가 지하공작을 받으면서 혁명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었지만 그 난관들을 능동적으로 타개하고 남상근일가를 비롯한 인민들을 각성시켜 장군님께서 친솔하신 항일유격대의 성시진공을 성과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태양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절절한 념원을 풀어주고야 만다. 이러한 능동적인 극성을 체현하고있는 우리 시대 혁명가들의 새로운 극적성격은 장막희곡 《불사조》(송영 작)에서는 원수들의 불길속에서도 타지 않고 흑한과 기아와 병마가 엄습하는 100일간의 간고한 시련속에서도 죽지 않는 리두성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강요한 의지로 전형화 되었으며 장막희곡 《조선의 어머니》(박혁 작)에서는 남편을 혁명에 바치고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자식들을 자라는데로 장군님의 전사로 떠나보내고 자신도 용약 투쟁의 길에 나서는 한씨의 형상을 통하여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충성심을 감동적으로 보여주었고 장막희곡 《조국의 아들》(박혁 작)에서는 주인공 마동희가 허를 끊고 원수놈들을 전률케 한 불굴의 형상을 통하여 죽음도 투쟁으로 전환시키는 강요한 정신의 위력을 감명깊게 보여주었고있다.

이와 같은 성격적특질은 편속편 장막희곡들인 《해바라기》(박령보 작)와 《태양의 딸》(박령보 작)에서 더욱 원숙하게 구현되었다.

이 작품들은 주인공 김순실이 공산주의자의 진실하고도 강요한 혁명적신념으로 준엄한 역경을 순경으로 능동적으로 전환시켜나가는 감동적인 형상을 창조하고있다.

이와 같이 해방후 회곡문학은 지난 시기의 회곡작품들에서 볼수 있는 비극적운명의 수동적인 체현자와는 달리 자기 운명의 능동적인 개척자들을 다양하게 형상함으로써 자주적인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생동하게 체현한 우리 시대 인간들의 새로운 극적성격을 수없이 창조하여왔다.

우리의 회곡문학은 다음으로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해방초기부터 세기적변혁으로 충만된 현실발전의 심각한 내부과정에 깊이 침투하여 그속에서 시대가 제기하는 새롭고 의의있는 사회적 문제들을 적극 탐구하는 과정에 예술적갈등의 새로운 특질을 다양하게 구현해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적대적인 사회관계를 반영하는 예술적갈등은 처음부터 첨예하고 극단적으로 조성되며 결렬하는데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근로자들의 생활을 취급한 작품에서의 예술적갈등은 적대적성격을 띠지 않

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갈등의 내용과 그 형태는 작품의 종자와 반영하는 생활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규정되는것이므로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다 일관된 갈등선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말할수는 없습니다.》

지난 시기의 회곡문학에서는 낡은 사회의 적대적 모순을 반영한 공부정인물들간의 첨예한 갈등을 일관하게 끌고가다가 결렬하는데로 나가게 하는것을 기본으로 하고있었다.

그러나 우리 극작가들은 해방후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에서 끊임없이 심화발전되는 혁명투쟁의 내용에 따라 서로 다른 예술적갈등을 다양하게 구현해왔다. 그것은 사회적모순의 성격과 혁명발전 단계에 따르는 모순의 변화, 투쟁형식과 방법의 차이로 하여 예술적갈등이 다양하게 표현되어야 하였기때문이다.

력사적인 민주개혁을 반영한 장막회곡들인 《성장》(백문화 작)과 《자매》(송영 작)만 보아도 다 같이 전복된 착취계급과 새생활의 참된 주인공들간의 적대적갈등을 취급하고있으면서도 그로부터 파생되는 낡은 룰리도덕권과의 갈등을 각이하게 배합하고있다.

《성장》에서는 지주계급과의 첨예한 갈등속에서 땅의 주인이 된 농민들의 성장과정을 보여주면서 새형의 농촌치녀 금순이가 약혼자인 건달군 만섭을 능동적으로 교양하려고 노력하다가 계급적원썹들의 마수에 걸려든것을 알게 되자 약혼파기를 단호하게 선언하는 갈등선을 특색있게 배합함으로써 새로운 애정룰리문제를 동시에 천명하고있다.

이와는 좀 달리 《자매》는 반혁명분자들과의 치렬한 계급투쟁속에서 진행되고있는 민주건설의 본질적과정을 반영하면서 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매간의 비적대적갈등을 내적으로 심화함으로써 창조적로동속에서 새 인간이 자라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있다. 특히 이 회곡은 자매간의 갈등선을 결렬에로 끌어가지 않고 로동에서 유리되어 날로 부패타락해가던 언니 경옥이가 창조적로동속에서 모범로동자로, 최고인민회의대의원으로 성장하는 동생 정옥이의 적극적인 영향밑에 개조되는것으로 해결한 결과로 새 인간의 성장문제를 더욱 깊이있게 밝혀내게 되었다.

예술적갈등의 이러한 형상적특질은 전후시기에 창작된 회곡작품들에서 더욱 심화발전되었다.

전후 첫시기에 창작된 장막회곡 《새길》(리동춘 작)은 개인리기주의적인 사상잔재를 가진 농민들과의 비적대적갈등속에서 그들이 교양개조되는 과정을 통하여 협동화의 새길을 밝혀주었고 장막회곡 《그립던곳에서》(류기홍 작)는 복구건설의 속도와 질제고문제를 보수와 혁신간의 갈등관계속에서 심화하면서 새로운 기술적창안이 소극성과 보수

주의가 극복되는 과정에 성공되는것으로 형상하였다. 그 이후시기에 창작된 장막회곡 《위대한 힘》(리동춘 작)은 또한 사대주의, 기술신비주의 등 낡은 사상 잔재와의 갈등속에서 용광로의 심장인 송풍기를 자력으로 복구한 로동계급의 위훈을 통하여 당성 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파악이상의 과학》을 낳게 하는 위대한 힘의 원천이라는것을 감명깊게 천명하였다. 이러한 창조적성과에 기초하여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하는 회곡작품에서 구현될 예술적 갈등의 새로운 특질이 전면적으로 새롭게 밝혀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긍정이 지배적이고 동지적협조와 단결이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있는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한 예술적갈등은 부정이 지배적이고 적대적대립과 투쟁이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있던 과거의 계급사회현실을 반영한 예술적갈등과 전혀 다른 새로운 특질을 가지지 않을수 없다.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이후에는 근로자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와의 투쟁이 기본으로 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상적결합은 전진도상에 있을수 있는 결합이며 능히 극복될수 있는 결합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한 예술적갈등은 극단적으로 조성되거나 결렬에로 나가는것으로 되어서는 안되며 부정이 극복되고 동지적단결이 더욱 강화되는것으로써 해결되어야 한다. 바로 이와 같이 대결과 결렬이 아니라 협조와 단결을 강화하는데 능동적으로 복무하는 전진도상의 갈등이라는데 우리 회곡문학의 예술적갈등이 지난 시기의 갈등과 구별되는 새로운 특질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처럼 예술적갈등의 새로운 특질을 밝히신데 기초하여 우리 사회에서 부정을 반대하는 투쟁은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것이 아니라 사람자체를 반대하는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시면서 긍정감화를 기본으로 하는 갈등의 새로운 형상원칙을 제시해주시였다. 이 독창적인 형상원칙은 천리마기수들의 전형을 더 많이 창조할데 대한 아버지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관철하는 길에서 더욱 빛나게 구현되었다.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붉은 선동원》과 《아침노을》(박령보 작), 경희극 《산울림》(리동춘 작)과 《우리는 행복해요》(한도수 작) 등의 장막회곡들을 들수 있다.

《붉은 선동원》에서는 복선, 관필, 진오 등 세 부정인물이 긍정적주인공 리선자에 의하여 부단히 감화개조되는 연속적인 과정으로 갈등이 설정되고 해결되고있다.

다시말하여 리선자가 복선이를 개조하고 뒤이어 관필이와 그의 아버지 진오를 개조하는 연속적인 감화과정에, 개조된 복선이가 선자를 도와 관필이를 개조하는데 참가하며 개조된 두사람이 다 같이 진오를 개조하는데 합류하는것으로 형상됨으로써

인간개조사업이 군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된 당시의 현실을 방불하게 반영하고있다. 이것은 갈등대상인물들을 일률적으로 극의 종말까지 일관하게 끌고가서 처리하던 지난 시기의 갈등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특징이다.

이와는 달리 《아침노을》에서는 사람들의 행복한 미래를 내다보며 당정책을 이악하게 관철해나가는 주인공 정실이의 진취적인 사상과 젊은 세대들을 믿지 못하고 목전의 과업수행에만 급급한 작업반장 정식의 주관주의사상간의 갈등이 연속적인 얹힘새로 설정되고있다. 말하자면 《붉은 선동원》의 갈등은 세 부정인물의 연속적인 개조과정으로 특징지어진다면 《아침노을》의 갈등은 한 인물속에 체현되고있는 낡은 주관주의적사상요소들을 하나씩 연속적으로 극복해나가는것으로 특징적이다.

《산울림》은 이 두 작품과는 또 다른 경희극적 갈등형태를 띠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일찌기 연극영화대학 학생들이 창조한 이 경희극을 지도하시면서 이 작품에 설정된 갈등의 형상적특질에 대하여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경희극 《산울림》은 긍정적주인공 석철이와 희극적주인공 송재간의 갈등을 시종일관 웃음속에 락천적으로 끌고가면서 진보와 보수와의 대조를 선명히 주고 이미 거둔 성과에 자만자족하고 담보하려는 부정적현상을 비판하는 동시에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혁명사상으로 부정을 감화교양하고있는데 그 특징이 있다. 특히 이 작품은 경희극에서 갈등의 주도권을 희극적주인공이 쥐고있어야 웃음을 자아낼수 있다는 기존리론을 타파하고 긍정적주인공 석철이가 갈등의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범바위산개간을 밀고나가도록 극을 발전시키는 과정에 시종일관 생활긍정적이며 락천적인 웃음을 고조시켜나감으로써 경희극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이상의 작품들에서 예술적갈등은 다같이 사회주의현실의 본질적특성에 맞게 외적인 격렬성을 띠지 않고있으며 《대립과 투쟁》이 동시에 《협조와 단결》의 과정으로 되게 하고있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부정인물들이 《아침노을》의 작업반장이나 《산울림》의 송재와 같이 동요하고 투덜거리기는 하면서도 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때문이며 우리 시대의 긍정인물들 역시 《붉은 선동원》의 리선자나 《우리는 행복해요》의 길학심처럼 부정과의 투쟁에서 승부를 겨루고 갈라지는것이 아니라 부정을 교양개조하여 함께 이끌고가는데 그 성격적본질이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시기 갈등을 어 느 일방이 다른 상대방을 타승하고 우위에 올라서려고 지향하는 행동과정이라고 보았다면 우리의 희곡문학에서는 《우위에 선다》고 하는 그 의미자체가 달라진데 본질적차이가 있다. 즉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한 우리의 희곡문학에서는 예술적갈등이 상대방을 물리치고 우위에 올라서려는것이 아니라 상대

방을 자신의 위치에까지 끌어올려 다같이 전진할것을 지향하고있는데 그 본질적특성이 있다.

해방후 우리 희곡문학은 다음으로 무한히 다양하고 풍부한 현실생활의 요구에 맞게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작품들을 창작하여 시대가 제기하는 절박한 문제들을 다각적으로 반영하고있는데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이 있다.

우리 극작가들은 민주건설시기에 벌써 미제침략자들과 남조선피뢰도당의 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인민무력강화의 필요성과 의의, 그 위력의 원천 등을 밝힌 희곡들을 창작하였는바 장막희곡 《은파산》(류기홍 작)은 중요한 실례로 된다.

또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종군작가들이 창작한 《명령은 하나밖에 받지 않았다》, 《고지의 별들》, 《어머니와 경찰병》을 비롯한 수많은 단막희곡들은 우리 인민의 불패성과 인민군대의 대중적영웅주의를 다양한 극적화폭속에 형상하였다. 전후시기에 창작된 장막희곡 《우리를 기다리라》(한성작)는 이 주제를 더욱 심화발전시켜왔고 장막희곡 《생명을 위하여》(김재호 작)는 엄혹한 전쟁환경속에서도 생명을 다루는 군의일군들은 단순히 상처나 병을 응급치료하는데 그칠것이 아니라 전사들이 당과 혁명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하고 사회정치적생명을 빛내일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장막희곡 《첫 땅크병》(리성준 작)은 우리 나라 첫땅크부대가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감명깊게 천명하였다.

남반부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과 조국통일의 리념을 반영한 희곡창작에서도 시대정신은 다양한 화폭속에 구현되었다.

전후에 창작된 장막희곡 《다시는 그렇게 살수 없다》(리종순, 최건 작)는 전쟁전 리승만피괴통치시기와 전후시기에 걸친 신헌방지구 농민들의 대조적인 생활체험을 통하여 다시는 빼앗길수 없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천명하였다면 장막희곡 《분계선마을에서》(리지용 작)는 우리 당 군중로선의 생활력을 과시하면서 신헌방지구인민들의 절절한 조국통일념원을 심각한 계급투쟁속에서 반영하였다.

이밖에 전후시기 반간첩투쟁의 전군중적의의를 천명한 장막희곡 《인민의 이름으로》(김재훈, 권준원 작)와 전쟁고아들에 대한 사회적관심성문제로 제기한 중막희곡 《강물은 흐른다》(리지용 작) 그리고 조중친선의 력사적근원을 밝힌 장막희곡 《우리는 언제나 함께 싸웠다》(리서영 작) 등 참으로 다양한 주제분야에 걸쳐 의의있는 시대적문제를 제기하고 극적으로 천명해왔다.

그리하여 해방후 희곡문학은 시대의 벽찬 진군길 위에 자랑찬 자욱을 남기면서 그 정치사상성을 부단히 높여왔으며 새로운 혁명적전환기를 맞이할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우리의 희곡문학은 이처럼 그 사상적내용에서는

그 어느 시대의 문학예술과도 대비가 안될만큼 우월하였지만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혁명적현실과 인민들의 사상미학적기호에 맞는 참신하고도 독창적인 형식을 새롭게 탐구함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지 못하고있었다.

따라서 희곡을 사상예술적기초로 하여 창조되는 연극자체의 형식과 형상체계에서도 혁신이 일어날 수가 없었던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러한 실태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연극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독창적인 구상을 안으시고 1960년대부터 희곡문학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었다.

그것은 온갖 낡은 형식의 연극을 반대하고 새로운 혁명연극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그 첫공정으로 되는 희곡창작으로부터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켜야 하는 사정과 관련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바로 이 역사적과제를 풀기 위하여 장막희곡 《산울림》에 대한 지도과정에 웃음도 있고 투쟁도 있는 우리의 현실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생동하게 형상할데 대한 원칙을 제시하시고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작품들을 친히 지도해주시었다. 인민군대의 적후투쟁을 반영한 장막극 《적후중대》(김재호 작)와 풍자극 《보충병》, 경희극 《보람찬 우리 생활》과 덕성주제의 단막극 《한 전령병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다양한 형식과 양상을 가진 수많은 작품들에 대한 형상지도과정이 이를 잘 실증해주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 과정에 우리 식 희곡문학의 사상예술적특성을 새롭게 밝혀주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친필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에 그 고전적본보기를 찾고 그것을 오늘의 현대적인 무대조건에 맞게 옮길데 대한 방도를 명시해주시었다.

그 고귀한 결실로 1970년대에 이르러 불후의 고전적명작 《성황당》이 현대화된 무대에 옮겨짐으로써 연극혁명의 역사적업일이 빛나게 수행되고 새로운 《성황당》식 혁명연극의 탄생과 함께 그 사상미학적기초를 이루는 새로운 형식의 희곡문학이 찬연한 빛을 뿌리게 되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성황당》은 그 내용에서 종교와 미신의 허위성과 반동성을 폭로하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고취하고있을뿐아니라 그 형식에서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고 정서도 있는 새로운 혁명적풍자희곡의 본보기로 되었다. 이 명작이 창조된데 뒤이어 조국해방전쟁시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탁월한 군사전략사상과 원대한 품모를 다면적으로 형상한 장막희곡 《승리의 기치 따라》(집체 작)가 《성황당》식 혁명연극의 창조원칙에 근거한 새로운 형식의 희곡으로 재창조되었으며 귀국동포에게 베풀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고매한 덕성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반영한 중막 희곡 《행복》(리동춘 작)을 비롯한 많은 현실주제단 막

희곡들이 창작되어 《성황당》식 혁명연극의 창조원칙에 근거한 새로운 형식의 희곡문학의 사상예술적특성을 더욱 공고화하게 되었다.

그뿐아니라 1980년대에 이르러 또다시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헤그밀사사건》을 내용으로 하여 민족자주의식을 구현한 불후의 고전적명작 《혈분만국회》를 당의 지도밑에 훌륭히 각색함으로써 새로운 희곡문학의 혁신적특성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키게 되었다.

이 명작은 역사주의적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빛나게 구현한 새로운 역사적주제의 극작품으로서 세계연극계에 내놓고 당당히 자랑할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의 시대적요구에 맞는 새로운 혁명연극들이 련이어 창조된 결과 세계적으로 진통기를 겪고있던 연극예술은 우리 나라에서 새로운 부흥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시기의 희곡문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황당》식 혁명연극의 창조원칙에 근거한 새로운 희곡문학의 본보기를 가지게 됨으로써 우리의 희곡문학은 역사상 류례없는 혁명적전환기를 맞이하여 자체의 면모를 끊임없이 혁신하면서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하게 되었다. 그 과정은 전적으로 새로운 희곡문학의 혁신적특성을 공고발전시키고 전면적으로 꽃피워나가는 로정으로 일관된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희곡문학발전을 확고히 담보해주고있는 《성황당》식 혁명연극의 창조원칙에 립각한 새로운 희곡문학의 혁신적특성은 어데 있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먼저 그 내용에 있어서 공산주의 인간학의 근본요구를 가장 철저히 반영한 주체시대의 혁명적인 시대극의 문학적기초로 된다는데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성황당》식 혁명연극이 혁명하는 시대, 투쟁하는 현시대를 진실하게 반영한 혁명적인 시대극이라는것을 규정해주시면서 거기에 등장할 인간성격들과 생활의 본질을 명철하게 밝히시었다.

《성황당》식 혁명연극의 이러한 기본특성은 그대로 그 문학적기초로 되는 새로운 희곡문학의 혁신적특성으로 된다.

이 특성은 공산주의인간학의 근본요구인 반영한 것으로서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오늘의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진실하게 반영할 때만이 옳게 구현될수 있다. 즉 혁명적인 시대극의 본질을 체현하고있는 이 희곡문학은 자주성의 시대, 현시대의 시대정신을 자주적인 인간전형을 통하여 심오하게 극적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자주적인 시대정신을 생동하게 체현하고있는 인간전형들이 등장하여야 하며 현시대가 제기하는 가장 절박하고 의의있는 문제들이 극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황당》식 혁명

연극 창조원칙에 근거한 새로운 형식의 희곡문학은 그것이 비록 이미 역사적과거로 된 생활을 반영하는 경우에도 그속에서 현시대의 시대적요구를 옹계 구현함으로써 연극을 우리 시대의 참다운 시대극으로 되게 하는것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성황당》만 보아도 비록 1920년대의 우리 나라 농촌현실을 반영하고있지만 미신의 율가미에 걸려든 박씨일가와 그를 강요하는 착취계급들과 잡귀신들의 풍자적형상을 통하여 단순한 미신타파의 주제만을 추구하지 않고 주인공 돌쇠를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슬기로운 형상을 통하여 《없는 귀신을 믿을것이 아니라 제함을 믿어야 한다》는 자주적인 시대정신을 생동하게 천명하고있음으로 하여 참다운 시대극의 본보기로 되었다.

혁명적인 장막희곡 《혈분만국회》도 일제강점 초기의 우리 나라 현실을 반영하고있지만 애국지사 리준의 비극적운명을 통하여 《만국평화회의》도 조선의 독립을 선사해주지 않으며 오직 민족자주의식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는 자주적 진리를 깊이있게 밝힘으로써 주체시대의 참다운 시대극으로 되었다. 그리하여 이 명작들은 서로 다른 역사적시기를 통하여 각이한 주제사상을 밝히고있으나 다 같이 현시대의 가장 절박한 문제인 인간의 자주성과 나라의 자주성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시대극의 고전적 본보기로 되고있다. 새로운 희곡문학이 이처럼 시대극의 요구와 인간학적원리에 맞게 자주성에 대한 문제를 극적으로 깊이있게 천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활속에서 극을 안고있는 종자를 찾고 그것을 극적굴곡으로 가득찬 주인공의 운명선을 통하여 매력있는 형상의 꽃으로 피어나게 하여야 한다. 원래 희곡작품에 새롭고 의의있는 종자를 심자면 종자를 안고있는 운명적인 인물과 의의있는 인간관계를 발견하고 그속에서 참신한 극을 탐구해야 하며 그 종자가 매력있는 꽃으로 피어나 게 하자면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극적인 생활바탕을 마련하고 축적해나가야 한다. 이로부터 이 새로운 희곡문학은 종자를 안고있는 인간들의 극적관계를 굴곡있게 부단히 심화발전시킴으로써 매 장면에 극이 있도록 할것을 요구하며 그것을 자주적인 새 인간성격창조에 철저히 복종시킬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주인공 돌쇠를 중심으로 맺어진 다양한 극적관계속에서 《성황당》의 종자가 꽃피어나고있는 과정과 인물마다 심오한 극을 체현하고 장면마다 극으로 충만된 《혈분만국회》에서 종자가 꽃피어나고 있는 과정이 잘 실증해주고있다.

바로 이러한 인간학적원리에 기초한 시대극의 본질적특성을 새롭게 체현하고있음으로 하여 《성황당》식혁명연극의 창조원칙에 근거한 이 새로운 희

곡문학은 종래의 모든 희곡문학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것이다.

새로운 희곡문학의 혁신적특성은 다음으로 그 형상방식에서 산 인간들의 성격적인 대사를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형상수단들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인간생활을 립체적으로 반영한다는데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연극창작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연극에서 립체성을 보장하는것입니다.

우리는 관중이 극장에 오면 연극을 통하여 오늘날의 현실을 립체적으로 보게 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극에서 립체성을 보장한다는것은 그 어떤 무대장치물의 립체성이나 무대공간의 조형적립체성만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인간생활을 현실에서 보는 것처럼 전일적인 형상화폭으로 진실하게 반영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극의 립체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문학적기초로 되는 희곡작품에서부터 형상의 립체성을 확고히 담보할것이 요구된다. 그것은 우리들을 둘러싸고있는 생활환경자체가 립체적인 공간을 형성하고있을뿐아니라 우리가 서로 교제교감하는 인간들의 호상관계 역시 시공간적인 련관속에서 다각적으로 얹혀져있으며 사람들의 사상감과 심리정서세계도 또한 직선적으로 표면화되지 않고 웅심깊은 내면세계의 다면적개방을 통하여 표현되고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인간생활의 이러한 속성은 생활을 있는 그대로의 구체성과 생동성으로 진실하게 반영할것을 지향하는 새로운 형식의 희곡문학에서 형상의 립체성을 필연적으로 요구하지 않을수 없다. 그러나 종래의 낡은 극작법은 생활을 본색그대로 립체적으로 형상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를 전혀 밝혀주지 못하고있었다. 낡은 극작법에서는 오히려 연극의 무대적제한성을 불가피한것으로 단정하고 현실생활의 다양성과는 관계없이 몇개의 장면에다 생활을 억지로 몰아넣음으로써 도식과 류형으로 현실을 재단하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주체의 인간학적원리를 빛나게 구현하고있는 《성황당》식혁명연극의 창조원칙에 근거한 새로운 희곡문학은 불후의 고전적명작 《성황당》을 옮기는 과정에 이러한 낡은 극작법을 근본적으로 타파하고 생활을 현실에서와 같이 련속적인 흐름으로 보여주는 립체적인 다장면구성법을 새롭게 탐구한 결과로 력사상 처음으로 립체성의 형상구성원칙을 밝혀내였으며 《혈분만국회》의 각색과정을 통하여 그 형상적특질을 더욱 공고발전시키게 되었다. 이 두 작품은 다같이 인간생활을 기승전결의 사건

단락에 따라 류형화하는 4막극구성법을 깨뜨리고 현실생활자체의 요구대로 서장과 종장을 합해서 10여개장속에 다양한 생활화폭들을 연속적인 흐름으로 보여주도록 구성하였다. 사실상 이 작품들은 일부 장면들에서의 내부변화와 막흐름사이의 생활변화까지 고려한다면 더 많은 장면변화속에서 생활을 연속적으로 펼쳐보이고있는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다장면구성의 본질적요구는 그 장면수만 많이 늘이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설정된 장면들의 내부구조자체가 립체성을 띠도록 하는데 있다.

원래 희곡작품에서 장면수만 무원칙하게 늘여서 평면적으로 라렬하는것은 극구성을 서사화하는 편향으로서 《성황당》식다장면구성과는 하등의 인연도 없다.

《성황당》식혁명연극의 창조원칙에 근거한 새로운 희곡의 다장면구성은 어디까지나 극구성의 내용적기초로 되는 인물관계의 립체성에 토대하여 매 장면의 생활을 립체적으로 형상할것을 전제로 하며 장면호상간의 련계 또한 립체성을 띠도록 할것을 요구한다. 이 희곡문학은 매 장면의 극을 립체적으로 그려내기 위하여 인간성격의 본질과 사건의 깊은 내용을 다양한 시점에서 분석적으로 그리며 한 장면의 생활속에 과거와 미래의 생활이 굴절되게 하고 하나의 세부를 통하여 인간과 생활의 전모를 그려보게 할것을 요구한다. 뿐만아니라 설정된 모든 장면들이 강렬한 극성에 기초하여 호상 립체적으로 맞물려서 끊임없는 상승발전속에서 련관되도록 구성함으로써 작품전반의 형상구성체계에서도 립체성을 완벽하게 구현할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매 장면들은 구성의 한고리로 되어 극을 이어받고 떠밀어주면서 서로 련관되고 립체적으로 짜여있을 때만이 장면구성의 립체성을 살려낼수 있기때문이다. 바로 불후의 고전적명작 《성황당》과 《혈분만국회》에서 그 많은 장면들의 련쇄과정이 이러한 립체적인 다장면구성의 형상원칙을 빛나게 구현하고있다.

《성황당》식혁명연극의 창조원칙에 근거한 희곡문학은 또한 형상의 립체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극구성에서뿐만아니라 극조직에서 인간들의 내면세계를 다면적으로 심오하게 개방할수 있도록 감정조직을 잘할때 대한 독창적인 형상원칙을 탐구하고있다. 극조직에서 감정조직을 기본으로 할때 대한 형상원칙은 종래의 희곡문학에서 외형적인 사건진행과정을 평면적으로 추구하던 편향을 극복하고 인간들의 사상감정세계에 깊이 침투하여 그들의 내면세계를 여러모로 개방할수 있게 하는 인간 중심의 극조직원칙이다. 《성황당》식혁명연극의 창조원칙에 립각한 희곡문학에서는 이 독창적인 형상원칙

이 탐구됨으로써 인간내면세계의 다면적 개방으로 형상의 립체성을 더욱 깊이있게 담보하게 되었다.

이 희곡문학은 또한 산 인간의 성격적인 대사를 기본으로 하여 방창가사와 설화 등 다양한 형상수단들을 새롭게 도입한 결과에 형상의 립체성을 더욱더 풍만하게 담보하고있다.

《성황당》식혁명연극의 창조원칙에 립각한 희곡문학은 대사를 기본형상수단으로 하는것만큼 성격적이며 생활적인 명대사를 찾아쓰는 동시에 인간들의 내면세계를 여러모로 드러내도록 속대사와 뒤대사들을 다양하게 탐구해줄것을 요구하며 서정적 묘사방식에 속하는 방창가사 등을 희곡의 특성에 맞게 새롭게 도입하고 서사적묘사방식에 속하는 설화도 다양하게 활용할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지난 시기 대사와 행동으로만 사건을 메마르게 엮어오던 연극의 낡은 틀을 깨뜨리게 하였으며 등 장인물들의 깊은 내면세계와 다양한 정서세계를 풍부하게 개방할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형상수단들은 아무런 내적통일성도 없이 기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대사를 기본형상수단으로 하는 희곡의 형태상특성을 옹계 살리는 방향에서 유기적으로 통일되어있으며 극적묘사방식의 요구에 맞게 활용되고있다.

가사를 희곡의 형태적특성에 맞게 살려 쓴 좋은 실례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성황당》의 주제가 《돌쇠의 노래》와 복순이네 모녀의 기구한 운명선에 바쳐진 방창가사들, 그리고 《혈분만국회》의 주제가 《조선아 말해다오》와 《리별가》의 가사 등에서 찾아볼수 있다. 이 가사들은 극발전의 가장 중요한 계기들을 포착하여 주인공들의 다양한 감정세계를 서정적으로 개방함으로써 희곡의 정서를 더욱 풍부하게 살리고있다.

새로운 희곡문학에 도입되고있는 설화 또한 다양한 형상적기능을 놓고있다.

《혈분만국회》만 보아도 서장에 주어진 설화는 망국의 비운이 드리운 당시 우리 나라의 시대상을 형상적으로 부각하고있으며, 국권을 찾기 위해 남몰래 이역만리길을 떠나는 장면에 주어진 설화는 주인공의 로정을 시공간적으로 비약시키고있을뿐 아니라 정다운 사람들의 뜨거운 사랑도, 아늑한 보금자리도 뒤에 남긴채 떠나는 주인공의 비분강개한 내면세계를 잘 부각해주고있다. 이와는 좀 달리 주인공이 비통하게 자결한 다음 종장으로 넘어가면서 주어진 설화는 력사적과거로 흘러간 《어제》의 교훈속에서 《오늘》의 시대정신을 정서적으로 반증하고있음으로 하여 작품이 제기하고 있는 사상의 철학적심오성을 더욱 부각해주고있다. 이 모든 설화들은 종래의 희곡작품에서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설명하고 해설해주던 지문과도 근본적으로 다르며 움직이는 생활화폭과 함께 주어지는 영화의 설화와도 같지 않다. 이 설화들 역시 극적묘사방식의 요구에 맞게 충분한 감정축적을 걸쳐 고도로 양양된 생활계기들에 도입되고 있으며 등장인물들의 행동세계와 밀착되면서 강렬한 극성을 촉발해주고있는 것으로 특징적이다.

《성황당》식혁명연극의 창조원칙에 근거한 희곡문학은 이처럼 지난 시기 인물들의 대사와 행동설명으로만 극을 메마르게 이어가던 낡은 희곡과는 달리 희곡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상수단들을 새롭게 도입한 결과로 형상의 립체성을 더욱 다각적으로 담보하게 되었다.

요컨대 이 희곡문학은 주체시대의 새로운 시대극을 창조하는 문학적기초로서 그 내용에서 가장 혁명적일뿐아니라 그 형식에서도 가장 혁신적인 특성을 체현하고있음으로 하여 지난 시기의 모든 희곡문학과 질적으로 구별된다.

이상과 같이 해방후 우리의 희곡문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적문예사상의 찬연한 해발아래 시대의 발전과 함께 그 정치사상적풍격을 끊임없이 높여왔으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독창적인 문예리론에 의하여 《성황당》식혁명연극의 창조원칙에 근거한 희곡문학으로서 그 내용과 형식을 더욱더 완벽하게 됨으로써 주체시대의 참다운 본보기희곡문학으로 되었다.

백두산아 !

구희철

오를 땀 그 승엄함에
놀라와 아 !
올라선 그 장엄함에
다시 또 아! 아!

놀라움과 황홀함
가슴속에서 터지는 이 환성
백두산아 너를 보려
내 가슴속에 그리도 오래 묻혀있었것 아니던가

아 백두산
구름우에 솟아
강토 삼천리를 굽어보며
동포 2천만을 부른
혁명의 성산아 !

천만 세월에
천만조화 다 부려
깎이고 다스려져
세상 신비로움 세상 놀라움 다 지니고 솟은 산

너의 높은 령봉우에서
내 지금 조국땅 한끝을 바라보니
줄기줄기 뻗어내린 그 산악
피흘린 자욱이 력력해

울울창창한 푸른 밀림은
장군님 뒤편에 그날의 대오인듯

그 하늘가에 물든 노을은
대오앞에 날리던 그 붉은기폭인듯

천지의 맑고 깊은 물은
장군님의 뜻을 안아 그리도 맑고깊고
깎아지른 천애벼랑
장군님의 의지 닮아 그리도 기세찬가

아, 백두산아
아무리 좋은 말 다 고르고
아무리 깊은 생각 다 하여도
참말로 네앞에선
천만 말 천만 생각
한순간에 다 무색해지는구나

세기에 자랑 떨치는
우러러 높은 산
백두산아, 너의 그 말기에
우리 수령님 거연히 서계시여라

그 위대함
만천하에 떨치려
력사 반만년
다른곳 아닌 조국땅 한끝
흰 대리석 대돌같이
백두산 너는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첫 디딤돌처럼
장군님의 자욱아래 놓였구나

영원히 대오속에

리동렬

하늘끝에 당도록 만발한 꽃들도
송엄히 우러러 향기를 뿜고
기쁨을 노래하던 청고운 새들도
작은 가슴 들먹이며 조용히 귀기울이는
여기 대성산, 주작봉마루

한여름의 햇빛은 아직 뜨거운데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사색의 발걸음 끝없이 이어가시여라
펼쳐드리는 양산도 마다하시고
멀리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또 보시며

혁명의 한길에 몸바친 렬사들
그 고귀한 생을 만대에 빛내주시려고
영생하는 그 불굴의 모습들을
대리석이 아니라 동으로 세워주자고
한없는 은정도 베풀어주시더니

아직도 못다주신 사랑이 있는듯
해가 기울도록 떠나지 않으시고
김혁, 차광수, 오중흠...
몇번이고 그 이름들을 부르고부르시며
깊이 마음 쓰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이윽고 주셔야 할 가장 귀중한것
마침내 찾아 품에 안아오신듯
한손 높이 들어 가리키시여라
두폭의 붉은 기발을 뒤에 세워
혁명렬사들을 감싸주도록 하자고

가사

아, 항일의 그 싸움의 나날
대오에서 쓰러진 한 전사를 위해
위험한 수백리길
되돌아가 기어이 세워주시던
그 성스러운 혁명의 붉은기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에 더해

가슴속에 바라던 간절한 념원
꽃으로 만발한 락원우에
오늘 다시 영광의 대오의 전사로
붉은기앞에 세워주시는 그 은정이어 !

진정 한생에 바쳐온 충성보다
받아안고 받아안은 크나큰 사랑
대를 이어 깊어지는 숭고한 의리로 하여
혁명전사들의 생은 그렇듯 영원하고
대오의 위치는 언제나 변함없거니

오, 행복하여라 위대한 그 품에
모든 운명과 미래 맡기고 사는것은
영광이노라, 그 혁명적의리를 지켜
시련의 날에도 행복한 날에도
붉은기아래 다진 맹세 저버리지 않음은...

더없이 만족하신듯 기쁘신듯
환히 웃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아, 그 햇빛같은 웃음을 안고
때마침 기폭처럼 노을이 타오른다
주작봉마루에 하늘땅을 물들이며

해방산의 달밤

리하우

해방산 언덕우에 둥근달 솟아오니
항일의 녀전사 그 모습 어리여오네
아, 오늘도 어리여오네

백두산시절처럼 장군님 안녕 지켜
고요한 달빛아래 지새운 밤은 얼마라
아, 지새운 밤은 얼마라

장군님 안녕은 녀전사의 일편단심
충성의 그 마음 오늘도 가슴뜨겁네
아, 세월이 갈수록 뜨겁네

해방산 둥근달 오늘도 솟아올라
녀전사 그 마음 가슴에 안겨주네
아, 못잊을 해방산 달밤이어

당신은 위대한 조선의 미래 **김정일**, **김정일**동지

니싸르 나씨크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이으신
당신은 혁명의 계승자
당신은 혁명의 맑은 피 부어주시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주시나니
당신은 위대한 조선의 미래
김정일 김정일동지

당신은 세계의 해불
그 명성 누리에 알려지고
당신의 예지와 정력적인 활동으로
주체사상은 세계에 널리 퍼졌나니
당신은 위대한 조선의 미래
김정일 김정일동지

꽃들도 거리마다에서 당신을 반기고

당신의 존함 제국주의를 떨게 하네
당신은 억압받는 민족들의 희망
세계는 당신께 영광을 드리나니
당신은 위대한 조선의 미래
김정일 김정일동지

내 뜨거운 인사 삼가 드리노라
당신은 평화의 수호자 자애로운 어버이
당신은 위대한 수령님의 참다운 후계자
탁월한 사상과 령도 자애로운 사랑으로
인민을 이끄시나니
당신은 위대한 조선의 미래
김정일 김정일동지

(필자는 파키스탄 시인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영광을

슈마시케

향도의 태양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이시여
당신께 우리들은 인사를 드립니다
당신은 만민이 우러러 따르는분
세계혁명가들이 존경하는
위대한 스승

당신께서 주체사상의 기치 높이 드시여
인민은 자기 운명의 주인되고
당신께서 반제투쟁을 양양으로 이끄시여
거세찬 반제전선은 당신의 이름과 함께
빛나고있습니다

당신의 위대한 사상 받아안고
천대받던 인민들 싸움에 일떠섰나니
세계혁명의 승리와 영광도
인민대중의 지향을 대표하시는
당신께 달려있습니다
참다운 인민의 령도자
천재적인 사상리론가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당신께 달려있습니다

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당신의 사상을 받아안은 우리
인도양보다 넓은 무한한 세계를 안은것만 같나니
진정한 삶의 길을 밝혀준
친애하는 당신의 사상
우리 더욱 열심히 배우고 따르렵니다

친애하는 당신을 스승으로 모시여
더없이 행복한 우리들
끓어넘치는 격정에 휩싸여
주체사상이 밝혀준 승리의 길을 따라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나아갈
굳은 결의를 다집니다

우리의 스승 **김정일**동지이시여
당신은 인류의 행복 평화와 자주주의 상징
당신께 영광 영광을 드립니다
당신께 축원을 드립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필자는 탄자니아 프린트팍회사 보조지배인임)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에 대한 깊이있고 격조높은 형상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잊지 못할 겨울》에 대하여-

박연경

최근 4.15문학창작단에서 창작한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잊지 못할 겨울》은 지금 많은 독자들의 사랑속에서 널리 읽히우고있다.

장편소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과 그 당시의 생활을 통하여 그이께서 지니신 탁월한 령도력과 고매한 공산주의적인간에, 숭고한 혁명적의리를 감명깊게 펼쳐보여주고 있다.

장편소설은 1937년 가을부터 1938년 봄까지의 시기를 력사적배경으로 하고있다.

이 시기 우리 혁명과 인민앞에는 엄혹한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일제는 중일전쟁을 일으킨 이후 우리 인민에 대한 군사파쇼통치를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생사존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으며 조선혁명과 조선공산주의운동은 일대 시련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 준엄한 민족수난의 시기에 온갖 혁명의 배신자들은 일제침략자들과 로골적으로 결탁하는 길로 굴러떨어지고있었으며 좌경모험주의자들은 주관주의에 사로잡혀 《열하원정》을 강요함으로써 반일 민족해방운동전반에 막대한 해독을 끼쳤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정치활동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있었다.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는 혁명앞에 가로놓인 이 난국을 주동적으로 타개하고 조선혁명을 새로운 양상으로 이끌어내야 할 력사적과제가 나서고있었다.

이러한 력사적시기를 배경으로 하고있는 장편소설 《잊지 못할 겨울》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을 화폭의 중심에 정중히 모시고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깊이있고 격조높게 형상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깊이 있고 격조높게 형상하는것은 우리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첫째가는 원칙적요구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깊이있고 격조높게 형상하는것은 우리의 모든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나서는 첫째가는 원칙적요구로 된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전

면적으로 반영하는 혁명문학 총서인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의 창작에서는 이 원칙적요구가 가장 첨예하고 심중한 사심미학적과제로 전면에서 나선다.

장편소설 《잊지 못할 겨울》이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품도를 높은 사상에술적경지에서 형상함으로써 력사문헌적의의와 형상의 철학적집중성을 체현한 불멸의 화폭으로 수놓아질수 있는것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작품의 주제와 성격에 맞게 진실하게 형상한 데 있다.

장편소설 《잊지 못할 겨울》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심어주신 혁명적신념이란 무엇이며 주체의 혁명적신념을 심장에 새기고 드팀없는 투쟁의 한길에서 살며 싸워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심각한 사회정치적문제성을 제기하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그이의 령도 따라 나아갈 때 조선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혁명의 진리를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밝혀내고있다.

작품은 드물지 않은 확고한 혁명적신념과 강의한 의지, 천리해안의 예지로 조선인민혁명군 병사, 지휘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일제에게 섬멸적타격을 주고 혁명의 준엄한 난국을 타개하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품도를 감명깊게 형상하였다.

일제 백만대군의 포위속에서 그것도 근 반년동안에 걸친 장기적인 군정학습을 조직하여 전군을 정치군사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불섭에서의 생활, 그것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대담무쌍한 계획이었으며 그만큼 준엄한 시련을 이겨나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의무이다!》

이 혁명적구호에는 빛나는 예지로 조선혁명의 먼 앞날을 내다보시며 전사들을 정치군사적으로 튼튼히 키우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뜻이 담겨져 있다.

소설은 조선공산주의운동발전의 본질과 그 추동력을 깊이있게 밝혀내면서 조선혁명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곧바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을 깊이있게 그려내고있다.

당시 파쇼도배들은 국제적규모에서 결탁을 강화

하고 침략을 조직화하였으며 일제는 《7.7사변》 이후 특히 장백일대와 국경연안의 우리 혁명조직에 대하여 전례없이 악랄하게 탄압하고있었다. 이러한 복잡다단한 정세에서 조선혁명군은 준엄한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다. 과연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는 형편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을 어떤 역경에서도 드물지 않는 확고한 혁명적신념을 간직한 주체의 혁명가로 키우시려고 결심하시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심오한 사상과 빛나는 예지, 깊은 철학적사색으로 몸소 불후의 고전적으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를 집필하시고 그것으로 대원들을 교양하신다.

소설은 당시에 조성된 우리 혁명의 준엄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인 로선과 방침을 명백히 밝히고있으며 그 형상과정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과 그것이 항일혁명투쟁발전에서 가지는 의의를 예술적으로 설득력있게 해명하고있다.

소설은 정안톤공격전투의 승리를 통하여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전략전술과 명활한 전법에 대하여 감동적으로 보여주었을뿐아니라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마당거우밀영에서의 군정학습이 가지는 의의를 예술적으로 확증함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의 현명성을 깊이있게 그려 보이고있다.

소설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군정학습기간 모든 지휘원들과 대원들이 부대관리를 알뜰히 하며 규율과 생활질서를 철저히 세우고 후방사업을 개선 강화하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신데 대하여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이 생활화폭은 위대한 수령님식사방법을 형상적으로 재현한것으로 하여 커다란 교양적의의와 감화력을 가지며 나아가서 마당거우밀영의 군정학습이 가지는 의의를 부각시키는데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다는데 그 형상적특성이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몸소 오중흥동지의 4중대를 지도하시여 본보기를 창조하시고 그를 전부대에 일반화하신다.

캄캄한 밤에도 병실주변을 마음놓고 다닐수 있도록 새하얀 붓나무가지로 만든 가래대, 강낭쌀이 모룩이 담긴 나무독, 부엌구석에 놓여있는 발방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가 알뜰하고 간지게 꾸려진 부대살림살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대원들의 무기와 군복 그리고 리발과 목욕 등 개체위생상태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알아보시고 보살펴주신다.

보기만 해도 한번 들어가 앉아보고싶도록 잘 꾸려진 병실, 중대원들이 추운데서 순찰근무나 보조근무를 서고 돌아와서 따뜻한 돌을 가슴에 안을수 있게 돌화로 돌레에 놓은 등글납작한 돌들에 이르기까지 병실의 안팎을 일일이 다 둘러보신 장군님

께서는 무척 만족해하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밀영학습기간 모든 대원들이 과학적인 세계관을 세우는 동시에 간지고 알뜰한 살림살이 솜씨를 갖추도록 대원들을 친어버이 사랑으로 보살펴주시였으며 오중흥중대의 살림살이를 따라배우도록 따듯이 일깨워주신다.

이때 대원들은 장군님께서 할머니때문에 침식을 잊고계신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러나 그이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끄떡없이 장기군정학습을 끝까지 진행할 강철의 결심을 품고계신다는것과 장군님의 가슴아프심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그이의 희망과 념원대로 군정학습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것밖에 달리는 길이 없다는것을 그들은 더욱 더 똑똑히 깨달았다.

소설에서는 이와 같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군정학습을 조직할데 대한 방침의 내용과 그 정당성, 생활력, 의의 등을 실재한 역사적사실에 기초하여 깊이있게 보여줌으로써 1937년 겨울, 잊지 못할 겨울이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불멸의 의의를 힘있게 밝혀내고있다.

장편소설 《잊지 못할 겨울》은 또한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니신 고매한 덕성과 숭고한 혁명적의리를 감명깊게 형상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니신 고매한 덕성과 공산주의적인간에는 김주현의 생활에 대한 보살피심에서 특히 깊이있게 구현되고있다.

김주현이가 파오를 범한후 작식대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에도 망망대해에서 룡을 낚아야 할 장수가 실개울에서 미꾸라지나 잡고있는것 같이 생각되시여 원칙적인 비판과 뜨거우 사랑을 안겨주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팔송불을 켜놓고 밤을 지새우며 공부하는 주현이를 념려하시여 사령부에서 써야 할 몇대의 초마저 그에게 돌려주시는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혁명적신념과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은 존경하는 조모님에 대한 가슴아픈 소식을 들으시고도 조국과 인민에 대한 크나큰 사랑을 위하여 조모님을 구출하기 위한 전투를 벌릴것을 것처럼 절절하게 소망하는 대원들의 제의를 만류하시는데서 격동적으로 그려졌다.

참으로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의 가장 위대한 사상정신적품모를 펼쳐보인 감동적인 생활화폭을 통하여 모든것을 혁명위업에 고스란히 바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을 위한 헌신적복무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가슴뜨겁게 느끼게 된다.

조모님을 구출하기 위하여 일제침략군들과 기어코 전투를 벌임으로써 조선인민혁명군의 위신과 명예를 끝까지 고수하겠다고 그렇게도 간절하게, 그렇게도 절절하게 소망하는 오중흥, 오대룡, 박철산 등 지휘원들에게 동무들이 일의 경중을 갈라보고 제발 그러지를 말라고 안타깝게 호소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심중세계를 그린 대목은 작

품에서 가장 격동적인 화폭으로 된다.

일제침략자에 대한 분노와 보복의 일념에 리성을 잊어버리다싶이 한 세 대원의 절절한 표정을 헤아리시는 장군님께서서는 아무리 인정이 후더워도 그 눈물속에 혁명의 리익을 용해시킬수는 없다고 굳게 마음다지신다.

장군님께서서는 이 전투를 하지 못하는 리유가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리유는 이 전투로써 조선의 모든 할머니들과 어머니들, 안해들과 아이들의 원한을 다 풀고 그들모두를 구원하지 못하기때문이라고 하시며 마당거우 불섬쪽을 향하여 전대오가 지체없이 행군하도록 단호한 명령을 내리신다.

우리 겨레의 심정으로 말하면 장군님의 조모님을 구출해내는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을것 같지만 장군님께서서는 그 누구보다 가장 가슴아픔을 겪으시면서도 혁명의 요구에만 충실할것을 모든 전사들에게 엄격하게 요구하시고 마당거우에로 행군할것을 명령하시였다.

천년묵은 거둑처럼 억척스럽게 서있는 오중흡, 오대룡, 박철산 그들 세 사나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소리없이 썸썸아 비바람에 트고 갈라진 불을 타고 내리더니 마침내 그 찻찻한 소금기가 무쇠같은 심장에까지 배어드는지 큰 가슴들을 움켜안는것이였다.

아버이장군님께서 지니신 고매한 덕성은 정안톤 공격전투의 돌파조책임을 지고나간 김주현이 적을 향하여 날아가는 보복의 불줄기를 지켜보며 한순간 생각에 잠기는 절절한 그의 내면세계에 굴절되어 더욱 가슴뜨겁게 안겨온다.

(권영벽동무, 이 총소리를 무심히 듣지 마오. 만경대할머님때문에는 순시도 행군길을 멈추지 못하게 하시던 우리 장군님께서 동무가 체포된 소식을 들으시자 동무더러 들으라구 높이 울리신 총소리요!)

복잡다단하고 준엄한 혈전의 포화속에서도 나어진 종철이를 어느 후방밀영에 두는것이 낫지 때놓고 마음고생을 못하겠다시며 애지중지 살뜰하게 보살피시는 아버지장군님.

장군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혁명적의리와 공산주의적인간애는 마국화에게 돌려주신 뜨거운 은정에서도 그대로 표현되고있다.

마동희가 혁명적절개를 지켜 끝까지 싸우다가 장렬하게 희생된후였다.

어떤 경우든지 혁명의 절개를 지켜 장렬하게 희생된 전사의 소식을 그 혈육에게 자신께서 직접 전해야 한다는 쓰라린 의무를 느끼고계시는 장군님께서서는 슬픔에 눈물지를 나어진 국화에게 어떻게 위로할것인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는것이다.

장군님앞에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무등 애를 쓰는 국화에게 그이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신다.

《국화동무, 그러나 참아야지. 우리 억센 마음으

로 슬픔을 이기고 오빠대신 혁명을 더 잘하자구.

나는 오빠대신 국화를 누이동생으로 생각하고 어머니를 내 어머니로 삼고 국화는 나를 친 오빠로 생각하고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혁명이 승리하는 날까지 억세게 싸워나가자구.》

아버이장군님의 이처럼 크나큰 사랑의 품이 있기에 국화는 가슴터지는 슬픔을 박차고 억세게 자라나는것이다.

국화는 오히려 자기때문에 가슴아파하시는 장군님을 위로해드리느라고 애쓰면서 오빠대신 왜놈들을 죽치고 해방된 인민들앞에 나가서 갑순이의 노래를 부르겠다고 마음다지는것이다.

장편소설은 이처럼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숭고한 인간적품모를 가장 폭넓고 깊이있게, 가장 친근하고 감명깊게 생활적으로 형상하였다.

장편소설에 등장하는 많은 긍정인물들은 모두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숭고한 덕성을 깊이있고 격조높게 형상하는데 이바지되면서 동시에 뚜렷한 형상의 묘를 가지고있다.

김주현을 비롯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각이한 개성적특성을 가진 발랄한 형상들이면서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불타는 충성심으로 하여 공통적인 성격적특질을 체현하고 있다.

김주현이 혁명이 맡겨준 작식대원의 임무를 자각하고 뿔뿔리를 씹어삼키며 병마와 싸우면서 대오를 따라가는 모습은 얼마나 가슴뜨겁게 안겨오는가. 기어이 파오를 씻고 장군님의 품속에서 정치적생명을 영원히 빛내이려는 주체형의 혁명가의 고결한 녀이 사람들을 그토록 감동시키는것이다.

조직의 비밀을 루설하지 않으려고 혀를 끊고 최후의 순간까지 싸우다가 붉은 피를 손가락에 묻혀 일제는 망한다! 혁명만세! 라고 시뻘건 글발을 새기고 뜻깊은 미소를 보이며 간 마동희!

땅이 솟구치며 튼튼히 뿌리를 박은 나무기둥처럼 근본이 뒤흔들리지 않고 옥중고초를 겪으면서도 변색을 모르는 소나무처럼 꽃잎이 싸우는 권영벽! 이들은 모두 위대한 장군님께서 심어주신 주체의 신념을 가슴깊이 새기고 언제나 혁명의 한길을 가는 충성의 전위들이다.

실로 태양의 빛을 받아 반짝이는 별무리와도 같은 충성의 전위들의 형상은 작품전반에 흠모의 선이 일관되게 하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깊이있게 그려내는데 한결같이 이바지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편지를 언제나 몸에 소중히 품고다니며 학습에 열중하여 문명하고 유식한 능력있는 대원으로 성장한 안희창의 형상은 매우 인상적이다.

두메산골에서 부대기를 파먹던 가난한 빈농의 아들인 희창은 자동차나 기차를 만나면 너무나 신기해서 시간가는줄을 몰랐다.

임대초기 전투때 경찰서 바람벽에 걸려있는 체경

에 자기의 모습이 비치자 탄 사람이 맞받아오는 줄 알고 사격을 들이대던 희창이었다.

그러한 그가 이제는 책도 읽고 편지도 쓸 수 있게 되었고 훌륭한 유격대원으로 자라났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안희창이나 김주현의 경우만 보시여도 군정학습에 들어선후 대원들의 급격한 성장과 변화를 가늠하실 수 있었다.

장편소설은 이처럼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니신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과 숭고한 혁명적의리를 그대로 진실하게 그려내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과 혁명전사들의 불타는 충성심을 깊이 있게 형상하였다.

장편소설 《잊지 못할 겨울》은 예술적형상의 일련의 문제들도 잘 해결하고있다.

작품은 구성의 대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인간관계를 옹골게 설정하였을뿐아니라 이야기줄거리가 짙게 짜여져 있어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선을 작품전반에 일관시키고있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투쟁사적과 불멸의 업적을 그대로 작품의 이야기줄거리로 반영하면서 사건전개도 마당거우밀영의 군정학습을 축으로 하여 1937년 겨울의 실재한 역사적사실의 의의가 명백히 드러나도록 하였다.

소설은 역사적사실에 기초한다고 하여 1937년 가을부터 1938년 봄까지의 혁명사적을 평균적으로 끌고루 라렬, 점철, 복사하거나 떠올기는식으로 사실을 전달한것이 아니라 작품의 종자에 맞게 구성조치를 하여 작품의 철학적심오성과 예술적감화력을 보장하였다.

소설은 조선인민과 조선인민혁명군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어주신 주체의 혁명적신념을 확고히 간직하고 투쟁할 때에만 조선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작품의 핵을 쥐고 1937년말부터 1938년초까지의 혁명토정을 그렸기때문에 불섬군정학습을 축으로 하여 복잡다단한 당시의 국제정세와 국내형편 그리고 투쟁의 불길속에서 날로 성장강화되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위력을 하나의 예술적화폭으로 통일시킬 수 있었다.

소설에서는 생활일화와 세부를 비롯한 줄거리밖의 형상요소들이 구성조직에 잘 맞물려져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높은 덕성을 깊이있게 형상하는데 한결같이 복종되고있다.

문학에서 인간과 그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려면 생활을 세부화하여 그려야 한다.

특히 거대한 역사적 사건과 사실을 예술적화폭으로 재현할 때일수록 생활을 세부화하여 그려야 생활을 통채로 라렬하거나 사건본위로 생활을 그리거나 생활의 결과만을 제시하는것과 같은 편향을 극복할수 있게 한다.

장편소설에는 언제나 생동하게 기억되며 강렬한 사상정서적충격을 불러일으키는 빛나는 세부들이 많다.

안희창이 언제나 몸에 소중히 보관하고있는 편지, 마동희가 좋아하는 국수이야기, 이른봄날 차거운 물속의 가재... 등이 그것이다.

그중에서도 국수이야기는 빛을 뿌리는 생활세부의 하나이다.

이 인상적인 세부는 마동희를 국내으로 파견하시면서 그가 좋아하는 국수를 마련하시여 많이 들도록 권하시며 그를 떠나보내는것을 못내 서운해 하시면서도 기쁘게만 해주시려고 마음쓰시는 어버이 장군님의 한없이 인자하고 친근하신 심중세계를 은근한 정서적빛갈속에 깊이있게 보여주고 있다.

더우기 이 국수에 대한 생활세부는 마동희를 유격대에 보내면서 그의 어머니가 보약을 먹여보내지 못해서 속을 앓던 이야기와의 대조를 이루면서 친어버이사랑으로 대원들을 살뜰하게 보살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매한 품모를 진실하게 형상하는데 바쳐지고있다.

국수와 관련한 세부는 또한 투쟁속에서 억세게 자라나는 안희창, 마국화들의 참다운 혁명적동지애를 밝은 색조로 인상깊게 그려내며 작품에 민족적정서와 정취가 그윽하게 풍기도록 하였다.

장편소설에 주어진 자연묘사는 숭엄하고도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예술적화폭일뿐아니라 작품의 주제사상적지향을 심화시키고 통일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이 깊은 숲속 한복판에는 밀둥이 잘리워 넘어져 있는 한그루의 나무가 있었다.

다섯아름이나 될 그런 대부둥이 어째서 밀둥을 잘리우고 몸을 뺄수 없이 뻣뻣한 수림속에 어떻게 누울 자리를 얻어냈는지는 누구도 쉽게 알아맞힐수 없었다.

그리하여 호기심이 많고 숲에 대해 조예가 깊은 김주현이도 그럴사한 까닭을 생각해낼수 없었다.》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주현에게 혁명가는 학습을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겨우내 학습을 잘하고나서 다시 한번 우리 혁명의 일대 양양을 불러일으키자고 간곡하게 일깨워주시는 정황에 주어진 자연묘사이다.

이 자연묘사가 펼쳐준 화폭은 백두밀림의 태고연하고 신비로운 풍경에 대한 예술적화폭일뿐아니라 김주현의 성격발전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우리 혁명의 근본원칙을 옹골게 구현할 립장과 자세를 굳건히 가지지 못했던 까닭에 과오를 범했던 김주현이 자기잘못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학습을 해야 하는것이다.

《밀둥이 잘리워 넘어져있는 한그루의 나무》에 비유된 김주현은 어차피 남달리 학습에 열중하여 지심깊이 뿌리를 내리고 아지를 뻗치고 잎을 싹트이는 거목으로 자라나야 할것이였다.

소설의 맨마지막에 주어진 생신한 이른봄날에 대한 정경묘사는 불섬에서의 군정학습을 통하여 정치

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위대한 장군님의 친솔하에 백두산서남부일대와 압록강연안으로 진출하여 적극적인 군사정치활동을 벌리게 되었다는것을 힘있게 밝히면서 잊지 못할 겨울의 불멸의 자욱을 격조높이 칭송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소설에는 또한 시대의 본질과 인간생활의 특징, 혁명의 원리를 생동하고 간결하게 표현한 생활적이고 철학적인 대사들이 많다.

특히 소설의 대사들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풍부한 생활체험이 안반침되어있으며 그들 자신이 심장으로 파악한 생활과 투쟁의 진리를 표현하고있는 명대사들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형상을 화폭의 중심에 높이 모시고 등장하는 공정인물들-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혁명적인민들의 대사는 하나같이 혁명하는 시대와 사회적특징을 반영한 말들이며 말마디마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자부심과 긍지, 어버이수령님께 일편단심 충성다하려는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가 깃들어 있다.

장편소설은 이처럼 예술적형상화의 측면에서도 좋은 경험을 주면서 작품의 사상적내용을 깊이있고 명백하게 전개하였으며 생활을 진실하게 보여주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잊지 못할 겨울》은 작품이 체현한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할것이며 당의 유일사상교양의 위력한 무기로 될것이다.

꽃 사 발

김경준

너무도 일찍 고향집을 나섰기에
한집안 식솔과 마주하신 때보다
밀영에서 대원들과 마주하셨던 때가
더 많으신 어머니님

건국의 터전우에
첫걸음 새기던 그날
북방천리 우리 요업공장에 오신 어머니님
투박스레 만든 사발을 보여주시며
다정히 하시던 말씀 잊을수 없으려

같은 음식도 고운 그릇에 담으면
더 맛이 난다고
해방을 맞은 인민들에게
고운 꽃사발을 만들어주자고...

아, 지난 세월
죽물마저 담을 그릇이 없어
깨진 쪽박에 한숨만을 담던
이 나라 녀인들의 가슴을 덥혀주시며
해방의 기쁨에 행복을 더해주시던
은혜로운 사랑이여 !

적후공작의 나날
가시는곳마다 인민의 딸이 되시여
마을의 언니가 되시여
불꺼진 아궁에 불도 지펴주시며
텅빈 부엌살림이 가슴아프시여
질그릇도 깨끗이 닦아주시던 어머니님

그 사랑
꽃으로 수놓아주시여 꽃사발인가
그 사랑에
우리 행복 꽃피여 꽃사발인가

이 나라 어디가나
집집마다 눈부신 부엌세간
행복이 없히고 웃음이 없히여
마음에도 꽃을 피워주는
꽃사발 꽃사발

받아안은 마음은
언제나 꽃처럼 밝아도
어머님께 지성드리지 못한 마음
언제나 그날의 투박한 사발에 얹혀있어

세월이 갈수록
간절해지는 소원
인민이 지은 진수성찬
꽃사발에 담아
어머님께 드리고싶은 마음이여

아, 김정숙어머님
딸들 머느리들 보살피시듯
어머님은 벌써 그날에
오늘의 행복넘친
온 나라 가정의 부엌마다
기쁨을 주시며 웃음을 주시며
다 돌아보시였구나

어머님의 진달래

리금녀

송이송이
불수록 교우신듯
송이송이 품을수록
더 소중하신듯

회령땅
새 우짖는 오산덕에
김정숙어머님
안고 서신 진달래

설한풍 넘고넘던
혈전의 길에서
어머님 가슴에
피워오신 꽃이어서

광복의 날 천만송이
만발한 날에도
수령님 기쁨으로
가꿔오신 꽃이어서

비 오나 눈이 오나
하루같이 안으시고
오늘도 봄빛속에
변함없이 피우시니

아, 나도 진달래
그 한송이
당의 해빛받아 활짝 피는
어머님의 꽃

꽃바구니

김 규

무성한 푸른 숲
모란봉과 키دون옴하고
넘치는 웃음소리에
대동강도 설레이는
꽃피는 룡라도

수려한 풍치
쏟아져 뿌리는 운치에 마음 젖으니
내 귀밑머리 희어졌어도
가슴가득 샘솟는 청춘희열

꽃벗나무에 이끌리어
전나무에 이끌리어
조용히 걸음 멈추면
젖어드는 뜨거운 생각

물안개 흐르는 이른아침
우리 수령님
룡라도를 꽃바구니처럼 가꾸어
인민들의 문화휴식터로 만들자 하시며
손수 심으신
꽃벗나무 전나무

어버이수령님 큰 사랑을 드시고
땅을 파시는 소리

그루마다 물부으시는 소리
대동강 흐름소리마냥 끝없이 들려오는데

금전화 금어초 반기는 저기엔
남녀 혼성 배구경기로 들끓고
경축장미 그늘엔 웃놀이 웃음소리
아, 인민의 행복넘친 꽃바다 꽃바다

피엿구나, 꽃망울을 터치누나
향기 그윽한 수천수만의 꽃송이
기쁨넘친 얼굴들 얼굴들

8형제 고운 꽃벗나무야
7형제 푸른 전나무야
피꼬리들 노래하는 푸른 숲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 젊어져
부풀어오르는 이 가슴

거닐면 거닐수록 기쁨은 샘솟고
가슴가득 피어나는 충성의 꽃
아, 룡라도 너는 정녕
인민의 모습 꽃으로 피워안은
행복의 꽃바구니
사랑의 꽃바구니

조 국

김영근

8.15해방기념일을 맞이할 때마다 잊지 못할 추억을 더듬게 되건만 금년따라 더욱 감회가 새롭다. 그것은 조국해방 40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때문이다.

해방이라는 이 말과 함께 나는 자신의 운명, 우리 가족과 친척들의 운명, 고향사람들과 송아지적 동무들의 운명에 있어서 조국의 해방이 얼마나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다주었는가를 사무치게 느끼곤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시작한 위대한 해방의 날입니다.》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의 빛나는 결실로써 이룩된 조국의 해방과 어버이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령도하여오신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있음으로 하여 나의 운명, 고향친구들의 운명, 우리 나라 모든 인민의 운명에서 전환이 일어났다.

홍부네 집과도 같은 오막살이 초가집의 낮은 처너미를 나서면 사방이 중중첩첩한 산밭로 둘러싸여서 하늘마저 멍석만큼밖에 쳐다보이지 않는 궁벽한 산간마을, 거기가 바로 나의 고향이고 해방의 감격을 맞이한 잊지 못할고장이다.

화전이나 다름없는 소작지-비탈밭을 갈구령호미로 쫓아가며 무더운 여름날의 하루해가 천년맛잡이로 길게 생각되어 밭가운데 꽃아놓은 막대기의 그림자가 제일 짧아지는 시각-점심시간을 애타게 기다리어 범벅덩이나마 에우고 그늘밑에 누워 한숨쉬게 되는 시간을 제일 행복한 순간으로 느끼며 자라온것이 나자신이였고 나의 송아지적동무들의 공통적인 운명이였었다.

현대문명과 멀리 떨어져있어서 글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신문도 오지 않는 마을이어서 세상소식조차 늦게야 오는 그고장에는 해방의 소식마저 늦게야 찾아왔었다.

8월 15일로부터 아마 며칠이 잘 지났을 어느날, 그날도 나는 어머니와 함께 안개골의 조밭에 올라가 바랭이가 잔뜩 낀 김을 매다가 감자 몇알로 점심을 에우고나서 싱아를 꺾어먹고있었다.

그때 나와 동갑이인 연준이가 헐떡거리며 나를 찾아와서 밀도끝도 없이 빨리 오라고 소리쳤다.

《왜 그러니, 또 누구네 아버지가 〈보국대〉에 끌려갔니?》

하고 나는 그에게로 다가갔다.

일제 말기에 있어서 우리 어린것들이 자주 당하는 제일 큰 불행은 자기의 아버지나 형들이 《징병》, 《보국대》에 끌려가는것이였다.

그때 열한살인 나에게는 동갑이인 연준의 다급한 부름이 그렇게밖에 예상되지 않았던것이다. 바로 몇달전에 연준의 형이 그렇게 끌려갔을 때도 그는 나를 찾아와서 저렇게 다급히 불렀었다. 일제놈들이 무장을 갖추고와서 아버지나 형들을 《보국대》, 《징병》에 끌어가는 때 우리같은 어린것들이 무슨 수가 있었으랴만 이렇게 찾아다니며 함께 불행을 나누곤했었다.

하기에 이날도 나는 또 어느 동무네 집에 그런 불행이 닥친것으로만 알고 눈이 둥그래졌던것이다.

《아니야, 그런 나쁜일이 아니구 좋은일이야 좋은일, 빨리 가자, 빨리!》

하고 연준이는 다짜고짜로 나의 베적삼자락을 왁살스레 끄잡아당겼다.

《좋은일, 무슨 좋은일? ...》

《글쎄 빨리 가자는데. 우리 나라가 해방됐대, 왜놈들이 망하구...》

《응? 우리가 해방?》

《그럼 이젠 〈보국대〉, 〈징병〉 두 다 없어지구 우리 형두 돌아온대.》

《그래?!》

《그럼, 그래서 지금 온 마을어른들이 왕소나무밑에 모여서 기발을 만들구있어, 해방만세를 부르려 간대.》

《야!》

나는 연준의 손을 맞잡고 김매던 맨발바람 그대로 풀숲과 도랑을 마구 꿰질러 왕소나무밑으로 달려갔으며 어른들과 함께

《조선독립 만세!》

《**김일성**장군 만세!》를 목이 쉬게 불렀었다.

그날로부터 40년!

오늘 나와 연준동무, 그리고 우리 고향사람들의 운명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그 40년간에 우리가 성장해온 가지가지 이야기를 여기에 다 적을수는 없다.

몇해전에 내가 장편소설 《금천강》을 세상에 내

놓았을 때 나의 가장 잊을수 없는 송아지적동무였고 해방의 감격을 함께 맞이하고 함께 만세를 불렀던 연준동무는 이런 편지를 보내왔었다.

《김동무, 나는 장편소설 〈금천강〉의 책가위에 동무의 이름이 써여있는것을 보면서 나의 송아지 동무가 쓴것이라고는 인차 믿어지지 않았소. 그저 같은 이름의 작가가 썼으리라고만 생각했단말이요.

그런데 소설을 읽어보니 신통히도 우리 고향사람들의 생활이더군요. 해방후 김일성장군님의 배려로 비로소 땅의 주인이 되어 참된 행복을 체험한 우리 고향사람들이 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시기에 바로 그 행복을 안겨준 조국을 위하여 영웅한 유격투쟁을 전개함으로써 고향을 지켜낸 이야기말이요.

그래서 나는 바로 동무가 쓴것이라고 확신하고 이 편지를 쓰오.

참으로 놀라운 일이요.

현대 문명과 멀리 떨어져있어서 이 세상에 소설이라는것이 있다는것조차 아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던고장에서 태어나 해방후 비로소 성인학교에서 글눈을 뒀던 동무가 오늘은 장편소설을 써낸 작가로, 그리고 또 창작지도일군으로까지 되었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요.》

나는 연준동무의 편지를 받은 이후 그가 일하는

공장에 나가서 현지체험을 하고있는 우리 소설가 황용국동무를 통하여 그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써보낸 일이 있다.

《연준동무!

나 역시 동무의 변화된 처지가 놀라울뿐이요. 이 세상에 화학이라는 말조차 아는 사람이 없던 고장에서 태어나 역시 해방후에 비로소 $2 \times 2 = 4$ 라는 구구표를 성인학교에서 배우던 동무가 오늘은 세계의 발명권을 가진 건재화학기사로 그리고 또 수천명의 노동자, 기술자들을 통솔해야 하는 서부지구 굴지의 세멘트공장 당비서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요!》

그렇다!

가장 친근한 송아지적동무의 오늘에 대해서까지 서로 인차 믿어지지 않을정도로 우리의 처지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는가.

이것은 우리 고향 모든 사람들, 우리 조국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활이다.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광복시켜주시고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신 영광스러운 조국이 있음으로 하여 나의 운명, 송아지동무들의 운명, 우리 나라 모든 인민의 운명에서는 이처럼 근본적인 전환이 마련되었으니 이 조국을 위한 일에서 내 무엇을 아낄 수 있으랴!

해돋이의 도시

권태여

구내산 저 넘어
동이 트는가
출선의 노을이 하늘을 물들인
내 고향 철의 도시

거리도 마을도
불밝은 집들도
용광로를 향하여 창문을 여는
해돋이의 도시여

또 하루
새날을 알리는 고동소리인양
숨결높은 용광로의 열풍소리
뜨겁게 뿜어주는 눈부신 광명이여

기다려 맞는 아침이 아니다
이슬에 젖은 새벽도 아니다

흐르는 쇠물로 어둠을 불사르며
불로 달군 창조의 아침이다

오, 이 아침
남먼저 새날을 맞는 환희에 젖어
출근길 연도우에 물결치는 어깨여
쇠물에 났을 둔 미더운 모습들이여

흐르는 쇠물을 바라보시며
밝아오는 공산주의 새벽노을 여기서 본다신
친애하는 우리의 지도자동지
그 기쁨의 미소로 새날은 밝아오고
밤에도 지지 않는 해빛이 되어
철의 도시 하늘가엔 노을이 불타네
그 노을로 어머니주국에
창조의 기둥 억세게 세워가는
오, 해돋이의 도시여

련시

조국의 품에 안겨 나의 청춘

박세영

내 너무도 일찌기
썸바퀴를 씹듯이
모진 가난속에서 끼니도 모르며
허기진 배를 그러안고
세월을 저주하던 아이

내 너무도 고역에 시달려
저녁이면 추녀 없는 판자집에서
락탈의 채찍밑에 피멍든 어깨
어머니의 여윈 가슴에 묻고
나라 없는 설움에 울던 아이

조국이 없어
자유도 권리도 존엄도 없는
인간 아닌 인간이었고
너무도 때일찍 아까운 청춘을
다 빼앗긴 인민이었다

아, 그때문에
치욕의 그 36년은
천년같이 길었더라
꿈도 희망도 지너보지 못한
청춘 아닌 청춘시절을
값없이 흘려보낸 가슴쓰린 추억
오늘도 잊지 못해라

지나간 추억을 더듬으며
때없이 가슴속에 묻노니
팔십이 넘은 오늘날
이 가슴에 용솟는 청춘의 열정
그 어디서 오는것이나고

일하고 일해도 더 일하고만싶고
할아버지라는 손주애들 말에도
오히려 노여움이 없지 않은
청춘의 기백 넘치는 이 마음
그 어디에 원천을 두었느냐고

아, 우리 수령님 안아오신
조국해방의 환호성과 함께
자유도 권리도 존엄도 되찾고
때일찍 시들었던 가슴에
꿈도 희망도 날마다 깃드는
청춘을 되찾았으니

내 오늘의 이 흰머리
아이적 검은 머리로는 될순 없어도
마음의 머리는 청춘의 기백으로 날리고
내 영원한 청춘의 보호자
조국, 조국을 위해
한몸 바칠 젊음이 끓어
나의 청춘은 영원한것이어라

내가 살던 집

김상오

시가지를 가로질러 서북쪽 번두리
가재바우골 못미처 산으로 가는 길목
아마 여기 어디쯤에 있었으리라
내가 나서 철들무렵까지 살던 집

일제가 《행복》의 거리라고 이름지었던
행복이라곤 없었던 성아래동네
한옆에 더러운 개울이 흘러지나가
나의 어린 여름철은 감탕속의 미꾸라지였다

고새먹어 굶이 패인 초지붕, 키낮은 추녀
우리 집은 포목상 박씨네 기와집에 눌러있었다
내가 쓸어나오는 아궁앞에서 어머니는 늘 울고
60전 월사금을 못내서 쫓겨온 나도 울었다

제국대학을 다니던 기와집 둘째 아들이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여 군수로 부임해왔을 때
《불온》 학생으로 감옥을 다녀온 우리 집 둘째-

나는 방에 들어박혀 《가난이야기》를 읽고있었다

허나 우리 집에도 즐거움이 있었다!
뜨락의 박우물과 청청한 오동나무 한그루
새들이 모여들어 나무에서 우짖다가 날아가고
나는 그밑에 누워 하늘을 쳐다보았다

나는 날아가는 새가 부러웠다, 그의 날개가
그리고 좁고 어두운 나의 집이 진저리났다
그리하여 오동잎이 우수수 떨어지는 어느 가을날
나는 우물에서 물 한바가지 퍼마시고 집을 나섰다

허나 슬프게도 나에겐 날개가 없었다
그 누구도 그것을 나에게 주지 않았다
3년, 나는 한스럽게 하늘을 쳐다보며
이국의 땅바닥에 삶을 짓밟히다 돌아왔다. ...

아니다! 나는 여기 나의 고향땅 그 어디에

내가 살던 집을 찾으려고 오지 않았다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다. 꼬물만치도!
지금 나는 밝고 넓은 집, 나의 공화국에서 살고있다

나는 큰사람 아닌 이 땅의 작은 한 시인
무슨 옛집이라, 남길것은 서투른 몇몇 시편뿐
어둡던 나의 과거를 매장하고 높이 솟아오른
너 진실로 행복한 삶의 나래침을 노래부르리

다만 기억의 폐허우에 되살아나 나를 붙잡는것은
날아가는 새처럼 날고싶던 그철없던 시절의 꿈
나는 그때 몰랐다 인간의 자유가 무엇인가를
그리고 인간이 무엇으로 날수 있는가를

지금 나는 안다. 인간에게도 날개가 있다는것을
날아갈듯 높은 집이 일어난 나의 옛집터에 서서
나는 생각한다. 해방된 창조력- 바로 이것이
인간의 날개임을 나에게 가르쳐준 우리의 땅을

소원은 해를 따라...

오영재

해방 되던 그해
내 나이는 열살

다도해가 가까운
고향의 작은 마을도
감격에 겨워 잠들지 못했고
모기불 피는 마당의 평상에 누워
조국이 이제 안겨줄 그 모든것을 두고
나는 즐거운 공상의 세계를 날았다

하늘의 별도 따올듯한
열살소년의 그 공상
그 땅에서 그것은 너무도 천진한것이였으니
높이 날던 희망의 나래는
때이른 세파에 지치고
깃털은 찢겨져
락엽처럼 땅우에 흩날려내렸다

흩날려내렸더라
입학금이 없어 못들어선 교정
쫓겨온 아들을 보며
어머니 눈물짓던 그 작은 뜨락에

나무지게 지고오르던
찢레나무 가시 엉킨 산길에
항쟁에 의롭던 마을의 젊은이가

뭉이여 건너가던
앞개울 물얄은 징검다리우에

조국이라 부르는 그 이름이
그대로 고통이여서
설움이고 눈물이여서
보충이 땅에 끌리는 나이에
나는 총을 메였노라

고향을 뒤에 두고
부모형제들과 헤어져
락동강을 건너 태백산줄기를 타고
내 기꺼이 안긴 품은
짓밟힌 열살소년의 그 꿈을 다시 불러
삶의 밝은 길우에 꽃피워준 품

여기서 마음의 기둥을 안고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며 서른다섯해
나는 알았노라
조국이 한 아들에게
얼마나 많은것을 줄수 있는가를

조국이 그대로
희망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둘도 없는 어머니인 이 땅에서
수령님과 당의 사랑속에

나는 젖어사나니

불행으로 고통으로
조국을 부르던 내 어린시절의 쓰라린 추억
참다운 조국을 찾으며
병사시절에 흘린 피가 없었다면
이토록 조국이 나에게 귀중할것인가
그 진심 가슴에 넘칠수록
소원은 해를 따라 자라만 가거니

내 고향 다도해
내 혈육이 있는 그 땅도

이 조국의 빛발아래 밝아지고
민족이 열싸안고 번영의 큰길로 활개쳐갈
그날을 마련하며
그날을 당겨올
오직 하나 그 생각뿐이여라

그 사랑 고마워서

김래경

나의 어머니
20년전 니이자다항구에서처럼
조국을 방문한 오늘도
목이 메어 말문마저 막히누나

조국에서 처음보는 며느리와 손자들
오래오래 바라보고 바라보다도
두볼 타고 흐르는 눈물 닦을념 없이
몇번이고 한 말을 되풀이하며...

-낳은 정보다 키운 정 더욱 깊다고
알아누운 너에게 약 한첩 못써본채
배우고싶은 너의 소원 풀어주지 못한채
조국으로 떠나보낸 이 예미가
손자를 안고보니 부끄럽구나
할머니라 나서기가 부끄럽구나

일본을 떠날 때는 초라한 네 혼자였는데
조국의 품에 안긴 너의 모습
꿈이나 생시이나?
해녀의 아들이 대학선생이 되고
네칸짜리 화려한 아파트엔
한구들 며느리 손자들로 넘쳐나니

나라 없던탓에, 조국을 빼앗긴탓에
조선의 피줄 타고 태어난것이 죄였던과
《망국노! 조선인!》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런 말을 들으며
협악한 세상을 살아온 우리에게
차려진것은 나라 없는 망국노의 설움뿐이었지-

아, 어서 오르자 만수대언덕에
네만이 아닌 우리 집 한생 소원 다 풀어주신
아버이수령님께 큰절을 올리기전엔
진정할수 없구나 고마운 정...

만수대언덕에 오를 때에는
그리도 눈물이 헤프더니
수령님동상 우러러 큰절 올리고
만수대계단을 내릴 때에는
나는듯 뛰는듯 손자들 손목잡고
모란봉에 오른다 우리 어머니

어머니를 반겨 활짝 피였는가
모란봉은 진달래, 살구꽃 한창인데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물위에
물오리 쌍쌍 떼지어 날아예네

눈물도 시름도 말끔히 잊은듯
칠순이 넘은 우리 어머니
난생처음 덩실덩실 춤을 춘다
해녀때 못다 부른 바다의 노래 부르며
부르고부르고싶던 우리 노래 부르며
이국풍상에 얼룩진 얼굴을 들어
아들자랑 딸자랑 우리 노래를
한곡조 멋들어지게 넘기여라

아, 수령님 찾아주신 조국의 품이 있어
희망은 나래치고 푸른 꿈은 꽃으로 피여났어라
한생소원 다 풀린 우리 어머니
수령님 은정에 대를 두고 보답하자
가슴속 진정을 노래에 담아라

조국과 문학

새삶의 탄생과 개화

리복명

조국해방의 폭풍같은 환호속에서 내가 새로운 생의 고고성을 올린 그날부터 어언 40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해방의 은인이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해방이 자유조선의 창공우에 찬연히 비껴내린 그날, 뜨거운 피가 관자노리에 맥박치던 해방의 감격은 오늘도 나를 휩싸안고 심신을 뒤흔든다.

그때의 환희를 다시금 체감할 때마다 일제의 발굽밑에서 신음하던 처절한 민족수난의 나날들이 자연 련상되군한다.

아직 뼈도 채 굳지 않은 예린 애개로 생계를 위한 무거운 짐을 끌며 《산업예비군》의 시진한 흐름속에서 표류하던 그 시절, 왜놈의 질소비료공장에서 나의 아름다운 청춘이 죽어가던 그 시절을 어찌 잊을수 있으랴.

식민지노예로동의 피눈물과 상처에 응혈이 진 나는 분연히 항거의 불을 들었다. 하루 15시간이상의 고역에 시달리고 녹초가 된 몸으로 하숙방의 등잔불밑에서 쓰고 또 써나갔다.

백두산에서 조국광복을 위하여 싸우시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전설적인 소식에 고무된 우리 로동계급의 계급적의식화과정과 로동운동을 반영하려고 시도한것이 처녀작 《질소비료공장》이었다. 《조선일보》에 이 중편소설(당시는 중편소설이었다.)의 4회분이 실린 이튿날 불의에 달려든 일제경찰놈들에게 체포된 나는 홍남경찰서로 압송되었다. 놈들의 모진 고문도 나의 의기는 꺾지 못하였다. 나는 출옥후에 본 작품의 제목을 《초진》이라고 고쳐서 일본의 좌익문학잡지 《문학평론》에 끝내 발표하였다. 이것을 기화로 하여 나는 또다시 일제경찰의 마수에 걸려 옥중고초를 겪었다.

그후에는 나는 《민보의 생활표》, 《오전 3시》, 《주제작업》, 《어둠속에서 주은 스케취》 등등의 작품들로써 항거문학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가혹한 박해와 탄압 속에서 나의 가느다란 붓대는 꺾이고말았다. 꺾치는 옥중생활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여온 나의 젊음은 점점 시들어갔고 나중에는 신병으로 몸져눕게 되어 장진산골에 묻혀버린것이였다. 나의 불우한 인생의 초불은 점점 사위여갔다.

민족수난의 그 세월 나의 운명은 시궁창에 던져

진채 속절없이 으스러져가던 애잔한 들꽃과 다를바가 없었다.

그러나 나의 심장의 박동은 꺼지지 않았으니 그것은 백두산에서 울려오는 희망찬 메아리로부터 받은 충격때문이었다.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께서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며 조국으로 나오신다는 희성같은 소식이 나의 가슴에 굳건한 기둥을 세워주었던것이다.

이런 희망과 신념이 있었기에 나는 일제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을수 있었고 병마와 싸울수 있었다.

1945년 8월 15일 !

해방의 날을 맞이하던 감격을 무슨 말로 완전하게 표현할수 있으랴.

나는 다만 한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작가로서의 새 생명이 태어나던 내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었던 듯싶은 그날의 느낌을 여기에 적을뿐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46년 3월에 북조선문화예술총련맹을 무어주시고 전국각지에 흩어져 암중모색하던 작가들을 친히 부르시여 그 산하에 묶어세워주시였으며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문화인, 예술인들은 새 민주조선 건설에서 지니고있는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의 기발밑에 굳게 단결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작가들에게 보내주신 옥백미가마니를 부여안고 눈물을 흘리던 그날부터 나의 가슴에는 새로운 결의가 차넘쳤다.

나는 붓끝을 고무어쥐고 나의 청춘이 짓밟혔던 고장-그러나 해방후에는 로동계급의 건국의 노래가 울리는 홍남땅으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나는 해방의 기쁨속에 로력적혁신을 일으키는 로동계급의 새로운 정신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창작전투를 벌려나갔다. 이처럼 나는 당의 작가로서의 첫걸음을 뒀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의 해빛아래서 나의 진정한 작가적성명이 태어났고 행복이 시작되었다.

단편소설 《로동일가》도 이 시기에 창작된 작품이다.

나는 이처럼 첫걸음을 내짚었고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포화속을 뚫고 종군의 길을 걸었으며 전후 복구건설시기와 천리마대고조시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는 전기간 당의 문필전사로서의 보람있는 길을 걸어왔다.

조국해방 40돐을 맞은 지금 나는 후더운 심정으로 지난 40년간의 로정을 돌이켜보며 무량한 감회에 잠기군한다.

당의 작가가 되는것보다 더 큰 영광과 행복은 없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배려로 10여개 나라를 방문하면서 수많은 외국작가들과 담화하여보았지만 우리 나라 작가들처럼 당과 국가의 혜택을 받은 작가들은 만나지 못하였다.

나는 지금 팔손을 눈앞에 둔 로년기에 처해있다. 나이는 속일수 없는것이어서 나의 한걸음한걸음이 젊은 시절만 못한것을 한두번만 통감하지 않는다. 나의 피방울마다에 작가적열정이 넘치던 그 시절은 이미 지나가버렸다는 좌절감-이것이 늘그막의 나의

의 고충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 3월 7일과 3월 21일 두차례에 걸쳐 우리 로세대작가들에게 청춘의 활력을 주시는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나의 작가적생명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속에서 재봉춘하였다.

혁명전사는 마땅히 전사의 의리를 다하여야 한다. 반아안은 은정과 배려가 클수록 전사는 충성의 마음으로 그 은덕에 보답할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나의 드림없는 신념이며 각오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안겨주신 청춘의 기백과 열정으로 나는 지금 중편소설 창작에 달라붙었다. 한창나이의 그때처럼 나의 펜은 힘있게 달린다.

이름없는 전사에게 새 삶을 주시고 꽃피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속에서 나는 언제나 창작의 청춘기에 살것이다. 종군의 필봉을 들고 불타는 강을 건느던 그때처럼...

그날을 더듬어볼 때마다

백철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것은 자유이다. 인권도 존엄도 자유를 전제로 한다. 하여 예로부터 수많은 시인들이 가장 빛나는 글귀로 자유를 노래하였으며 혁명가들은 투쟁과 목숨으로 자유의 서사시를 수놓아왔던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밑에서 신음하던 3천만 조선민족은 식민지노예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자유와 해방을 찾았으며 암흑생활에서 벗어나 광명한 새생활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8.15해방!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인민에게 그런 자유를 가져다준 전대미문의 역사적사변이였다.

나는 그것을 립증하는 한가지 체험을 가지고있다.

나는 그때 15살의 애젊은 중학생이였다.

일제말기의 중학생-교복에 일본군전투모와 비슷한 교모를 쓰고 허리반도를 띠고 다리엔 각반을 치고... 어깨에 총만 메면 위불없는 일본군병사의 모습 그대로였다.

우리 말과 글, 성과 이름까지 빼앗고 차림새마저 일본군국주의행색으로 만들어버린 중학교, 거기에 지배한것은 군사적규률로 강요되는 노예적굴종뿐이였다.

폐망직전에 일제는 학업도 폐지해버리고 중학생들을 군사교련과 군사적요구로 제기되는 로력동원

밖에 시키지 않았다.

우리가 끌려나간곳은 무슨 군수공장을 짓는다면서 산중턱을 깎아내리는 토공공사장이였다. 일본인 교무부장 스미도모란놈을 비롯하여 교관과 감독놈들이 어떻게든 악착하게 다몰아쳤던지 며칠전에 밀차를 타고 구배를 내달리다가 전복되는바람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간 동료의 처지가 오히려 부러웠다. 어디 다치기라도 한다면 이 무서운 고역에서 일시나마 면할수 있으면만, 하고.

그런데 그날에만은 그처럼 온몸에 살기를 떠우고 으르르딱딱거리던 스미도모란놈도 보이지 않았다. 폭풍우를 앞둔 정적과도 같이 8월의 폭압속에 모든것이 천귀잡잡하기만 하였다.

그럴 때 물을 길러 갔던 한 친구가 숨이 턱에 닿아 달려와서 일본 《천황》이 라디오로 무조건항복연설을 한다고 알리는것이였다. 하늘이 무너져내렸다고 해도 그렇게는 놀라지 않았을것이다. 우린 서로 마주쳐다보다가 너나없이 시내를 향하여 내달리였다.

시내의 일각, 고성기를 매단 전선대아래엔 사람들이 모여서있었다. 일본놈들은 보이지 않고 신통히도 조선사람들뿐이였다.

고성기에선 목메여 흐느끼는 뜨직뜨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일본놈들이 《현인신》이라고 하면서 매일아침 동쪽을 향하여 궁성요배를 하였던 《천황》이 그렇게도 가련한 목소리의 소유자일줄

이야...

우리는 울음에 젖은 그 목소리로 일제의 운명이 종말을 고했다는것을 직감하였다.

그 순간, 우리의 머리를 친것은 가혹한 《근로동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자유의식이였다. 그것이 어떻게도 강렬하였던지 우리는 서로 얼싸안고 돌아갔다. 교모를 하늘높이 올려던지기도 하고 꿈무늬에 찢던 밥팩을 내던지기도 하면서... 그야말로 자유천지에 나선듯싶었다. 그렇게 자유의식에 사로잡히자 우리를 억눌렀던 일본놈들에 대한 항거의 감정이 치솟아올랐다.

《이젠 스미도모를 안보게 됐어.》

《안보게 된걸로 만족할수 없어, 복수해야 해 !》

《옳다 ! 스미도모 치러 가자 !》

한순간에 분화구는 터졌다.

스미도모네 집을 향하여 달리는 우리들의 머리우에선 곡괭이, 삽 등 공사장의 공구들이 란무하였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나의 가슴은 환희로 들끓는다. 그것은 우리를 억눌렀던 강권의 소유자를 복수한 통쾌감때문만이 아니다. 그 무시무시한 군사규율에 얽매어 숨도 크게 쉬지 못하였던 15살또래가 한순간에 그것을 박차고 나설수 있는 슬기와 용맹을 안겨준 8.15해방의 감격이 그렇듯 컸기때문이다.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가져다주신 8.15해방은 우리 인민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킨 역사적사변이였다.

그때로부터 우리 인민은 은혜로운 수령님의 품에

안겨 새 력사창조의 길에 나섰다. 노동자는 공장의 주인으로, 농민은 땅의 주인으로, 녀성들은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 나라의 역군으로... 군사교련에 닥달당하여 일제의 총알받이로밖에 될수 없었던 나 자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열어주신 배움의 길을 마음껏 달려 **김일성** 종합대학까지 마쳤던것이다.

해방의 그날부터 자유천지에 나섰던 우리 인민의 운명에 비낀 그 찬연한 려명을 더듬어볼 때마다 나는 크나큰 흥분을 안고 생각하군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아래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우리 인민의 슬기로운 력사를 산 현실로 후대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의무감과 창조적희열로 하여 나는 작가로 되였다.

장편소설 《우리 마을》을 비롯한 일련의 작품들은 바로 그러한 운명의 전환을 취급한것들이다. 그러나 우리 인민이 창조해온 전환의 력사에 비기면 내가 해놓은 일은 참으로 보잘것이 없다.

우리는 얼마나 거창한 전환의 길을 걸어왔는가. 8.15해방, 평화적민주건설시기,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전후복구건설시기, 사회주의건설시기...

나는 확신한다. 그 누구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은혜로운 조국에서 살아온 보람찬 력사에 대하여 긍지높이 이야기하리라.

40년간의 년륜에 새겨진 그 보람과 긍지를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글귀로 쓰고 또 쓰기 위하여 나는 오늘도 붓끝을 가다듬는다.

조국땅과 더불어

백 하

조국 !

이 말이 그 얼마나 귀중한가를 나는 전쟁의 불길속에서 배웠다. 조국 ! 그것이 나의 피부이며 숨결이며 생명이라는것을 나는 총을 메고 포화를 헤치며 불비속에서 사무치게 깨달았다. 조국땅이 미제야수들의 폭격에 뒤집히고 소이탄에 불타고 우리 인민이 놈들의 총살장에서 무참히 학살당하는것을 목격하고 치를 떨면서 나는 분노의 시를 썼고 복수의 펜을 달리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금도 남녘땅에서는 부모형제들이 놈들의 총칼밑에서 무참히 쓰러지고있습니다.

미제야말로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조국땅이 불연기에 잠긴 1950년여름, 남으로 나가던 나의 부대는 황해남도의 한 조그마한 거리의 길가에서 잠시 휴식을 하였다.

몇시간전에 폭격을 맞은 거리에선 아직도 불이 활활 불고있는데 무너진 정양소의 깨진 벽체의 벽돌무지에선 뜨거운 온천물이 더운 김을 풍기며 솟구치고있었다. 마치도 분노의 용암같이...

무거운 장구류를 진채 그 온천물에 손을 잠근 나의 가슴속에도 참을길없는 분노의 온천물이 솟구치였다. 공화국의 고마운 혜택속에 생전처음 정양의 나날을 보내던 수많은 남녀 근로자들이 그 벽체들 밑에 무참하게 숨을 거둔것이다.

나는 이날 총부력을 그러쥐고 행군하며 증오에 치를 떨면서 시를 구상했고 행군의 실참에 배낭을 책상삼아 원고지에 썼다.

나는 이 시 《정양소앞을 지나며》를 행군길에서 전쟁전에 내가 지도받던 평북도작가동맹에 보냈는데

데 그 시가 발표된 신문을 보게 된것은 이듬해 초였다. 신문에는 작품끝에 《필자는 현재 전선에 출동한 조선인민군 전사임》이라고 써여있었다. 나는 지금도 팔호안에 조그마한 활자로 찍혀진 그 몇자 안되는 글이 잊혀지지 않는다. 나는 그것이 자랑스러웠다. 내가 총을 쏜 전사로서 나의 조국과 심장을 나누기 시작한것이다.

이때 나는 열여덟살이었는데 조국은 나의 가슴에 너무도 많은것을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새겨주었다. 나는 서해의 바다가에서 미제야수들에 의하여 교실에서 공부하던 꿈많은 동창생들을 억울하게 빼앗기였고 엄혹한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험난하고 쓰라린 길도 걸었다. 나는 나의 군화로 온 조국땅을 밟고다니며 압록강의 엄숙한 목소리도 들었고 재진격의 총신을 거머쥐고 원한의 피에 젖은 신천땅을 달리며 분노에 찬 조국의 웨침도 들었다.

아, 조국!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 찾아주신 조국! 이 조국이 없이는 나의 삶도 희망도 없고 우리 인민의 행복도 미래도 없다는 것을 나는 준엄한 전쟁의 불길속에서 심장으로 알았다. 나는 철천의 원수 미제를 쓸어버리지 않고는 조국의 안전도 평화도 없다는것을 투쟁의 진리로 똑똑히 알았다.

미제 야수들은 신천앞에 있는 조그마한 저수지에서만도 800명의 무고한 인민을 학살하였다. 재진격의 길가에서 나는 놈들이 당원들을 불태워 죽인 그 학살터, 저수지기슥의 전호구멍이에서 한 당원의 불에 타다남은 수첩을 발견하였다. 그 수첩 갈피엔 그 어떤 회의 기록이 력력하였다. 나는 한 당원의 그 수첩을 부르짖고 부르짖었다.

《동무여, 내가 이 수첩을 계속해 써주리라!》

그렇다. 나는 이 수첩의 기록들에 계속해서 복수의 글, 복수의 시를 쓰고 또 쓰리라! 나는 미제야수들을 징벌하는 시들을 쓰고 또 썼다.

나는 전후에 그 원한의 신천땅을 거쳐 서해의 바다가, 나의 전우들을 잃은 그 바다가에 가서 시도 썼다.

얼마전에 나는 황해남도 은틀광산에 현지체험을 나갔는데 청년광부 어구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나의 두눈엔 다시 불이 일기 시작했다. 그곳엔 언덕우에 또 하나의 언덕이 솟아난듯 커다란 600명 애국자의 합장묘가 솟아있었다. 높이 선 묘비에는 《애국자묘비》라고 써여 있었다.

조국땅은 오늘도 미제야수들의 귀족같은 만행을 고발하고있었다.

미제에 대한 증오, 이것은 나의 시의 영원한 주제이다. 바로 그 애국자들의 합장묘 아래 청년광구의 분쇄장이 자리잡았는데 그곳으로부터 산을 뚫고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가 조국의 동맥처럼 치달아오르고있었다.

그것은 마치도 그 불타는 증오를 안고 끝없이 솟구쳐오르는듯하였다.

그렇다. 피끓는 조국의 동맥은 철천의 원수 미제에 대한 증오를 안고 사회주의건설장으로, 조국의 통일으로 줄달음치고있는것이다.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의 끝없는 흐름을 따라 이미 물으로 변한 넓은 길을 걸어 능금섬으로 가는 나의 가슴은 크나큰 걱정과 새로운 맹세로 끓어번졌다.

조국을 통일하려 총을 들고 나섰던 몸, 그 길우에서 창작의 붓을 든 몸, 나는 영원히 이 길에서 글을 쓰고 또 쓰리라.

능금섬을 거쳐 곶섬에 이르니 조국해방 40돐, 당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부림대차는 더 기세높이 돌사태를 폭포처럼 쏟고있었다. 머지않아 이곳에 새땅이 솟아나고 조국의 지도는 고쳐그려지게 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원대한 구상은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조국땅은 끝없이 넓어지고 조국통일은 이룩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한없이 자애로운 품속에서 크나큰 은정을 받아안고 시인으로 자란 나는 그 은덕의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기 위하여 혁명적인 시, 전투적인 시를 쓰고 또 쓰겠다. 나는 전화의 불길속에서 잡은 창작의 붓을 언제나 포화속의 강을 건느던 그날의 그 정신으로 굳게 잡고 열정에 넘쳐 우리 당과 우리 조국에 성실히 복무하겠다.

조국과 인생. 40 년

안동춘

나의 부모들의 반생은 이국땅에서 흘러갔다.

조국이 없는 죄아닌 《죄》로 조상의 분묘가 있고 선조의 땀과 땀이 배인 향토를 떠나 류랑가수처럼 떠돌며 망향의 서글픈 노래속에 인생을 파묻고 살아왔던것이다.

그러나 캄캄한 밤은 려명에 밀려나듯이 인류력사

에 기약된 해방의 봄이 세기의 진동속에 찾아왔다. 바로 이 새봄의 숨결속에서 모든 슬픔과 눈물의 추억을 깨끗이 묻어버리고 조국에 돌아온 부모들에게는 마치 희망찬 새생활의 래일을 약속하듯 새 생명이 태어났던것이다, 이 어린애가 40년전의 나였다.

사람들은 축복속에 나와 나의 동년배들을 《해방

동이》라고 불렀다.

조국도 한살, 나도 한살.

이 조국과 《해방동이》들의 앞길은 과연 어떠할 것인가!...

그때로부터 40년이 흘렀다.

어제날 세계의 망각속에 일부 지리학자나 정치가들의 상식속에만 있던 나의 조국은 오늘 주체의 탑과 더불어 세계 만방에 빛을 뿌리는 강국으로 솟아났다.

가대기를 끝낸 베짖병이의 농민, 찌그러져가는 초가막의 모습으로 구슬퍼 보이던 조국은 벌써 아득한 과거속에 사라져버렸다.

그 과거는 수십층의 고층건물에서나 아담한 농촌 문화주택에서 아이들의 엉덩이를 두드리며 텔레비존이나 보는것으로 소일하는 로인들의 《옛말》에만 남아있을뿐이다.

이 번영하는 조국과 함께 40년전의 《해방동이》들은 나라의 의젓한 주인으로 자라났다.

그리고 나는 조국의 작가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은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어머니입니다.》

돌이켜볼 때 나의 가슴에 가장 뜨겁게 안겨오는 것은 나의 성장의 매 갈피, 나의 인생행로의 매 자욱마다 깃든 사랑과 은덕이다.

나는 지금도 전쟁의 불길속에서 적기의 공습과 함포사격을 피해 산골짜 깊은곳에 지었던 나의 학교를 잊지 못하며 그 산꼭대기에 세워둔 고사포들이 적기를 향해 불을 뿜던 포성을 잊을수 없다. 나는 그 포성을 단순한 전쟁의 소음으로가 아니라 아기를 품어안은 어머니의 자애로 높뛰는 심장의 박동이었다고 말하고싶다.

나는 그 포성과 더불어 지하공장에서 찍혀 먼먼 수백리 폭탄과 포탄의 불비속을 헤쳐온 《우리말》 교과서를 받던 때의 감격을 잊지 못하며 제대병사인 나를 **김일성** 종합대학 청사의 밝은 교실에 불러 작가수업을 시켜주던 그 은정을 영원히 잊을수 없다.

나는 나의 어린시절이 흘러간 조국북단의 농촌에 가거나 수도-평양에 돌아와 화려한 밤거리를 걸을 때면 문득 짜릿한 기쁨속에 휘황한 전번의 오늘에 취한다. 그러며 어제날을 돌이켜본다.

유년시절의 삭막해진 기억속에 광곳광곳 떠다니는 세부들까지 급급히 붙들며... 깊은 신을 신고 달구지를 끌며 오늘에로 출발하던 《발갈이노래》의 주인공들을, 그리고 전쟁의 질풍이 밀려오던날 꺾꺾한 수염으로 나의 불을 문다쳐주고 전선으로 나간 《아저씨》들을, 하루 두끼 좁쌀밥으로도 만족하며 복구건설의 망치를 휘두르던 《형님》들을,

그리고 아스팔트도로밑에 사라져버린 울퉁불퉁한 달구지길들과 30~40층의 건물밑에 묻힌 재가루

와 파편과 불타버린 이 영жил들을...

내가 무엇때문에 부디 작가로 되려 했는가 하는 하나의 대답이 여기에 있다고 본다.

한없는 감사와 사랑으로 우러러받들 조국을, 궁지와 환희속에 자랑할 영광과 승리로 빛나는 조국의 역사를, 그 역사속에 조국이 불러 《참된 아들들》, 《영웅》들이라고 하는 불멸할 초상들을 미숙한 글로나마 그려내어 나의 동년배들과 후대들에게 보이려는 지향이 아니겠는가.

나의 첫 작품이 바로 이렇게 씌어졌다.

병사시절이었다.

나의 한 지휘관은 전쟁시기를 회고하면서 많은 훌륭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재령출신의 《농민》 전사에 대한 실화는 문학청년의 심장을 몹시 흥분시켰다. 자기 한몸마처 부대작전의 안전을 보장한 그 《농민》 전사의 후더분하고 선량한 모습은 꿈에까지 보였다.

그때 나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그들은 오늘의 조국을 위하여, 나와 나의 세대들의 행복을 위하여 숨졌다.

나는 〈**김일성**장군 만세!〉를 웨치며 떠나간 그네들의 모습을 소설에 담아 오늘과 래일에 전하는 것을 필생의 의무로 간주할것이다.》

훈련의 휴식시간이나 경비근무의 여가시간이면 그 전사의 초상을 눈앞에 그리며 흥분하기도 하고 그와 속삭이 기도 했다.

야간 경비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 치미는 창작성충동에 털외투를 벗을념도 않고 방열관옆에 앉아 수첩을 꺼내들고 깨알같은 글씨로 써나갔다. 수첩의 마지막페이지까지 다 쓰고 종이가 모자라 일어나는데 위병장이 급히 문을 열어제쳤다.

《무슨 연기요?》

그때야 나는 내가 입었던 털외투의 밑자락이 방열관에 닿아 거뭇게 그슬린것을 보았다.

나는 다음날 그 《원고》를 정서하여 우리 군인들이 즐겨 읽는 잡지편집부에 투고하였다. 가슴조이며 기다리는데 25일만에 회신이 왔다.

《주체, 구성, 형상이 좋습니다. ...발표합니다.》

사실 그때 나의 기량이나 능력이란건 미숙정도가 아니라 없었다고 하는 표현이 정확할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어 발표될수 있었겠는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전적으로 《원형》의 덕이다. 그 원형이야말로 참된 인간의 미덕을 다 갖춘 영웅의 《전형》이었으며 그의 생활과 투쟁속에 감동적인 《세부》와 《줄거리》여 《극》이 있었기때문이다. 창작의 어려움을 홀시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경우에만은 나는 충실한 《이야기기록자》에 불과했다. 그 원형들은 나의 창작적사색에 불을 지퍼줄 뿐만아니라 사업과 생활의 모범으로 향しが 가까이 있다. 나의 앞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락동강의 불바다를 헤치던 전사들의 모습이 기발처럼 살아있

다.

나는 때로 《동무는 전쟁에 참가도 못한 사람이 왜 전쟁소설일 많이 쓰는가?》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

리유를 여러가지로 설명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자랑하고싶기때문이다. 바로 이 《해방동이》들을 키워준 위대한 품을, 어려운 전쟁을 이겨내고, 또 전쟁의 시련을 겪고도 오늘의 번영을 이룩한 나의 영광스러운 조국

과 인민의 슬기와 힘을.

작가로서의 나의 가장 큰 소원이자 희망은 이 위대한 조국력사의 한페이지라도 참답게 소설에 담아보자는것이다.

나는 조국력사에 가장 준엄한 시련이었던 조국해방전쟁시기를 시대적배경으로 하는 장편소설을 훌륭히 쓰겠다는 맹세로써 해방 40돐을 맞는 조국앞에 공민적인사를 대신한다.

성장과 사변

조필수

위대한 력사적사변을 추억하는 시각에 자기자신을 두고 무엇인가 회고할수 있는 사람은 행복할것이다. 조국해방 40돐을 맞는 경사로운 날에 40년전 그때를 돌이켜보며 조국을 찾기 위한 성전에 자기의 모든것을 바친 사람들은 그날에 지닌 영예를 두고 감회도 깊은것이다. 하지만 나는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이 자유와 재생의 아침을 맞이한 그대에 이 세상에 없었다. 총포탄이 울부짖고 만세소리가 강산을 뒤흔든 해방의 그날도 어지간히 먼일로 되었을무렵에야 나는 태어났다.

그래도 나는 지금 조국이 해방된 그날에 대한 생각으로 자주 사색의 창가에 서있곤한다.

...맑은 나루라고 불리우는 바다기슭은 해당화가 유난스레 دم불을 이뤄 피는탓에 아이들이 정을 붙인 놀이터였다.

나의 어린시절은 파도소리가 우렁차게 울리는 그 해당화밭에서 흘러갔다. 하지만 그 시절에 뛰놀던 일들은 어느결엔가 희미해지고말았다. 물론 황혼이 내린 어슬막에도 불명이처럼 타던 해당화며 수평선너머에서 신비로이 들려오던 배고동소리들이 내 기억속에서 전혀 인연없이 사라져버린것은 아니다. 세상에 부럼없이 흘러간 어린시절은 그 눈부시게 흰 백사장과 꽃향기와 희귀한 조개껍질을 얻으려고 머리가 땀해질 때까지 곤두박히던 푸른 바다와 더불어 지워질수 없는 추억속에 깊이 새겨졌다.

하지만 그 바다기슭을 생각할 때면 그것들보다 먼저 련상되는것이 있어 가슴이 뜨거워지곤한다.

조국해방의 총성이 울리던 성전의 그날에 붉은 기발을 추켜든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말자취가 바로 그 해당화기슭에 찍혔던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민족의 운명이 칠성판에 올랐던 1930년대 초에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영예를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일떠선 우리 나라의 우수한 아들 딸들은 15성상을 하루와 같이 싸워왔으며 이 피

어린 투쟁속에서 그들은 열렬한 혁명가, 우수한 공산주의핵심들로 자라났습니다.》

조국의 최북단에 해방의 첫 기발을 쫓은 항일투사들의 모습은 나의 눈앞에 생생히 그려지곤한다. 세월이 가면갈수록 그 기억은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더더욱 뚜렷해지기만 한다.

어둠의 장막을 찢짖는 섬광, 노예살이로 지겹던 치욕의 밤을 불사르며 타오르는 불길, 노을로 나래쳐오를듯 장쾌히 펼쳐이는 붉은 기발, 그아래 총창을 추켜들고 달리는 투사들...

나는 그 거대하고 숭엄한 인간의 모습을 아버지한테서 들은듯싶다. 하지만 꼭 아버지한테서만 들은것은 아니였다.

구수한 옛이야기는 바다기슭에 웅크리고 앉아 주낙뗏으로 여생을 즐기는 늙은이들에게서도 들을수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속에는 조국이 없던 먼 옛적의 슬픔도 있고 조국을 찾아준 위대한 은덕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마음도 뜨겁게 어려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직접 본 투사들의 모습을 북방의 투박하고 거친 말씨로 그림처럼 내 눈앞에 그려주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날이면 어린 마음마저 숭엄히 설레이는것이여서 나는 깊숙이 머리를 숙이고 어른들처럼 해지도록 바다기슭을 홀로 거닐곤하였다. 그러느라 노예로 사느니 조국을 찾는 싸움에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다 바쳐야 함을 남먼저 깨달은 항일선렬들의 모습이 맑디맑은 물결속에서 우련히 비쳐오르곤하였다. 정녕 거대하고 숭엄한 영웅들의 모습이였다. 자주성이 인간의 생명임을 자각한다면 누구든 자기를 해방할수 있다는것을 이 세상에서 제일먼저 증명한 투사들의 모습이였다.

전대미문의 간고한 싸움으로 인민에게 무궁한 힘이 있음을 증명한 선렬들의 모습이였다.

물론 그 시절에 이런 생각을 한것은 아니였다. 만복을 다 누린 어린시절이 끝나고 청춘시절이 시작되었을 때에 나는 비로소 내가 인간을 거대하게 느

끼고있음을 알게 되었다.

원썬들과 총구를 맞대고 보내고 또 보낸 그 긴 병사시절의 밤들에 나는 내가 지켜선 조국에 대해서 생각하곤하였다. 그러면 조국을 찾기 위한 영광찬 투쟁의 력사가 나의 눈앞으로 굽이쳐흘러가군했다. 어린시절부터 어렴풋이 느끼던 고결하고 거대한 인간들의 군상이 조국해방의 력사와 더불어 분명하고 뚜렷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우러르는 혁명의 길에서만 인간의 행복과 영예를 누릴수 있음을 심장으로 느낀 그들이야말로 내가 일생을 다해 되고저 하는 최고형의 인간의 모습이었다.

세월은 흘러 나는 희망대로 작가가 되었다. 나를 작가로 키우기 위해 은혜로운 우리 당과 조국이 베풀고 또 베풀어 준 태양의 빛과도 같은 은정에 대해

서는 이루 다 이야기할수 없다.

나는 내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한다. 붓을 들고 사색에 잠기면 언제나 거대하고 고결한 인간들의 모습이 나의 눈앞에 나타나군한다. 그러면 심장은 뛰고 났은 황홀한 령감으로 불타오른다.

나는 리상속에서가 아니라 현실속에서 그 누구든 반하지 않을수 없는 인간들을 무수히 볼수 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시대의 작가들의 전도는 휘황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조국의 력사가 인간중심의 사상으로 이루어진 덕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힘있는 인간을 그리고싶었던 작가들의 소원이 비로소 풀린셈이다.

이것이 조국해방 40돐을 맞는 뜻깊은 시각에 자기를 두고 하게 되는 생각이였다.

8월의 아침에

방만필

군모의 오각별이며
군복단추를 닦으면서도
마음 진정할수 없구나
열병식장으로 나가는 이 아침

앞가슴에 주련이 단
훈장이며 메달들 바라보며
조용히 군모를 쓰는 순간
아! 저울에 비껴오는 반백의 머리
군복을 입던 마흔해전 그날에도
추억의 갈피갈피 번쳐주누나

그 언제던가
내 첫 열병대오에 섰던 그날은
보안간부훈련소의 프락을 지나
눈덮인 2월의 광장을 행진해갔지

준엄하였어라
총진 수호자의 길은
박격포가를 메고 포화속을 헤쳐가던
조국보위의 성스러운 그 길은
세월이 흐른다고 잊을수 있으랴

포연내 배인 군복앞섶에

첫 군공메달을 달고
축포가 터져오르던
전승의 열병광장을 지나
오늘에도 달려온
승리자, 나의 북무련한이어

어깨우에 별이 늘어나고
가슴에 훈장이 하나 둘 빛날 때도
잊을수 없었다
강철의 령장 수령님 손길따라
승리자의 한길만을 달려가던 길
승리자의 환호성 터치던 그 길

총을 쥐고 40년
이제는 내 머리에 흰서리 내렸어도
군복색 오늘도 변함없듯이
그날에 새긴 신념
더더욱 신심넘친 수호자의 이 마음

아, 군모밑에 흰머리 어이 감추랴만
그렇게 살리라
조국이 쉬엣구령을 내리는 날까지
영원히 그 신념 가슴에 안고
영원히 그 자세 잃지 않고

나의 추억 외 2 편

홍현양

가을날 하나 둘 떨어지는
나무잎 단풍잎
가버린 시절 불러주는것 추억이던가
아지랑이 아물대는 저 언덕너머
봄빛속에 스며드는것 추억이던가

토스레웃 한별 입고
류랑의 길 떠나던 소년아
저 아득한곳에서 너는 나를 보며 웃고있구나
달아오른 먼지길에 맨발이 뜨거워
너는 그자리에 아직도 서있느냐

세월은 흘러
어깨우에 떨어지는 나무잎은
그 얼마나 맛있고
들바람에 흩날려간 락엽과 같이
안아줄 품이 없던 내 어린시절이 아니었던가

아, 수양버들 푸른 강변길
아들의 손목에 이끌리는 순간에도
문득 눈에 삼삼한 하나의 모습
토스레웃 입은 소년아

네가 어제날
나였단말이나
그리움속에 살아

못견디게 부르며 목메이며
불밝은 창가에 찾아오는 모습아

내 홀로 너와 만난다
때로 붉어지는 두눈을 닦으며
아, 그런 때면 가슴이 북받쳐
자애로운 수령님의 영상을 우러르며
잠 못드는 이 마음

기쁠 때나
힘겨울 때나
내 너와 만난다
눈물속에 자라난 어제날을 잊지 말라
찾아오는 모습아

가난과 행복이
무엇인가를
이 가슴에 깨우쳐주며
못견디게 파고드는 그 불덩어리
이것이 바로 추억이 아니던가 !

아, 나의 추억이여
자주 찾아와 내 집 문을 두드리며
이 마음속에 깃들여
토스레웃 입은 그 소년이
나였음을 속삭여다오 !

땅

손에 흙을 쥐고 생각한다
눈을 들어 바라보면 끝없는 대지
바람에 흐느적이는 강냉이바다가
있사귀에 정을 담고 속삭인다

불처럼 달아오른 가슴속에
할말을 찾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

땅이여, 땅이여 거센 숨 들이키며
말없는 사랑속에 안아주누나
얼굴에 맺히는 땀방울
날알을 키우는 젖줄기런가
한포기 한포기
사래 긴 이랑을 걸어가면
이삭들이 패는 소리 남먼저 듣는 기쁨

들바람에 살결은 타고
 목청도 하늘처럼 탁 트이니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땅을 가꾸며 알았다
 흘리는 땀이
 이 땅을 지켜 바친 피와 같음을

아, 난알을 가꾸며 매만지는 이 흙
 이것은 떨어져 살수 없는
 집이며 고향
 이것은 농민의 사랑
 한생의 웃음

폭풍이 지나간 뒤에 나서면
 끝없는 정적속에 안아주며
 시간의 흐름을 잊게 하는 땅
 마음씨 곱고 인정미 흐르는 말이
 발머리의 실참에 오고가는 땅

울바자끝에 앓은 잠자리를 보며

먼날의 동심이 웃음속에 살아나
 순간의 기쁨을 마음속에 감아주는 손길
 이것이 어머니인 땅
 이것이 황금빛으로 물들여지는
 가을이 오는 소리

땅을 모른다면
 세상에 태어난 행복 다 알수 있으랴
 손은 들바람에 터갈라져도
 태양을 향한 마음만은
 꽃과 같이 열매와 같이
 말없이 가꿔주는 그 뜻!

땅이여
 구슬같은 땀을 바쳐야
 조국의 향기
 조국의 아름다움
 삶의 참뜻을 너는 새겨주느냐!

긴등벌의 소녀

하루일을 마치고 생가에 오면
 바가지에 철철 물을 담아주는
 긴등벌의 소녀
 한모금 마시면 타는 가슴 젖어든다

조국땅 어데가 좋은가
 생각도 조용한 때 해보았지만
 긴등벌의 소녀가 맞아주는 샘가
 주는 정 물에 담아 고이는 샘가
 여기처럼 좋은곳 어데 있으랴

아, 피눈물이 흘러넘치던 땅에
 원한에 찬 력사를 모르고 자란 소녀
 길가던 나그네
 한사발의 죽물은 얻을수 있었어도
 한모금의 물은 마실수 없다면
 긴등벌의 타던 가슴 소녀는 아는가

주름치마 교복에
 순결한 마음 붉은넥타이에 어려
 땀들이는 마음마다
 따뜻한 정 주는것이 물로 넘치니

소녀가 맞아주는 샘가는
 황금빛 긴등벌을
 긴등벌을 통채로 들어보이는 자리
 물방울마다 어린 무지개빛
 천리벌을 적서준 사랑을 읽는다

아, 긴등벌의 소녀야
 위대한 수령님 사랑이 없었다면
 너의 어린시절
 물장구치는 기쁨마저 타버렸을걸
 땅을 가꿀 희망마저 시들어버렸을걸

조국땅 어데가 좋은가
생각도 조용한 때 해보았지만
원한이 타던곳에

행복이 샘으로 솟아오르니
네가 서있는곳이 제일 좋구나
긴 등벌의 소녀야 !

울기강반의 밤에

서봉제

버들숲의 밤새
깃을 든지 오래고
저 멀리 로야령너머
은하수도 기울은 밤

벌써 그 몇밤을 이어새는
사령부의 불빛을 싣고
울기강의 잔잔한 물소리만
고요의 바닥으로 흐를뿐

통나무로 무은 야전책상
붉은보 펼치신 작전대앞에
세계지도를 마주하시고
이 밤 사령관동지께선
잠시도 움직일줄 모르신다

단 한겹 천막안은
늑늑한 물안개 서리건만
날이 새도록 달리고달리시는
사색의 그끝은 어디신가

세계제패를 꿈꾸는 파쑈의 무리들
간악한 살륙의 총포성에 눌린
피비린 국경과 대륙들을 살피시며
등잔불빛 가물대는 지도의 한점을
지그시 힘주어 짚으시는 작전연필

오지의 원시림
사위는 어둠에 싸여
밤정적 소리없이 스며들어도
어두운 연막속에 가리운
쏘몽국경의 《활힌꼴》

깊은 정적속에 칼을 품고 번뜩이는

일제의 대쏘침공의 검은 속심
땅속에 묻힌 도화선을 타고
미구에 폭발할 세계대전의 불구름
가까운 지평선에서 헤아려보심인가
섬광을 안으신듯 번쩍이시는 안광이여

압제의 사술, 침략의 총칼에
그 어찌 자주의 운명 내 맡기랴
사회주의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하기 위해
이 밤 지도우에 붉은 화살표 그으시고
멸적의 명령서를 작성하시는
혁명의 위대한 사령관 **김일성**동지 !

동북광야 남북만의 방면군대오를
안개의 연막타고 말발굽소리 요란한
대사하격전의 언덕으로 부르시고
로야령과 돈화수림의 대부대들을
배후교란의 대장강애로 진출시킬
일제섬멸의 대작전 펼치셨나니

밤의 정적만을 싣고 흐르던
울기강의 고요한 물결도
장군님의 탁월하신 전략을 안고
잠들었던 침묵을 깨치는가
뒤덮인 어둠의 징막을 열어제끼고
로야령 하늘가에 비낀 붉은 노을이여

아, 국경은 멀고
그 하늘 아득히 멀어도
반제전선의 진두에 높이 서시여
우리 수령님 항일대전의 그 밤에 새기신
위대한 명령서의 빛나는 글발
영원한 천선의 메부리로 솟아났어라

나의 신념의 길

차영도

마음 조용히
더듬어보노라
우리 혁명이 걸어온
그 먼먼 길-

그 길은
내 또한 오늘
어머니당과 운명을 같이해나선
나의 신념의 길!

오, 그것은
봄날의 들길이 아니여라
당이 일찌기
혁명의 천만리라고
나에게 일깨워준 그 길은

천만리! 천만리!
피로써 이 길에 다진 맹세가 있어
우리의 혁명전위들이
쓰러지면 기어서라도 가야 했고
숨이 지면 뉘이라도 가야 했던 길!

움켜쥔 창자속에
생눈을 녹여가던 투사들
력사에 길이 남은 그 한흙의 미시가루로
이 길을 가기도 했다

사선이 막아서면
다진 맹세로 가슴 꿰던 청년전위들은
다시 없을 그 꽃나이드
서슴없이 이 길에 바쳤거니

이름없는 바위밑에
홀로 묻히어도
아, 누운 몸
한치라도 이 길을 이어 누웠더라

오, 혁명의 전위들이
목숨바쳐 이어온 이 길
이 길우에 어찌 나의 작은 말자욱
무심히 놓을수 있으랴

수령님을 따라
우리 혁명이 걸어온 천만리!
당중앙을 길이 받들어
천만의 대오가 나아가는 혁명의 천만리!

멈출수 있으랴
주체의 혈통을 만대에 이어가는
조선의 목숨이며
우리 행복의 전부인 이 길!

이 한목숨
이슬처럼 사라져도 좋다
나의 운명이며 나의 미래인
당중앙을 받들어가는 이 한길이라면

이제 그 어떤 폭우가
나의 앞길에 쏟아지랴 하라
그 어떤 우뢰가
하늘을 무너뜨린다 하라

허나
전사의 의리로 철갑을 두른
내 가슴속 신념은
흔들지 못하리라

당중앙을
천만리 따라나선
나의 신념의 길이어
혁명의 천만리여

천만리! 천만리!
돌아보면 아득히
혁명의 길에 변치 말자 다진
그 맹세가 천만리, 그 신념이 천만리-

아, 못버려!
이 몸의 마지막 그 한오리 피줄까지도
다 이어놓고 사는 어머니당중앙을
천만리 따라나선 나의 이 신념, 이 맹세
내 영원히 못버려!

아 버 지

(쏘련) 이고리 라뻬

첫 평화시기로부터
내 얼마나 자주 바르크입구에 서있곤하였던가
공장의 드눌지 않는 참보부
그 당위원회앞에

총탄자욱 승승한 문쪽에
억센 손은 써넣었더라
아주 큼직하게 《이, 에쓰, 라뻬》
그리고 바로 그말에 《당비서실》이라고

내가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거기에 가면
아버지는 아주 신중히 타이르더라
여기 오지 말거라-
그리고는 점심에 대해선 까마득히 잊더라

그래도 몇시간이고 나는 직일마냥
여달기는 문결에 서있었노라
들어갈 땐 사람들 침울하고
나올 때는 막 기뻐하는것
나는 거기에서 보았노라

때로 사람들 찾아왔다가
아버지가 잠시라도 없으면
내 옷깃을 여며주며 안타까이 물어보더라
아이참, 어데 간지 모르겠느냐-
너의 아버지말이다 !

아버지를 찾는 사람 한둘이라
찾아와 흐느끼는 녀인도 있었더라
허지만 사무실을 나서면서는
꽤 큰소리로 모두에게 말하더라
《그래 진리가 없다고들 했지요...》

모두들 나오고 들어가더라
조끼입은 사람, 혈어빠진 장화신은 사람
때로는 조용히 이야기하고
때로는 사업을 두고 목청 돋구더라

그때 나는 간간이
그 누군가의 석쇄한 목소리를 들곤했노라
《이완 라뻬동지,
로동자들이 왜 우리 말은 안듣고 당신한테 와서만
은...》

내 그대들에게 말로는 다 표현할길 없노라
그때 기쁜 감정이 어떠했던지는
나는 밥먹자고 아버지를 이끌고
엎어질듯 앞장에서 내달렸더라

내게는 영원히 기억되노라
이 기억은 결코 지울수 없으리
아버지와 집에서 퍼먹는 나물국이
어찌나 맛이 좋던지

이때 식탁에는 인차 나았지 않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방으로 부르더라
《그래, 여보, 잠간 하던 일을 그만하오...
나는 우리 애들 배급표를 바치었소...》

어머니의 여윈 손
손에 배급표를 받아드는 순간
《여보, 나와 당신하고 두장뿐이군요.》
어머니는 홀로 세 아이를 기르고있었거니

나와 어린 누이동생 껴안고
어머니는 침대가에 앉았더라
그리고는 탄식만 하더라 《여보, 여보,》
그래 누가 배급표를 더 갖다줄수 있으랴...

나는 자라며 확신했노라
일생을 아버지처럼 살리라
후에는 깨달았노라 단 한번만이라도
그렇게 처신한다는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구경서 역)

푸른잔디

장정춘

추억

우리는 한쪽의 조선화가 걸려있는 복도를 지나 밝고 조용한 밤에 들어갔다. 첫눈에 시선을 끈것은 벽 한면을 온통 가리우고있는 책들 그리고 푸른 꽃병에 꽂혀있는 향기그윽한 정향꽃이었다.

《사람이 늙는다고 마음까지 늙는건 아니지요. 건 그렇습니다. 난 지금두 그 동요시절이 종단말입니다. 거기서 사는것이 내 기쁨이지요. 기자동무는 어떻게 생각할는지...》

아동작가 윤복진은 자기의 방으로 우리를 안내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 아니 우리두 같습니다. 동감입니다.》 우리의 대답에 그도 만족한듯 빙그레 웃었다. 그는 올해 77살이다. 그러나 나이에 비해서는 꽤 정정해 보인다. 다부진 체구에 키는 좀 작은편이나 동실한 얼굴과 약간 벗어진 이마가 인상적이다.

《선생님은 여전히 정정하십니다.》

《네? 뭐라고요?》 그는 귀에 손을 가져다붙이고 큰소리로 물었다. 말을 알아듣지 못한것 같았다.

《꽤 정정하시단말입니다.》 역시 큰소리로 다시 말했다.

《네-에 뭘요. 내 이것두 잘 듣지 못하구...》 그는 자기 귀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몸두 하기가 젊은 사람들만치야 못하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어떤 엄연한 사실 앞에 어쩔수 없어하는 표정과 그리고 장한 일을 했을 때 흔히 아이들에게서 볼수 있는 표정이 어려 있었다. 우리는 다 옳은 말이라고 수긍하고 그와 뭐나 아이처럼 소탈하게 이야기할수 있는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하였다.

아동작가란 언제나 아이들에게만 친숙한것은 아니다. 우리들중 많은 사람들은 아주 어릴적에 벌써 그가 지은 동요들을 부르며 자랐다.

그들은 인젠 다 어른들이 되어 개중에는 60뎡 생일을 지낸 사람들도 있지만...

해방전에는 가난한 아이들의 설음을 노래불렀고 해방후에는 이 땅에 행복을 안아오신 아버지원수님과 당의 크나큰 은덕을 노래불렀다.

《하긴 세상을 잘못 만나면 어릴 때 벌써 마음이 먼저 늙어버리는 때도 있지요. 난 두 세상에서 살아본 사람입니다. 오랜적 얘기지만 내게두 마음이 먼저 늙어버린 그런 때가 있었지요.》

그는 말을 멈추고 창문밖 어데론가를 잠시 내다

보았다. 거기로는 강건너 문수거리의 다층주택들이 멀리 보일뿐이었다. 시선은 거기에 미치고있으나 그는 그 오랜적의 일에 대해서 생각을 더듬는것이 분명하였다.

《난 1908년생입니다. 우리 나라 력사에 치욕의 오점을 남긴 그 저주로운 세월의 전야였지요. 수많은 조선의 아이들이 그늘밑에서 시들어가고있었습니다. 가난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구 어머니들의 얼굴에 비낀 수심은 가셔질날이 없었지요. 자식들은 그 수심을 덜어보려고 너무도 이른 나이에 생활고를 함께 이겨나가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놈의 세월은 어찌도 길던지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그저 가는듯마는듯했지요. 지금이야 하루가 천년맛잡이지요. 그저 썩썩 내달린단말입니다. 아침이 다르구 저녁이 다르지요. 자칫하면 시대에 뒤떨어집니다. 락오자가 되지요.》

《선생님은 처음부터 동요를 썼습니까.》

《아니 나도 처음에는 성인시도 썼고 민요도 썼습니다만 차츰 나와 같은 처지의 조선의 아이들의 정상이 불쌍하더라말입니다. 그 어린것들이 채 피지도 못한채 스러지고 짓밟히는것을 볼 때 난 그들을 대신해서 무엇인가 호소하고싶더군요.》

《동요로서는 첫 작품을 언제 냈습니까?》

우리는 책장안의 많은 책들가운데서 유독 눈길을 끄는 책 하나를 집어들며 물었다. 그것은 나의 동요동시집 《시내물》이었다.

《〈종달새〉라고 그게 내가 15살때니까 아마...》 그는 아래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속으로 연도를 계산하는것 같았다.

《그걸 한번 봤으면 좋겠구만요. 혹시 이 책엔 없는가요?》 우리는 딱히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으면서도 은근한 기대를 가지고 동요동시집 《시내물》을 들어보였다. 그 책의 뚜껑에는 푸른 하늘과 맑은 시내 그리고 물가의 파아란 잔디밭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 잔디밭은 어찌나 깨끗하고 청신한지 막 뽕굴고싶을 지경이었다. 《아니 거긴 없습디다. 그 동요는 내가 외우고있지요.》 그때의 그 동요를 그가 지금도 외우고있을줄은 미처 생각 못했다.

그것은 두 련으로 된 짙막한 3행시였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소박한 동심의 노래였다. 그가 그것을 사내아이처럼 랑송하는것을 들으며 우리는 부지중 웃음이 나가는것을 참았다. 그러나 곧 어떤 숨엄한것이 삼시에 우리를 사로잡는것을 느꼈다. 그것은 눈물겨운 추억에 대한 감회였으며 그의 어제와 오늘에 대한 그리고 한 인간에 대한 경건한 감정이였다.

우리는 여기서 그 동요를 독자들에게 소개하려고 한다.

보리밭에 종달새 봄이 왔다고
은방울 흔들면서 노래하기를
누구든지 같이와 놀고 가래요

처마끝 조롱속에 옛집 그린 새
보리밭을 보면서 슬피 울기를
갈래야 갈수 없는 맨몸이래요

《지금 생각하면 좀더 높일수 있었겠는데 역시 그때는 세계관이 낮았지요.》 그가 말하였다.

물론 옳은 말이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기서 《처마끝 조롱속에 옛집 그린 새》와 같이 매여있는 한 소년, 작가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아니 모든 조선의 아이들의 모습이 거기에 그려져있는것을 보았다. 그 당시 우리 인민들의 처지는 누구나 매인 몸이 아니던가. 갈래야 갈곳 없고 살래야 살곳 없는 어린이들의 슬픔이 거기에 담겨져있었다.

《동요가 좋습니다. 우선 말이 다 부드러운 고유어들이어서 읽을맛이 납니다. 전 동요를 잘 모르지만 아무튼 중요한 문학형태의 하나로 보는데 어떨습니까?》

《시중의 시라는 말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도 동요는 온갖 부산물들을 제거해버린 말하자면 구슬과 같은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교의 극치라 할가.》

《글쎄요. 아무튼 아침이슬처럼 명롱한 빛이 반짝하는게 동요지요. 이슬방울은 작아도 거기엔 우주가 비껴나하지 않습니다. 동요에는 생활이 비껴지요.》

《참 그런데 해방은 남반부에서 맞았는지요?》

우리는 그의 지난 생활에 대한 이야기로 말머리를 돌렸다.

《네, 이젠 40년전의 일로 됐습니다. 36년간의 당국의 설움만 해도 분통이 터지는데 또 5년동안을 미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헛된 삶을 살아온걸 생각하면 지금도 억울함을 금할수 없습니다. 난 단연코 결심하고 장군님 의 품을 찾아 공화국북반부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언제쯤입니까?》

《내가 공화국북반부로 들어온것은 1950년 가을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포연에 잠겼었지요...》

재 생

이 나라의 산과 강은 불타고있었다.

불구름속에 잠긴 하늘, 뭉쳐 끓여져있는 철교들, 파헤쳐진 도로들, 텅빈 농가들, 폐허위에 남은 앙상한 굴뚝들을 그는 수많은 보았다. 무슨 힘이 그때 사선을 헤치고 수백리길을 걸어올수 있게 하였는지

그것은 지금 생각해도 잘 알수 없었다.

그러나 명백한것은 그것이 모든것을 초월한 어떤 거대한 정신의 힘이 아니고서는 안되었다는것이다. 바로 그 불굴의 정신이 그때 그를 지배하고있었으니 그것은 백번 죽어도 장군님의 품속에 안기겠다는 그 정신이었다.

전쟁은 끝났다.

북반부에 들어온 이후 그의 앞에는 그로서는 전혀 생소한 하나의 세계가 펼쳐져있었다. 어데 가나 자연은 아름다웠고 생활은 흥성거렸다. 이웃은 이웃과 화목하였고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였다. 어른들은 다 젊고 근면했으며 아이들은 건강하고 생기발랄하였다.

이것은 이때까지 그가 살아온 세계와는 다른 세계였다.

(아, 이게 내가 어릴적 꿈에 그려보던 그 세계가 아닐가.)

그는 새삶의 도래를 보고있었다. 그는 그것을 환희의 감정을 가지고 맞이하였다.

어느날 그는 소년단원들이 대렬을 지어 행진해가는 모습을 보고 그자리에서 굳어진듯 눈길을 떼지 못했다. 바람에 나뭇기는, 생전 처음보는 소년단원 타이들 그리고 그들의 씩씩하고 독특한 노래소리 그것이 얼마나 장해보이고 대견해보이던지 그는 코등이 시큰해지고 눈물이 불쑥 솟구쳐올랐다.

그는 들쭉이 들쭉이 피어있는 잔디밭에 누워서 풀대를 입에 물고 씹으며 푸른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생각하였다. (나도 저 아이들속에 섞여 목청껏 노래부를수는 없을가. 한번 저 붉은 넥타이를 나도 매여볼수는 없을가.)

바람이 휩-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이마전에 흐트러놓았다. 거기에는 몇오리의 희수희수한것이 섞여있었다. 그는 이미 40대의 장년이었던것이다. 아득히 흘러가버린 그날 그의 첫시의 주인공이었던 조롱속의 종달새의 신세가 그를 아프게 하였다...

《사실 난 그때 글이 잘되지 않더군요.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적어야했는데 어쩐지 나 자신 갑자기 더 늙어진것 같습니다. 어두운 정서에 익숙된 내가 밝은 정서를 담자니 서툴게 되는것도 있었겠지요. 마치 캄캄한곳에 있던 사람이 밝은데로 나오자 눈이 부셔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볼수 없는것처럼말입니다.》 그는 사뭇 깊은 감회에 잠겨있는듯했다.

돌이켜보면 그의 지난 반생은 어둠속에서 흘러가 버리지 않았던가. 아득히 가버린 유년, 소년시절도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청춘시절도 모두 그렇게 흘러가버리고말았다. 그는 아까웠다. 그는 그 모든것을 이제 다시 찾고싶었고 다시 시작하고싶었다.

(시내물이 적서주는 젖줄기를 뿔뿔히 파랗파랗히 돌아나는 푸른 잔디위에 누워서 다정한 공장의 노래를 다시 펼수는 없을가. 시내물처럼 맑고 시내물처럼 깨끗이 없고 시내물처럼 정다운 이 땅의 이름없는 한 소년이 내 다시 될수는 없을가. 아, 내 만약

삶을 다시 살수만 있다면, 내 만약 저 잔디위에 마음껏 뛰구는 철부지아이가 다시 될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러면 나는 방울방울이 그 시내물이 되리라.

나도 이 모든 생활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바치는 충성의 작은 시내물이 되리라. 것처럼 슬프기도 했고 것처럼 억울하기도 했던 지난날의 상처를 씻어내리는 나는 즐기찬 이 땅의 큰 내물이 되리라.)

그의 마음은 끝없이 속삭이고 또 속삭이였다.

그러니 그것은 물론 다 있을수 없는, 실현할수 없는 힘이였다. 그렇지만 그는 그것을 실현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따사로운 손길아래 날로 통성하는 조국에 자기의 아름다운 노래를 바쳐가는 그 투쟁속에서 그는 흘러가버린 청춘시절을 다시 찾았다.

온 나라의 꽃봉오리들에게 돌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사랑속에서 그의 마음도 소년시절을 맞이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어린이들을 위하여서는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습니다.》

어버이수령님과 당의 끝없는 사랑속에서 꽃피는 우리 어린이들의 부럼없는 생활과 무한한 행복은 곧 그의 생활, 그의 행복으로 되였다.

그리하여 그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동요동시들을 다시금 쓰기 시작하였다.

그는 자기의 경탄과 환희의 감정을 동요 《시내물》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시내물이 졸졸
노래하며 흘러가네
푸른 하늘아래로
노래하며 흘러가네

한 굽이를 돌아드니
불탄 산에 새봄 왔네
잔디밭은 다시 돌고
진달래가 방긋 웃네

또 한굽이 돌아드니
새 목장이 생겨났네
어린 양떼 뛰어나와
반겨하며 물마시네

...

굽이굽이 돌고돌아
대동강에 들어서니
새 공장은 우뚝우뚝
우리 평양 일떠서네

그의 마음속의 작은 시내물은 이렇게 새삶의 대하에 합류하기 시작하였다.

모든것은 시작되였다.

(청춘이란 가면 영원히 다시 오지 않는 그런게 아니야.) 하고 그는 속으로 자기 자신과 말하였다. 사람들은 그를 불러 《청춘할아버지》라 하였고 그는 또한 아이들의 《딱친구》가 되였다.

《할아버진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맞히나요?》

그의 동요동시의 열성독자들인 아이들은 자주 이렇게 그에게 묻곤하였다. 그들은 작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할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좋아했던 것이다.

《허 녀석들, 못하는 소리가 없군. 건 내 마음이자 너희들 마음이니까 그런거야. 그리구 너희들 마음이자 내 마음이구.》 하고 그는 껄껄 웃었다.

이 시기에 그는 동요 《아름다운 우리 나라》, 《시내물》을 비롯하여 우리 시대 아동들의 깨끗한 정서를 담은 수많은 동요동시들을 창작하였으며 그리하여 그의 동요동시선집 《아름다운 우리 나라》가 세상에 나올수 있게 되였다.

작가 윤복진은 어느날 우연한 기회에 하늘높이 날아에는 종달새를 본적이 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그의 머리에는 그전날의 종달새의 모습이 떠올랐다. (세상은 얼마나 판이하게 달라졌는가. 그런데도 너는 아직도 그 목청을 자랑하고있단말이나.)

구름장사이로 쏘아지는 금빛해살에 두눈을 가느스름히 뜨고 그때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웅크렸다.

(종달새야, 뽀내지 말아. 이젠 난 네가 부럽지 않아. 내게도 한껏 노래를 펼칠 나의 하늘이 있단다. 끝없이 푸르고 끝없이 즐거운 우리의 하늘이...)

행복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우리는 새삶을 찾기까지 그가 걸어온 운명의 로정들에 대해 그리고 그 과정에 있었던 그의 온갖 체험들과 감정들에 대해 잘 알게 되였다.

시간이 좀 흐른것 같았다.

《이젠 좀 밖에 나가 바람이나 쏘일가요?》 그가 말하였다.

《네, 그렇게 하는게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밖으로 나왔다. 날씨는 무더웠다.

어데선가 들장미의 향기로운 냄새가 이따금 흑흑-불어오는 바람에 실려왔다.

《(나에게 재생의 기쁨을 안겨주고 청춘의 열정과 지혜를 준 당에 내 무엇으로 보답하랴. 나는 내 마음속의 밝은 동심을 샘처럼 퍼내어 가장 진실하고 가장 깨끗한 노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엮으리라.)나는 이렇게 생각했지요. 언제부터인

지 나의 가슴속깊은곳에서는 마음의 고향 만경대에 대한 그리움이 조용히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종당에는 더는 물어둘수 없는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의 마음속 생각을 제일먼저 헤아려준것은 어머니당이였지요. 1955년에 당에서는 나를 만경대협동농장에 현지파견작가로 보내주었습니다.》

우리가 걷는 강반유보도는 깨끗했고 잔디는 물감을 풀어서 들인것처럼 옥색빛이 짙었으며 화단의 탐스런 꽃송이들은 아이들의 얼굴처럼 싱싱하고 아름다웠다. 해별은 다가왔으나 버들그늘밑은 서늘한 기운이 돌았다. 작가 윤복진은 저만치 앞에서 걷고 있다.

땅을 내려다보는것은 아니지만 상반신을 약간 앞으로 기울일사 하고 걷는 그 자세며 주로 몸뒤로 많이 가져가는 두팔의 활개질은 앞으로만 나아가려는 그의 마음의 상태를 말해주는듯했다. 우리는 강물이 손벽을 치며 달려와 부딪치는 물녀의 들의자에 앉았다. 머리우 나무가지에서 아카시아꽃잎이 떨어져 물우에 둥둥 떠내려갔다.

《그럼요. 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온 세상사람들이 우러르는 마음의 고향이 아닙니까. 한번만 가보았으면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는 그 만경대에서 난 9년동안 생활하였습니다.》

그는 그때의 일을 어제일처럼 회상하였다.

작가 윤복진이 만경대에서 생활하던 때는 우리 농촌이 위대한 전반기에 처해있던 시기였다. 농업협동화가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는 가운데 새로운 영농법이 도입되고 소대신 트랙토르가 밭을 갈았는데 그것은 사실상 낡은 사상과 유습의 잔재까지 갈아엎었다.

그 기간 만경대사람들은 그와 한집안 식구처럼 되었다. 벗은 언제나 동년배들속에만 있는것은 아니였다. 만경대의 소년단원들, 청년들은 그의 가장 친근한 벗들이었다. 작가는 그들의 벗이면서 선생이였고 열성적인 《씨클지도원》이였으며 또한 학생이였다. 그들은 작가에게서 시와 노래를 배웠고 작가는 그들에게서 생활을 배웠다.

그의 마음속의 작은 시내물은 만경대의 푸른 잔디밭을 적시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 김일성원수님의 어린시절 이야기를 들었고 그이의 숨결이 깃들어있고 발자취가 어려있는 유서깊은 땅의 모든것을 새기였다.

대대로 애국의 혈통을 이어온 만경대의 초가집, 들메나무 그리고 가난이 서린 돌절구와 하얀 물동이를 보았다. 여기서 작가 윤복진은 수십년전 김형직선생님과 강반석어머니께서 부르시던 노래소리를 들었으며 어리신 원수님의 랑랑한 글소리와 버

들피리소리, 깊은 밤 물레질소리와 대동강의 여울물소리를 들었다. 자연은 또 얼마나 그를 매혹하였던가. 하루도 못 보고는 견딜수 없는 그리움이 그를 부르고불렀다.

그는 목화송이같은 구름이 둥둥 떠가는 그 푸른 하늘을 좋아하였고 봄잔디와 바위크름과 연분홍빛 아기진달래를 좋아하였다. 거기에는 밤이면 그의 사색을 이끌어간 푸른 물굽이와 반디불 날아돌던 풀쭈이 있었다.

그는 그 모든것들을 끝없이 사랑하였다. 싱그러운 숲의 냄새와 여울물소리를 사랑하였고 소나기온 뒤의 류달리 환해진 산천과 대동강에 비낀 무지개를 사랑하였다. 시와 노래는 사랑의 산물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그의 첫 시들은 태어났다.

소나무 푸르른
만경봉기슭에
복숭아꽃 방긋 웃는
작은 초가집

아침이면 고운 새가
찾아와 노래하고
밝아오는 창문에는
글소리도 높았네

대동강물 감도는
만경봉기슭에
무지개 곱게 비낀
작은 초가집

저녁이면 고운 별이
내려와 비쳐주고
물레소리 베들소리
깊은 밤을 물렀네

이것은 그가 1955년에 쓴 시 《만경대초가집》의 일부다.

이시기 그는 《만경대는 우리 고향》, 《학습터에서》, 《복숭아》, 《무지개》, 《만경대의 우물》 등 많은 동요들과 동시들을 창작하였다.

드디어 그의 동요동시집 《아름다운 만경대》가 출판되어 온 나라의 어린이들과 광범한 독자들속에서 애독되게 되었다.

그는 동요동시뿐만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의 어린시절 이야기를 직접 들려줄수 있는 다른 형식의 글을 쓸것을 계획하였다.

그는 자주 그 숭고하고 깊은 뜻이 어린 사적에

비추어보면 자기의 붓이 너무도 보잘것 없고 힘이 없어보였다. 그는 자기의 목소리가 그 위대성을 격조높이 뽑지 못하는것을 안타까와했으며 자기의 시상이 그 성스러운 세계의 높이에 이르지 못하는것을 고민하였다. 그는 이따금 자기의 창작이 외람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였다. 바로 그 과정은 그의 정신적성장의 과정이기도 하였다. 이런속에서 그는 자기의 충성의 열정을 담아 쓴 이야기 책 《김일성원수님의 어린시절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을수 있게 되었다.

《이건 다 물론 나자신의 노력의 열매로 나는 생각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저의 한결음한결음을 손잡아 이끌어준 당의 따뜻한 보살핌과 사랑이 깃들여있고 높은 뜻이 어려있지요.》

소원

《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불시에 우리는 새별눈들이 초롱초롱한 한패의 꼬마들의 포위속에 들었다. 사내아이 두명과 머리에 리본을 곁게 엮은 처녀애들 세넷이 우리를 둘러쌌다.

《오 년 옥이구나, 넌 인철이... 원 이런 일 봤나. 모두들 날 찾아오겠나?... 응 그래.》

그들은 다 그의 《손자》, 《손녀》들이었다. 그들의 가슴에선 작가가 그전날 것처럼 부러워했던 붉은넥타이가 자랑스럽게 펴려있고있었다.

《오늘은 좀 먼저들 가있거라. 나한테 손님이 찾아왔어.》

새별눈들은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즐거운듯 웃으며 저쪽으로 달려갔다.

《내 친구들이지요.》 아이들을 바라보며 그가 말하였다.

《친구들이 많습니까?》 내가 물었다.

《많지요. 그래서 난 늙지 않는가 봅니다.》

이 순간 우리는 아동작가들처럼 행복한 사람들은 없지 않을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그들이 언제나 아이들속에 있기때문만이 아니라 그들 자신도 또한 아이들의 마음이 되기때문이었다.

그래서인지 작가 윤복진은 아직도 고스란히 맑은 동심을 간직하고 동요동시들을 구상도 하고 쓰기도 한다.

《참 선생님이 요즘 큰 책을 하나 써서 출판사에 넘겼다고 하는데 건 제목이 뭐니까?》

《큰 책은 무슨... 차라리 작은 책이지요. 제목은 〈시에 대한 이야기〉인데 부제로 〈나의 동요창작 경험〉이라고 달았습니다.》

《대체로 무슨 문제가 취급되고있습니까?》

《그건 단순한 시창작의 수법상 문제만이 아니고 난 거기에 나의 지향과 감정을 담으려고 애썼습니다.》

《원고지로 몇배나 됩니까?》

《1,400매가량 되지요.》

그는 아주 평범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80고개를 바라보는 고령에 1,400매의 원고를 집필해서 넘긴다는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는가.

《정말 큰걸 쓰셨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감탄했다.

《그게 무슨 대단한게라고...》

그는 천천히 옮겨놓는 자기의 발걸음을 내려다보는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번에는 땅을 내려다보는것인지 좌우간 그 얼굴에는 생각깊은 표정이 어려있었다.

《내가 누려온 삶과 내가 받아온 사랑에 비하면야 그게 뭐겠습니까.》

푸르청청한 수양버들의 잎새들이 햇빛에 번쩍번쩍 빛나면서 우리의 어깨를 스쳐지나갔다.

《아무것도 아니지요. 내가 한 일은 너무도 적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제껏 받아안은 사랑과 은정에 대하여 감명깊게 이야기하였다.

그가 받은 메달이며 훈장이며 선물들 그리고 그 모든 사랑의 이야기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 모든 사랑의 깊은 뜻에 대해 다 전하기는 어렵다.

아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을 어찌 한두마디의 말이나 글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거기에는 우리 작가들 매 한사람 한사람을 귀중히 여기시고 아끼시며 손잡아 걸음마 태워주시고 한품에 안아키워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고결한 뜻이 어려있으며 사랑이 담겨져있다.

작가 윤복진에게는 영원히 대를 두고 잇을수 없는 뜻깊은 날이 있다.

그것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그의 나이가 만 70살이 되는 날 그에게 70돐 생일상을 차려주시였으며 그가 귀를 잘 듣지 못한다는것을 아시고는 사랑의 보청기까지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보내주신 70돐 생일상을 받았을 때 그는 울었다. 어찌한 자기의 한생이 돌이켜졌다.

...그도 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홍안의 소년이던 그 시절부터 하나의 소중한 꿈을 간직하고있었다.

그는 무엇을 소원했고 무엇을 기다렸던가.

그가 과연 70고령에 이르도록 그렇게 오래 이 땅

에서 생을 누리고있을 자신의 모습을 그때 그려 볼 수 있었던가. 그리고 먼 후날 자기앞에 차례지게 될 이런 70돌 생일상과 이런 영광의 자리를 그는 생각한적이 있었던가.

부황이든 어머니의 얼굴에서 시시로 생명을 위협하는 기아의 그림자를 보았고 생일이라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있던 그 어머니의 눈앞에서 눈물이 펴 도는 얼굴을 열린 옆으로 돌려버리지 않았던가. 그는 하다못해 보리밭의 그 종달새를 그리워하지 않았던가. 자기는 매인 몸이라고 몸부림치지 않았던가. 그후 그는 세상의 시시비비를 듣기 싫어서 환히 잘 들리는 두귀를 손바닥으로 싸쥐고 혼자 울지 않았던가.

그런데 오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에게 보청기를 보내주시었다.

별로 못듣는것도 없는 그의 귀를 더 밝게 해주시려고 그이께서 어머니처럼 세심히 넘려하여 보내주시었다.

세상에 은정이면 이보다 더 큰 은정이 어데있고

자애이면 이보다 더 큰 자애가 어데 있으랴.

사랑의 보청기를 받아안은 그날부터 그는 다시 모든것을 더 푹푹히 들었다.

깊은 밤 자정에 들려오는 조국의 거창한 숨결을 들었고 백두산의 자장가소리와 동해의 파도소리를 들었으며 남녘아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는 봄날 공원의자에서 들려오는 책장 번지는 소리를 들었고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날아다니는벌들의 봉봉 하는 날개질소리를 들었으며 산원의 창가에서 새로 태어나는 아기의 울음소리와 학교아이들의 랑랑한 글소리를 들었다.

온갖 아름다운 음향과 온갖 부드러운 선물들이 그의 삶의 희열을 웅숭게 하였고 그의 행복을, 그의 소원을 아뢰는듯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헤어졌다.

그는 손을 들어 나를 바래주었다.

푸른 잔디밭이 그의 뒤에 펼쳐져있었다. 거기에는 그의 소원도 어려있는듯했다.

오늘도 승무의 길 달려가는...

김휘조

오늘도 서둘러 승무의 길 달려가는
우리 전기기관차 운전실엔
꽃테 눈부신 조선지도가 있다
꿈많은 젊은 조사 그 언젠가
력서와 함께 벽에 건 지도

나래돌린 이 마음 먼저
지도우에 앞서 달리며
내 오늘도 기관차를 몰아간다
석탄이며 원목, 비날론 숨을 싣고
기적소리 멀리 푸른 하늘에 울리며

기운차게 달려가는 철길 저 앞에선
쇠돌이 소리치며 깨어나는 산정에
기발처럼 노을 붉은 철의 지구에
어서 오라고 어서 오라고
광부들 용해공들 날 부르는듯

기다리는 마음 재촉하는 마음
끝이 없어 수송길도 끝이 없는가
멀리 가까이
비약의 큰 숨쉬는 일터와 일터들이
혁신의 불길높은 일터와 일터들이
하나의 구내로 이어지는 철길이어

이 땅의 가장 큰 길을 내가 달리누나
석탄과 함께 열을 싣고 빛을 싣고
비날론숨과 함께 봄을 싣고 꽃을 싣고...
두줄기 철길을 내가 가누나

어서가자 쇠바퀴소리 세차게
전변에 찬 이 땅에 더 벅찬 힘을 주며
오늘도 서둘러 승무의 길 달려가는
우리 전기기관차 운전실엔
꽃테 눈부신 조선지도가 있다
더 황홀하게 변할 조국이 있다

단 추

장수근

얼마전 나는 X군에 갔다가 한 공화국영웅과 만났었다.

《왔던길에 김XX영웅을 만나 단추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글감이 될지 모릅니다.》

군당선전부 지도원이 이렇게 권고하였다.

《무슨 단추데요?》

《가보면 알게 될겁니다. 우리 군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요.》

이렇게 대답한 그는 의미있게 웃었다.

아닐세나, 내가 찾아온 연유를 밝히자 제대군관인 영웅은 벽장에서 훈장쪽 비슷한 자주빛 비닐팩을 꺼내놓는 것이었다.

《이게 바로 그 단추라는 것입니다.》

그는 뚜껑을 열더니 밑팩에 겹겹이 포개져있는 빨간 비로도천끝을 조심스레 헤쳤다. 마침내 진홍색바탕에 까맣고 동그란것이 형체를 드러냈다.

(아니 단추라니?)

오각별이 부각된 누런 금속단추나 하다못해 보통 단추라도 나올줄 알았는데 천만뜻밖에도 그것은 동그란 토기조각이었다.

실을 꿰 구멍도 없는 그것이 무슨 단추란말인가. 도대체 불품없는 그 《단추》에 무슨 사연이 깃들었길래 이처럼 소중히 간직하고있는것인가.

《어떻습니까? 실물로 보았으니 더 감동이 새로울 겁니다.》

나의 기색을 살피고난 영웅이 입을 열었다.

순간 나는 우리 사이에 오해가 생겼다는것을 깨달았다. 영웅은 내가 모든 사연을 알고온줄로 믿고 있는것이 분명했다.

나는 사실을 말하였다.

《아! 그런걸 난 또. 알겠수다.》

뜻밖에 밝은 어조로 말한 그는 머리를 끄덕이더니 활달한 동작으로 성냥을 그어 담배를 붙여물었다. 그리고는 말없이 담배를 빨며 긴 연기를 내뿜었다.

그 거동에는 내앞에서 새로이 《단추》에 깃든 사연을 터놓게 된것을 다행스레 여기는 소박한 흥분이 느껴졌다.

군대식으로 짧게 깎은 반백의 희숙한 머리, 우람한 체구에 어울리는 침착한 거동, 옛대좌의 위풍이 그대로 풍기는 영웅의 모습이었다.

회고에 잠긴듯 한동안 《단추》를 지켜보고난 영웅은

《그럼 들어보고 흥미를 끌면 한번 써보시우.》

하고 허두를 떼었다. 나는 그의 높은 구술능력과 조리있는 언변에 대뜸 포로되고말았다.

한마디한마디에 깊은 생각을 심듯 천천히 읊기는 은근한 어조, 이따금씩 튀어나오는 병사식 말투, 전화의 날에 갈린듯 석싹한 목소리조차 산전수전다 겪은 로병의 감회깊은 추억에 실감을 더해주는 것이었다.

X

흔히 전쟁이라 하면 어마어마한 폭음과 불기둥이 떠오르기 마련이다. 영화화면을 보고 전쟁을 《배우는》 새세대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럴것이다. 그래서 그 시절에는 사람들이 감기나 이불이, 음식에 체하는것과 같은 잔병은 통 모르고 지난듯이 생각하기가 쉽다. 하지만 그때에도 사람들은 평시와 마찬가지로 그러루한 잡병의 시달림을 받았던것이다. 내가 이제 하려는 이야기도 바로 전쟁이라는 거창한 사변에 대면 지극히 보잘것 없는 사소한 고통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전쟁이 일어난무렵 맹랑하게도 나의 가슴팍에 종치가 생겨났다. 불같은 세월에는 아랑곳없이 중뿔나게 빼여져나온 종치는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부터 말썽을 일으켰고 입대후에도 지지리 고통을 주었다.

게다가 그 고통은 내가 타입은 류별난 군복때문에 덧긋혀졌다. 류별나다고 하는것은 누르무레한 연한 물색이 그러하였고 군복에 달린 형겅단추가 더욱 그랬다. 안에다 무엇인가 넣고 군복천으로 감싸 밀으로 잡아맨 그 단추는 불품없이 투박한데다 촌스럽기 짝이 없었다.

무리로 입대하는 복닥판에서 타입고보니 그런것이 차례졌는데 나밖에도 신수나쁜 군복이 차례진 대원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대렬에 들어서도 그 군복은 표가 났다. 지휘관들은 될수록 우리를 한줄에 몰아세우려고 하였다. 우리는 꼬리없는 황소나 변두없는 수탉처럼 은근히 렬등감을 느꼈다.

하지만 누구도 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백만을 헤아리는 전인민적인 초모사업, 일시에 제기된 그 막대한 수요를 위해 후방이 걸머진 중하를 너무나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더구나 종치때문에 입대의 관문을 가가스로 넘어선 나는 언제 군복의 허물을 캐고 어쩔 제제가 아니었다. 그런 군복도 못입고 후방에 떨어졌다면 그것이야말로 꼬리없는 황소나 변두없는 수탉의 신세

를 면치 못했을것이기때문이다. 하지만 험한 그 기분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공교롭게도 종치가 가운데 단추에 면바로 마치었는데 쇠단추의 갑절이나 두터운 투박한 단추가 점점 커가는 종치를 자극하여 여간만 말쑥하지 않았다.

게다가 보병훈련이라는것은 그저 얄디고 기는것 뿐인데 그럴 때면 정말 죽을맛이었다.

어느덧 나는 제복에 난 종치보다도 투박한 단추를 저주하게 되었다. 하면서도 전선으로 나가는 대오에서 떨어질까봐 전혀 내색하지 않고 혼자서 공공 고통을 감수하였다.

군의소는 물론 위생병의 신세도 안지다보니 그 더운 계절 비지땀이 번지는 군복속에서 종치는 반항이라도 하듯 더욱더 기승을 부렸다.

종치와 함께 단추에 대한 원망도 커지었다.

하루에도 몇번, 종치에다 못하는 화풀이로 단추를 움켜잡고 저주를 퍼부었던가. 그것은 전선부대에 배치된 내가 처음으로 참가한 무명고지전투때 극도에 이르렀다.

나는 전투임무가 제기되자 때를 쓰다실이 습격조에 망라되었다. 역대우같은 몸집과 큰주먹의 덕을 봤다고 하겠는지 어쨌든 그것은 신대원인 나에게 있어서 큰 신임이며 영예였다.

그런데 나는 모처럼 선발된 습격조에서 하마트면 퇴짜를 맞을번했다. 출발을 앞둔 시각 장구류검열을 하던 소대장이 탄띠와 수류탄주머니끈이 엇갈린 가슴한가운데를 잡고 사정없이 흔들었는데 우악진 손이 종치를 다치는바람에 낫을 쥔그리며 악 소리를 지를번했기때문이다. 소대장은 신대원인 나에게 대해 특별히 깐깐히 검열하였던것 같다. 하지만 아무 눈치도 못채고 다음 대원에게 넘어갔다.

날이 어두운것이 다행이었다. 그렇지 않았던들 쩡그린 얼굴때문에 영낙없이 습격조에서 제외되었을것이다.

나는 소리를 참느라 깨문 입술이 짹짹해나는것을 느꼈다. 입술에서 피가 난것이다. 하지만 용케 고비를 넘긴것이 어찌나 다행스러운지 몰랐다. 바로 이 시각을 위하여 이를 악물고 종치의 아픔을 참아오지 않았는가. 그러나 그 기쁨은 너무나 때 이른것이였다. 종치가 끝내 사단을 일으켰던것이다.

은밀히 접근한 습격조가 고지 정점을 눈앞에 둔 마지막 철조망을 극복할 때였다. 그만 나는 종치에 신경을 쓰다나머지 깡통을 건드리고말았다. 난데없는 화점이 불을 뿜고 놀라난 고지의 적들이 미친듯 눈먼총을 쏘아댔다. 조명탄이 대낮처럼 환히 비치였다. 그밑에 습격조는 머리를 박고 었다. 나도 종치의 아픔을 잊고 납작 었드렸다. 비살같은 총탄이 금방 잔등을 꿰고지날것만 같았다. 그때 내가 체험한 착잡한 감정을 어떻게 다 표현하랴.

위기에 처한 습격조앞에 무서운 죄를 지었다는 절망감, 소대장이 종치를 다친 순간에도 입술을 깨

물고 참아낸 내가 어찌하여 긴박한 시각 거기에 생각이 미쳤겠는가 하는 의혹, 총소리가 나자 아픔도 잊고 납작 었드린 자신의 비겁한 몰골.

자신에 대한 극도의 혐오가 머리에 치받쳤다. 그것이 곧 저주로운 단추에 번져 으스스해질듯 단추를 틀어쥐고 이를 갈았다.

그것도 한순간, 까맣게 탄 강마른 얼굴에 피발이 선 소대장의 날카로운 눈이 떠올랐다.

습격조에 넣어준 믿음에 보답하기는커녕 죄를 범하다니, 저지른 잘못을 씻어야 한다. 이 순간만 지나면 영영 치욕을 씻을 기회를 놓치고만다.

이런 각박한 의식이 나로 하여금 무모한 모험으로 떠밀었다. 그 어떤 힘도 그때의 나의 결심을 막을수 없었다.

나는 몰래 앞으로 기여나갔다. 종치의 아픔도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 최후를 각오한 나였다. 벌떡 일어난 나는 비발치는 탄우를 뚫고 비호같이 달려나가며 연거퍼 수류탄을 던졌다.

아픔을 참으면서 극복한 훈련의 덕이라 하겠는지, 저돌적인 나의 행동에 적이 당황하였던지. 기적이 일어났다. 실전에서 처음으로 던진 신대원의 수류탄에 화점이 입을 다물었던것이다. 나는 그것을 행운으로 설명할수밖에 없다. 화점을 까부신데나 자신은 아무일없이 성하였던것이다.

전투총화에서 나는 호된 비판을 받았다. 머리를 숙이고 앉은 나는 모든 화근이 투박한 단추에 있길라도 한듯이 뚫어지게 굽어보며 당장 떼어버리고 무슨 마련을 보리라 마음먹었다.

총화가 끝난 다음 소대장이 나를 불렀다.

나는 당황하였다. 내 손에는 이미 떼여낸 가운데 단추가 쥐여져있었기때문이다.

보고를 받은 소대장은 엄한 기색으로 단추를 바로 채우라고 지적하였다. 할수없이 나는 단추를 내보이고 사연을 실토했다.

의아한 얼굴이 된 소대장은 나의 군복앞설킨 헤치고 상처를 들여다보았다. 대번에 낫을 찌프린 소대장은 한동안 말을 못했다.

《총화에서 모진 말을 했지만 나야말로 눈먼 지휘관이었소. 장구검열때 진작 알아냈어야 하는건데 그냥 끌고갔거든... 하여튼 동무는 지독한 사람이요. 내 이 손으로 잡아흔들 때에도 눈감박 안하고 참아냈으니.》 그리고는 쇠메같은 주먹을 들고 원망스러운듯이 들여다보았다.

《아닙니다. 소대장동지.》

가슴이 뭉클하여 인차 말을 잊지 못한 나는 적구에 들어가서 범한 해이하고 비겁했던 사상적파오에 대해 다시 되풀이하려고 하였다.

《아니요.》 소대장은 내 말을 중동무이시켰다.

《첫 철조망과 지뢰원을 극복한 동무가 적들의 코앞에 있는 철조망에서 종치에 생각이 미친것은 해이성이라기보다 오히려 동무의 대담성을 말해주는

것이요. 첫 계선을 통과하자 동무는 적구라는것도 들어와보니 이렇구나 하는 배심이 생긴것이요. 동무는 범 무서운줄 모르는 하루강아지 같은데가 있지만 어쨌든 하루강아지가 범을 잡았으니 파오는 보상되기도 남은셈이요.》 소대장은 손바닥우의 단추를 내밀고 말을 이었다.

《화근은 어디까지나 종처에 있는건데 단추는 왜 떴소. 제자리에 달아입고 군의소에 가서 치료를 받소. 당당한 영웅의 자격으로말이요.》

나는 쑥스러운 마음으로 단추를 받았다. 단추를 도로 달고 군의소로 갔다. 치료를 받은 덕분에 종처는 인차 굶을 속이고 말끔히 나왔다.

그후 처절한 전투와 희생으로 덧쌓인 시름속에 종처도 단추생각도 가뭇없이 사라졌다.

그러다가 뜻밖에도 그 일을 상기하게 된 우연한 사정과 나는 맞닥들었다.

엄혹한 후퇴의 길에서였다.

락동강계선에서부터 시작된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의 로정이 얼마나 간고하였는가 하는것은 세상에 잘 알려져있다. 그때 겪은 헤아릴수 없는 고생을 이야기하자면 몇밤을 하여도 다하지 못할것이다.

나는 다만 그 과정의 시련을 상징해주는 하나의 생동한 세부만을 언급하고싶다.

바지란 흔히 무릎이 먼저 판이 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군복바지 무릎에도 넓은 천을 덧대었다. 그런데 길없는 야산과 준령을 헤쳐나가는 머나먼 행군길에서 기묘하게도 군복바지 허벅다리가 형편없이 헤어졌다. 그것도 날실이 먼저 닳아빠지고 가로 건너간 씨실만 나들나를 남아있을것이다. 그것은 불과 떨기나무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스러미나 가시가 길아닌 길을 헤쳐간 우리에게 남겨놓은 《요술》이었다.

내가 새삼스레 이 세부를 상기시키는 까닭은 군복바지에 생긴 그 조화를 발견하였을 때 나의 가운데 군복단추가 그 비슷한 꼭질끝에 알속이 빠져달아나 빈 형질만 남았다는것을 말해두기 위해서이다.

옷이 그 지경이 되었으니 사람이 겪은 고생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적들이 강점한 땅은 이미 전날의 평화롭고 행복한 그 향토가 아니었다. 굶은날의 썩은 나무등결에 난 개똥버섯처럼 어중이떠중이 반동나부랭이들이 머리를 쳐들고 제세상을 만만듯이 미쳐날뛰었다.

우리 중대가 북강원도의 한 마을인 복은리에 이른것은 늦가을의 음울한 락조가 험준한 산발에 비칠무렵이었다.

마을은 사람 그림자 하나 볼수 없이 괴괴하였다. 이따금 불안한 정적을 깨치며 짚어대는 개소리가 어딘가 집집에 사람이 숨어살고있다는 기적을 말해주었다. 집이라야 강원도지방의 산간부락이 그러하듯이 떠엄떠엄 널려있었다.

그런속에 우리는 《치안대》간판이 붙은 이전의

리인민위원회자리가 분명한 길옆에 있는 돌기와 집앞에 이르렀다. 처음 보는 괴상한 간판앞에서 우리는 한동안 의아하였다. 마침내 누군가 성급한 동무가 먹물자리가 생생한 구역질 나는 나무간판을 낱창으로 찍어 땅바닥에 땡가당 동맹이쳤다. 우리의 돌연한 출현에 혼비백산한 반동들은 들쥐처럼 들고 뛰여 한눈도 없었다.

바로 그때 리인민위원회열 창고문잠으로 《인민군대동무들 !》 하고 부르는 목메인 소리가 들려왔다. 뒤따라 여럿이 부르짖는 합성과 광광 문두드리는 소리가 울려왔다. 우리는 육 밀려가 총탁으로 자물쇠를 까부시고 창고문을 열었다.

비료가마니며 프랑카드, 선거함, 축등과 같은 잡동사니속에 열댓명 되는 사람들이 갇혀있었다. 그들은 막 쓸어나와 우리에게 매달려 잔등을 두드리며 통곡을 터뜨렸다.

감격의 눈물 비분의 눈물이었다. 한꺼번에 두사람이나 불안고 눈물이 번진 불을 비비는 사람도 있었다. 모두가 리간부나 당원들의 가족들로 거의가 로약자들이었다.

찢기고 터진 험상한 모습은 그들이 받은 모진 악형을 력력히 말해주고있었다. 처음 당하는 일이라 우리는 얼떠름하였다. 그런 가운데 한 녀인이 불쑥 그 무리에서 빠져 행길로 내달리기 시작하였다. 뜻밖의 일이었다.

부르친 종주먹, 찢겨져 너풀거리는 치마자락, 허우적이며 달리는 몸이 뜻대로 몸이 말을 들어주지 않는게 분명했다.

처참한 그 모습에는 필사적인 그 무엇이 느껴졌다. 우리는 의아한 눈으로 녀인의 뒤모습을 바라보았다.

뒤따라 여러 사람이 녀인의 뒤로 와 밀려갔다. 중대장이 나더러 무슨 일인가 가보라고 눈짓으로 지시했다. 나는 곁에 있던 대원(그때 나는 분대장 대리임무를 수행하고있었다.) 한명을 데리고 리인민위원회 마당을 나섰다.

우리는 곧 절록거리는 한 로인을 따라잡았다. 내가 부촉하려고 하자 불수염이 더부룩한 그는 《산목숨이야 일있수?》 하고 강인히 뿌리치고 기가 뻗쳐 내달렸다.

《날벼락을 맞아 꿰질놈들같으니 ! 철없는것들 그렇게 무참히 죽이다니.》

산에다 대고 주먹질하는 그의 말소리가 귀전에 미쳐왔다.

나는 가슴을 엄습하는 섬찍한 비애를 예감하며 걸음을 다그쳤다. 이윽고 행길에서 좀 벗어나 산기슭에 있는 초가집에 이르렀다. 터밭에 거두지 않아서 선채로 마른 강냉이대들이 더러는 허리가 꺾인 채 영성하게 서있었다. 밭에서 추어낸 돌로 쌓은듯 고르롭지 못한 돌각담이 키낫게 집을 두르고있는데 경충한 일각대문이 유포하였다. 그 대문을 넘어뜨

릴듯 사람들이 마당으로 밀려들어갔다.

웅성거리는속에서 《옥별아 ! 옥별아 ! 이게 웬 일이나?》 하고 울부짖는 녀인의 녀두리가 울려왔다. 애통한 곡성은 저물어가는 가을저녁의 음산한 풍경과 어울려 한층 더 비애를 돋우며 애절하게 들리었다. 다른 녀인들도 눈굽을 찍으며 어깨를 떨었다.

방금전 칠성관에서 구원된 그들은 진심으로 녀인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있었다.

대문앞에 멈춰선 나는 녀인의 슬픔을 덜어줄길 없는 자신의 무능을 느끼며 세워진 총을 틀어친채 굳어진듯 서있었다.

견잡을길 없는 련민의 정과 분노가 솟구쳐 가슴속에 태질했다.

어느놈이 무엇때문에 어린것을 무참히 죽였단말인가.

《이것보라구. 놈들이 무슨짓을 저질렀는가. 그 귀축같은놈들이 …》

아까 우리가 따라잡은 로인이 말끝을 흐리며 나를 바라보았다. 흐느끼는 녀인들이 물러서며 내앞을 띄여주었다. 그 순간에 본 비참한 광경을 나는 일생을 두고 잊지 못할것이다.

눈물에 이지러진 피멍이 든 창백한 얼굴, 저주와 비분이 사무친 어머니의 피타는 눈길, 험상한 가슴이 아직도 아픈듯 그우에 작은 종주먹을 엮고 그의 품에 안긴 네댓살 앓음직한 계집애의 시체.

어린것이 제 가슴을 껴안은것은 아마도 죽음의 마지막순간 고통을 위로하고 애무해줄 어머니의 품을 그리다못해 그렇게 팔을 그러안은것 같기도 하였다.

지금 철없는것은 어머니의 그 품에 안기였다. 하지만 눈을 감은채 아무것도 모르고있었다. 체온이 식어 굳어진 어린 딸의 시체를 안고있는 녀인의 가슴은 어떠하랴 !

녀인의 입에서 금방 불같은 말이 나올것만 같았다. 나는 녀인이 나더러 왜 아이를 구원하지 못했는가 문책하는것만 같아 저도 모르게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나 녀인은 아무말 없이 아이를 굶어보고있었다.

달아주려고 길렀는지 소담한 머리채가 어지간히 길게 드리웠다. 별에 그는 볼록한 이마밑의 술이 짙은 살눈섭은 흔히 말하는 머루알같은 까만 눈망울을 련상시켜주었다. 영채를 뿜던 그눈이 더는 어머니를 즐겁게 해주지 못할것이다.

하지만 어머니는 마치나 방금 잠든 어린것이 깨기라도 할세라 조용히 머리며 이마, 도도룩한 코와 입술을 쓸고 또 쓸어주었다. 그러다가 두주먹을 엮어 엮은 작은 가슴을 대충없이 다독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어망치망한 슬픔에 눌러 허우적이는 하염없는 손짓같기도 해보였다.

우리는 말없이 목새기는 그 비애를 덜어주고싶어도 나눌수 없는 안타까움과 슬픔에 눌러 묵묵히 지켜볼뿐이었다.

《자 ! 옥별 엄마, 어수선한 때 이려고만있겠소. 어서 옥별에게 이 옷을 입히라구 !》

어느새 집안에서 가지고 나왔는지 례의 불수염로인이 녀인에게 손에 든 꼬마옷을 내밀었다. 양중스레 지은 때때옷이었다. 아마도 입을 때보다 못에 걸려있는 때가 더 많았던듯 구김살 하나 없었다. 그 옷이야말로 해방동이에겐 안겨졌던 기쁨과 행복이 그대로 아로새겨져있는듯싶었다.

옆의 녀인이 옷을 받아 다가앉았다. 새옷을 본 녀인의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그는 가슴에 엮은 옥별의 한 팔목을 잡았다. 잘룩하게 흙이 진 포동포동한 팔목이 들리자 피묻은 손가락이 드러났다. 그런데 무엇을 쥐였는지 손가락밖에 까만것이 내밀리었다. 녀인은 그 손을 꺾려고 하였다. 꼭 쥔 작은 주먹은 쉽게 꺾이지 않았다. 마침내 단풍잎처럼 편 손바닥우에 까맣고 동그란것이 나타났다. 갑자기 녀인은 두손으로 작은 손을 움켜잡고 흔들었다.

《옥별아 ! 옥별아 ! 네가 끝내 이 단추를 ! … 아버지에게 달아보낸다고 늘쌍 외우던 네가…》

머리를 든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이 손바닥우의 작은 흑점우에 비오듯 쏟아졌다.

(단추라니?) 나는 무심결 나의 군복단추를 굶어보았다. 언제 빠져달아났는지 빈 가운데단추구멍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것을 가리우기라도 하듯 한손이 올라갔다.

저 토기쪼각이 내 가슴에 달린 형겔단추의 알속과 같은 친분을 가진것이 아닐가.

《내 말을 듣게 녀맹위원장, 아픈 가슴을 허빌것 같아 차후에 말하자고 했네만 이자리에서 말해야 할가부네. 군대동무들도 내 말을 귀담아듣게. 실은 이 단추때문에 놈들이 옥별이를 이렇게 만든거라네.》

이렇게 말머리를 뻗 불수염로인의 이야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가슴아픈 사연이 밝혀졌다.

바로 참극이 벌어진 그날 녀맹위원장인 옥별엄마는 녀맹원들을 휘동해가지고 약속된 장소에 다 지은 마지막 동복통구리를 날라가느라 집을 떠나고 없었다.

단추감을 미처 받지 못해 형겔단추를 단 군복이었다. 긴박한 정세로 하여 마을의 공기는 흉흉하였다. 게다가 주민구성이 복잡한 북강원도 최남단에 위치한 복은리였다.

녀맹위원장은 워낙 전선원호사업때문에 집에 붙어있는 날이 거의 없이 나다녔다. 한때 옥별이는 엄마를 따라가겠다고 발을 동동 구르며 떼를 썼었다. 빈집을 지키는것이 싫었던것이다. 혼자서 심심한데도 있었지만 우르릉거리며 기관총을 쏘아 대는 비

행기가 정말 무서웠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어른에게 하듯이 옥별에게 차근차근 일깨워주었다. 어머니는 군대에 나간 아버지가 입을 옷을 만들기 위해 다닌다는것, 군복을 만들어 보내야 아버지가 미국 농비행기를 떨구고 옥별이 보리 집에 온다고 타일렀다. 령리한 어린것은 다시는 때를 쓰지 않았다. 고분고분 집을 지키며 혼자서 놀았다. 이즘은 엄마가 하는 본을 따서 토기단추를 갈며 해를 보냈다. 늘 그 일에 골몰하여 마당에 들어선 어머니도 모르고 토방에 었디여있군하였다. 그러다가는 어머니를 반겨 두손에 제가 간 단추를 들고 자랑하였다. 어머니는 기특한 어린것을 꼭 껴안고 불을 비벼주곤 하였다.

그날도 옥별이는 떠나는 어머니더러 아버지께 보낼 군복단추를 곱게 갈아놓겠다고 재잘대며 손을 까딱까딱 흔들어 바래왔다. 오늘따라 어머니의 마음은 불안스러웠다. 하지만 불의의 재변이 들이닥치리라요 어찌 상상하였으랴. 산에 숨어 돌아가던 반동들과 불순분자들이 그날 비적떼처럼 마을에 쓸어들어왔다. 옥별이네 집에도 몇놈이 달려들었다. 그런데 노리고 온 녀맹위원장은 없고 철없는것이 혼자 토방돌에 마주앉아 무엇인가 갈기에 여념이 없었다.

악이 오른놈들은 옥별이더러 엄마가 어디 갔는가고 삶의 웃음을 치면서 물었다.

《우리 아버지 입을 군대옷 만들려 갔지뵤. 내가 만든 이 단추도 아버지 군복에 단뵤다.》

천진한것은 제가 갈던 단추를 내들고 자랑했다. 놈들을 알아보기엔 너무나도 어린 옥별이었던것이다.

그제야 옥별이 손에 쥔것이 무엇이라느것을 안 놈들은 낮빛이 변하였다. 살기를 띤 한놈이 단추를 보자고 손을 내밀었다. 흥행스러운놈의 눈길에서 무엇인가 느낀 옥별은 등뒤에 두손을 가져간채 눈을 할기며 암팡지게 말했다.

《안돼요. 우리 아버지 이 단추 달고 미국농비행기 떨구는데.》

판에 박은듯이 어머니를 닮은 오달진 옥별이앞에서 악이 치받친놈은 서슴없이 어린 가슴에 대고 빙아쇠를 당겼다.

그것은 복은리에 올린 참화의 첫 총성이였다.

녀인은 다시금 옥별이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몸을 떨며 흐느끼였다.

참국의 자취가 령력한 마당을 더듬던 나는 한 토방돌우에 난 검은 자욱과 마당에 널린 질그릇조각을 띄여보았다. 나는 저도 모르게 그 한조각을 집어들었다. 안쪽에 턱이 진것이 깨어진 이남박임을 알수 있었다. 불현듯 토기조각을 쥔 손이 불덩어리를 쥔것처럼 뜨거워났다. 그제야 나는 옥별이가 두손을 모아안은 까닭을 알것 같았다.

어린 녀속에 얼마나 그것이 귀중했으면 마지막

순간에도 가슴앞에 그러친채 숨졌겠는가 !

나는 그 모든 장면장면이 방금전의 일이런듯 눈앞에 되살아나 으스러질듯 토기조각을 쥔 주먹을 틀어쥐였다.

나는 함께 온 강동무더러 중대에 가서 실정을 보고하게 하고 옥별의 장례를 돕기 위해 남았다.

어차피 내 손으로 옥별이를 묻지 않고는 발길을 뻗수 없는 나였다.

윤씨라고 부르는 불수염로인은 뒤산 양지바른 애솔밭가운데에 옥별의 묘자리를 잡았다. 애솔나무키에 어울리는 작은 봉분이 생기기까지 나는 윤로인의 선도하는대로 묵묵히 일손을 놀렸다.

옥별의 손에 쥐였던 까만 토기단추는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나의 눈에 밝혔다.

《혼자 남아 실컷 울게. 이런 슬픔은 첫 고비에 다 쏟지 못하면 가슴에 멍이 들어 두고두고 맏히느니. 다시는 후련히 실음을 떠올릴 그런 눈물을 흘려보지 못할테니.》

윤로인이 옥별 엄마더러 위로하듯 말하고는 터벅터벅 내리걸었다. 나도 윤로인을 따라 묘지결을 떠났다. 슬픔에 잠긴 젊은 어머니가 딸과 조용히 영결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열은 속단이였다.

빈집에 도로 내려온 나는 녀맹위원장을 기다렸다가 인사라도 하고 떠나리라 마음먹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옥별 엄마가 인차 마당으로 들어오는것이 아닌가. 윤로인과 나는 놀란 눈으로 마주보았다. 녀인이 이처럼 빨리 나타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때문이다.

나는 차마 작별의 말이 떨어지지 않았다.

텅빈집에 그를 남겨두고 갈수가 없었다.

그러는데 망설이고있는 나에게 다가온 녀인이 무엇인가 주뒹거리더니 나를 불렀다.

《군인동무 ! 저 갈길이 바쁘신줄 알지만...》 녀인은 공손히 눈길을 떨구며 말끝을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조용하고 침착한 말소리에서 나는 거역할수 없는 요구를 느끼였다.

《저 그 군복저고리를...》

나는 의아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단추를 달아드리려구...》

(단추?) 나는 떨어진 단추구멍을 내려다보았다.

(그가 언제 이걸 다 알아봤을가.) 어느새 집에 들어갔다 나온 그의 손에는 반질고리가 들려있었다.

쨍쨍하게 바늘에 실을 쥔 녀인은 동그란 단추알을 군복천조각에 소중히 찌었다. 그러더니 한뼘한뼘 꿰매기 시작했다. 녀인의 손은 떨리고있었다.

나의 가슴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 《단추》가 바로 마지막 옥별의 굳어진 손에 쥐여있던 그 토기단추라는것을 직감했기때문이다.

(녀인이 것처럼 바빠 옥별의 무덤결을 떠나 집으로 내려온것은 바로 저 단추를 달아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던가.)

나는 무엇이랴 형언할수 없는 숭엄한 심정이 되어 군복저고리를 벗어 넘겨주었다. 스스로 감격에 휩싸인 나는 가슴의 걱정을 주체할길 없어 대문밖에 나와 발길 가는대로 거닐었다.

질어가는 땅거미속에 개울물 굴러가는 소리가 가까와졌다. 웅달샘에서 새어나온 실개울이 나졌다. 나에게서는 조잘거리는 그 소리가 땅에 묻힌 옥별이 났의 호소처럼 구슬프게 들리었다. 고사리같은 손으로 이 물을 떠마시고 이 물에 얼굴을 씻고 까만 머리채를 함치르르 쓸어넘기였을 옥별이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얼굴도 모르는 내 손에 의해 묻히고 마지막 제가 같던 단추를 내 가슴에 남겨주게 되리라 어찌 어린 뉘이 생각이나 할수 있 었겠는가.

내 마음이 이러할 때 지금 단추를 달며 한뼘한뼘 바느질을 놀리는 너인의 심정이야 과연 어떠할 것인가. 비분에 잠긴 나는 우리에게 불행을 들썩운 낮모를 살인마에 대한 본격으로 몸을 사리며 어둠이 질어가는 산밭을 노려보았다. 어디엔가 독사놈을 숨겨두었으련만 야속한 산은 어둠속에 덤덤히 굽어 불뿐이었다.

마침내 단추를 다 단 너인이 저고리를 들고나왔다.

나는 두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것을 받아 입었다.

비록 어둠속이지만 너인의 뜨거운 눈물자국이 군복저고리 앞가슴에 점두룩이 찍혀있음을 알아보기 어렵지 않았다. 그 눈물자국에서 나는 너인의 절절한 소원을 읽는것만 같았다.

나는 새로 달린 가운데 단추를 꼭 그르쥐었다. 내 손에 옥별의 작은 손을 친것만 같이 손이 뜨거워났다. 아울러 종처로 하여 애먹던 때의 동통이 되살아난듯 가슴이 찢기는 고통을 느끼었다.

형겉단추라고 멋지게 여기고 저주하다못해 내 손으로 떼어내기도 하고 나중에는 흘러버리기까지 한가책만 아니던들 그토록 아픔을 느끼지 않았을는지 모른다.

그 피로움속에서 나는 입대초기 새 군복을 타입을 때에도 미처 못느낀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 새로이 승화되는 자신을 느꼈다.

그 시각에야 비로소 나는 내가 싸우는 이 전쟁의 심각한 의미를 깨닫게 된상싶었다.

옥별이처럼 철없는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 인민이 이 땅에 세워진 우리의 제도를 지켜 목숨바쳐 일떠선 거룩한 싸움!

과연 어느놈이 감히 우리를 굴복시킬수 있다더냐!

실로 이날을 계기로 결패만으로 싸우던 신대원의 때를 벗지 못한 나의 가슴에 인민군전사의 참다운 자각이 묵직이 틀고있었던것이다.

나는 옥별의 단추를 가슴에 달고 천백배 원수를

갚겠노라 너인에게 엄숙히 다짐하였다. 그것은 우리모두의 공동된 심정이었다.

억척같이 행군로를 헤쳐가는 소부대는 놈들의 내장에 들이박힌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다. 북은리에서 쓰라린 교훈을 찾은 우리는 은밀히 주민지에 접근하여 반동들의 무리를 소굴에 몰아넣고 가차없이 소탕해버렸다. 그랬으나 나는 옥별이를 죽인놈을 징벌하지 못한 원한이 서려돌며 언제 한번 마음이 성차본적이 없었다.

그후 새 동복을 갈아입게 되었을 때 나는 《옥별의 단추》를 떼어 그냥 간수하였다. 《옥별의 단추》는 가렬한 전쟁의 나날 나로 하여금 용맹한 사자처럼 복수의 섬멸전에 뛰어들게 하였고 80년세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날의 증오로 가슴을 불태워주고있다.

나는 옥별의 묘를 찾아가보리라던 뜻을 끝내 이루지 못하였다. 전쟁때는 부대를 따라다니느라 그랬고 전후에는 아쉽게도 북은리가 분계선 이남지역에 들어갔기때문이다. 아마 옥별이가 묻힌 작은 묘가의 애솔돌도 이제는 락락장송으로 자랄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면 실로 깊은 감회를 금할수가 없다. 푸르싱싱한 그 숲속에 제명은 고사하고 너무나 어린 나이에 무참히 희생된 애어린 유골이 묻혀있다는것을 알 사람이 있거나 한지.

하지만 옥별이는 오늘도 단추와 함께 나의 가슴속에 살아있다. 솔직히 말하여 나는 언제 한번 옥별이를 떼어놓고 오늘의 자신을 생각해본적이 없다. 그가 심어준 증오의 불씨가 나로 하여금 용맹을 떨치게 하여 내 가슴에 금별이 빛나게 해주었기때문이다. 하기에 나는 수없이 참가한 상봉모임 때마다 내가 어떻게 영웅이 되었는가 하는 전투담을 하기에 앞서 《옥별의 단추》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하군한다.

그것은 겸손이나 도의심에서라기보다 내가 세운 공훈의 기저에 깔려있는 정신적동기를 밝혀야 할 필수적요구로부터 그렇게 한것이다. 정의로운 고무와 추동을 받지 못한 위훈이란 한낱 모험과 객기에 불과한것이 아니겠는가.

그때마다 나는 새세대들앞에 이렇게 덧붙이는것을 잊지 않는다.

나의 공훈을 옥별이모녀와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듯이 우리가 그 엄혹한 전쟁에서 승리할수 있는것도 나와 같은 몇몇 영웅이나 전투원들이 잘 싸워서라기보다 인민의 제도가 선 향토를 지켜 목숨걸고 일떠선 영웅적인민의 위훈이 있었기때문이라는것을...

×

이야기에서 받은 감동이 어찌나 컸던지 나는 《옥별의 단추》를 곁어보며 아무말도 못한채 앉아 있었다. 이 작은 《단추》에 이처럼 사연깊은 이야

기가 담겨있으리라고 어찌 상상이나 할수 있었으랴.

나는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옥별의 단추》를 꺼내여 손바닥우에 놓고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동화에 나오는 신기한 불뭉치처럼 금시 손과 심장을 뜨겁게 해주는것이였다.

나는 가슴에 가져간 영웅의 거울진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바로 이 시각 다 아문 옛상치의 진통이 되살아나 모대기고있는것이 아닌지.

《이 단추에 대한 글이 세상에 나가 사람들에게 읽히운다면 게서 나는 더 바랄것이 없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써보지 않겠습니까?》

《좋은 이야기를 들었으니 보답하는것이 도리라

고됩니다. 장담할수는 없습시다만 재간껏 해보겠습니다.》

나는 담담한 어조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그것이 신성한 의무, 아니 사명이기도 하다는 숭고한 감정이 차올랐다.

《그럼 부탁하겠습니다.》

나는 로병과 굳은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다.

려관에 돌아오자 책상에 마주앉은 나는 격동된 흥분그대로 붓을 달리기 시작하였다. 꾸밈것도, 보탬것도 없이 그저 보고들은대로 쓰기만 하면 되었던것이다.

1985. 6.12

나의 이름

김남걸

피끓던 그 시절
바이 못한 생각
귀밑머리 반백서린 지금
내 때없이 한다

다 자라 집 떠난 자식들
수령님 만나보는
그런 날 그런 때
아버진 누군가 뵈하는가
자애로운 그이의 물으심앞에
내 이름 땃땃이 말 못한다면

가끔 이런 생각에
설친 잠은 그 얼마
마음에 채찍을 얹은 밤은
그 또한 얼마

높은 명예직 바라서도 아니다
조국을 반역한 일도
인생에 치욕을 남긴 일도
그런 삶의 토막이 내게 있어서도 아니다

추억의 골짜기에 두고온
생의 순간순간을 펼치노니
이름이여, 너
사람들 머리우에 기발처럼 나뭇겼던가

이름과 심장
이는 하나
심장이여, 너
무너지는 막장의 암벽
어깨가 부러지게 받들어왔던가
하나밖에 없는 그 심장 바칠 각오로

불을 토하는 화구앞에 서봤던가

이름이여, 이름이여
자식이나 알고있는 이름
이웃도 미처 몰라
친구들 기억속에조차 희미해진다면
편지봉투에나 쓰는 이름이라면
너는 벌써 아버지라는 그 말 지님을 피로워하라

섬광같은 빛, 우뢰같은 소리
이름이여, 네게 없다 해도
로동자이든, 농민이든, 사무원이든
있어도 없어도 되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조국이 꼭 필요를 느끼는 위치가 되게
네 살지 못했다면
자식을 둔것을 부끄러워하라

아버지 되긴 쉬워도
아버지 구실 혈치 앓듯
수령님 전사로 지닌 명예
빛내여가는 길은 혈치 앓아

피끓던 그 시절
바이 못한 생각
귀밑머리 반백서린 지금
내 때없이 한다

수령님 앞에 당 앞에
우리 아버지 누구라고
자식들 땃땃이 말할수 있도록
살고파, 빛내고파
나의 이름

울진형님

승철

급행열차는 가없이 펼쳐진 바다를 끼고 달리었다. 나는 차창가에 앉아 살같이 흘러가는 바깥풍경에 눈을 주고있었다.

열차를 향해 흔드는 바다가해양식공 처녀들의 머리수건이 불꽃처럼 나뭇기며 뒤로 사라지더니 먼 바다로 떠나가는 대형어선들의 운모빛 선체가 아스란히 바라보이었다. 뒤이어 미역바로를 하는 사돌배와 잠수선이 점점이 널린 도래굽이며 덕대와 추너마다에 물고기가 주렁진 어촌마을이 려이어 지나갔다. 하늘중천에서 흐드러지게 쏟아져내리는 봄별은 온 바다와 웃음소리 그치지 않는 차칸에 차고넘치었다.

어떤 파파늑은 할머니를 침대칸에 안내하고 돌아오던 열차원처녀가 내앞에서 멈춰섰다.

《지배인동지도 침대칸으로 옮기십시오. 자리가 있습니다.》

평양과 도에 자주 오르내리면서 알게 된 애어린 열차원은 나를 굳이 일으켜세우려 했다.

《아니, 나는 여기가 장소. 이렇게 손님들과 재미있는 얘기도 나누고 맥주도 마시니 얼마나 장소.》

나는 사양하였다.

맞은켠에 앉은 50대의 남자가 억양이 센 함북말 씨로 내 편역을 들어주었다.

《우리와 함께 가게 봐줍소. 동무따라 강남 간다구 이런 때엔 좋은 길동무이상 반가운게 없다이.》

곁에 있던 다른 손님들까지 한마디씩 곁드는바람에 열차원은 물러갔다.

하긴 나는 차에 올라 몇정거장 지나오는 사이에 벌써 재미있는 길동무들을 사귀었다.

아치령 오지에 있는 협동농장의 작업반장과 강원도 어느 연선군의 자재공급소 지도원, 첫 아들은 낱은 딸을 시집에 데려다주고 온다는 중늙은이...

각이한 직업을 가진 그들에게선 들어볼 소리가 많았다.

특히 농산작업반장의 말이 재미있었다.

열차매대에서 팔아준 맥주바람에 기분이 뜬 그는 이번에 갔던 방식상학에서 배운 새 농사법에 대해서 구수하게 엮어냈는데 그것은 출창 바다에 나가 살다싶이하는 수산사업소 지배인으로서의 좀처럼 들어볼수 없는 새로운 얘기였다.

어찌 그뿐이라.

자재공급소 지도원은 이 몇해어간에 도시 부럽지 않게 때벗이를 한 자기네 군소재지를 자랑했고 중

년너인은 제고장에서 지방원료로 만들어내는 특산 식료품을 침이 마르게 칭찬했다.

《길에 나선 나그네의 말은 반타작으로 들어야 한다.》는 경구가 있기는하지만 그건 옛날 소리이고 우리 길동무들의 매 말마디에서는 그들에게만 고유한 체험과 진실이 감득되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의 현실이며 우리 시대의 벽찬 숨결인것이다. 나는 그것을 느끼는 시간이 더없이 즐거워서 려행길에 오르지만 하면 조용한 침대칸이 아니라 일반 차칸에, 그것도 사람이 제일 많이 오르내리는 가운데칸쯤에 자리를 잡군한다.

열차가 차굴을 빠져나오자 호수처럼 잔잔한 내만을 낀 항구도시의 원경이 펼쳐졌다. 바다쪽으로 빼죽이 내민 방파제와 도시뒤에 병풍처럼 둘러막힌 함경산줄기가 차츰 가까와오며 깊은 정회를 불러일으켰다.

해방전에는 어수선한 정어리공장과 왜놈들의 관사가 계딱지같은 배군들의 집을 굽어보며 우뚝 솟아있던 저 쌍포 포구에서 기구했던 나의 청소년시절이 흘러갔다.

차창밖으로 확확 지나가는 전주들과 어리손치듯 모래불을 활는 물결을 타고 그 시절에 머리속에 새겨둔 모습,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마음속 깊이 살아있는 한사람의 모습이 떠올랐다.

×

해방되기 이태전, 내가 타던 《신강마루》라는 저예망선에는 《울진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중년 사나이가 있었다.

중년이라기보다 청년이라고 해야 할 갓 서른 나이인데도 분수없이 곁늙은 얼굴이 그를 중년으로 보이게 한것이다.

그가 우리 배에 오른지 한달도 못되였지만 선장을 포함한 모든 배사람들은 심덕이 무뎌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칭찬들을 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하늘이 무너진대도 나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듯한 태평스러운 얼굴, 아이 어른 할것없이 무척 좋게만 대하는 뜨뜨미지근한 성미. 더우기는 그가 왜놈 어업주의 하수인인 인사례장의 주선으로 우리 배에 왔다는것이 불쾌했다.

거기에다가 느릿느릿 뇌이는 그의 경상도 사투리가 여간만 역겹지 않았다. 같은 경상도 말씨치고도 류달리 억양이 센데다가 중떠보듯 느리게 올리는

그 말투는 신동히도 우리 아버지가 소작땅을 얻어 부치는 《경주집》 지주놈의 말투와 흡사했던 것이다.

이런 연고로 나는 《울진사람》의 별치않은 말에도 성을 발각 내군하였으며 좋도록 스쳐버릴수 있는 일도 부러 엇가군하였다.

그무렵, 우리 배에는 모두 열한사람이 타고있었는데 좌상인 엄갑득선장으로부터 열아홉살난 밥쟁이(취사원)인 나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조선사람이었다.

사사끼재단 관하의 일본어업주가 운영하는 어선으로서 왜놈식 이름까지 붙인 기관선에 조선사람만이 타고있다는것은 실로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우리 배는 왜놈 선장들이 물고다니는 대구리배(저예망선)들보다 언제나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았으며 어업주의 비위에 거슬리는 일을 한번도하지 않았다는것, 다시말해서 물고기잡이에서나 사람들을 다스리는데서 남다른 수완이 있는 엄갑득선장에 대한 《신입》이 일본어업주로 하여금 이런 레외를 허용케 한것이였다.

우리 배 사람들은 비교적 화목하게 지냈다.

망해가는 일체놈들이 《국방헌납》 이랍시고 부뚜막의 가마까지 뿔아가고 《징병》, 《징용》에 병신들마져 마구 끌여가는 살벌한 때였으나 《보국어업선》이라는 특별허가증까지 갖추고있는 우리 배에서는 큰 경난을 겪지 않고 하루 세끼 입에 풀칠이라도 할수 있었다.

바다에 나가고 들어올적마다 《해상경찰》놈들이 나타나 입출항서류를 검열하고 배칸을 살살이 뒤지는 복새판을 벌리곤했으나 일단 물을 떠나기만 하면 그때위 단련을 받지 않아도 되였다.

룩지와는 아득히 떨어진 난바다에 나가 물고기만 제대로 잡아들이면 판 시비가 없었다.

다만 우리 배를 어업주앞에 책임지고있는 갑득선장이 이따금 달달 뉘으며 잔소리와 욕지거리를 하곤했으나 그좁한 성화는 여반장이였다. 선장 역시 조마구 빨 때부터 배를 타먹던 어부여서 선원들속에서 있는 일을 왜놈들에게 고자바치거나 악하게 구는것은 결코 하지 않았으며 마음이 내킬 때에는 왜놈들의 눈치를 보아가며 선원들에게 판 벌이를 마련해줄줄도 알았다.

이런 선장을 우리들모두는 내심 존경했다.

바로 이러한 우리 배에 정체불명의 《울진사람》이 나타난것이다. 그것도 얼음장같이 차거운 인사제장의 앞선으로...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더는 마음을 쓰지 않기로 결심하고 제 할일만 하였다.

강원도 통천땅에서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나 제편엔 공부를 해보겠다고 온갖 고생과 멀시를 무릅쓰며 전전궁궁하다가 종내 뜻을 못이루고 낯설은 북

관바다에까지 떠밀리여온 나는 비록 대구리 배의 밥쟁이가 되었을망정 속은 시퍼렇게 살아있었다.

(허를 가로물고 죽을지언정 왜놈들과 돈푼있는 자들에게 굽신대지 않을것이다. 어떤 역경속에서도 공부를 하자. 지식은 광명이고 힘이며 신념과 의지의 원천이다. 밝은 앞날을 남먼저 내다보기 위해서도 배워야 한다.)

나는 밥을 짓는 짬짬이 몇권 구해들인 강의록과 참고서들을 열독했다. 특히 수물학계통의 책자들에 눈을 밝히였다.

그러던 어느날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기였다.

독서에 정신이 팔린 나는 밥가마에 부어놓은 물이 불끈 뒤집히며 설설 끓는것도 미처 모르고있었다. 가마뚜껑을 들썩이며 뿔겨나오는 뜨거운 김이 목덜미에 닿는 순간에야 불맛은 노루처럼 화닥닥 튀어일어났다. 쌀을 곧 안쳐야 했으나 황적미는 아직 일지도 않은채 남박에 담겨져있었다. 쌀을 이는 동안이면 물이 다 졸수 있다는 조급성에 사로잡힌 나는 쌀을 그냥 안치기로 결심했다.

《돌이 좀 있으면 입안에서 플라뽀으라지. 그럴다구 밥이 안넘어갈가.》

나는 황적미를 뒤번 행구어 씻고나서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것을 확인하자 솔뚜껑을 열었다. 남박을 기울여 쌀을 막 쏟아넣으려는데 느슨한 말소리가 덜미를 쥐여당기였다.

《일지도 않은 살(쌀)을 그냥 안치면 어찌노?...》

피끗 고개를 돌려보니 《울진사람》이 허를 끝끝 차며 서있었다.

못할짓을 하다가 들킨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도 아닌 《울진사람》의 눈에 이런 꼴을 보였다는것이 역증이 났다.

그는 제깍에 결이 나서 툄툄대는 나를 어이없이 쳐다보더니 내 손에 들린채로 있는 남박을 앗아쥐었다.

그는 무우통같이 실한 팔뚝이 드러나도록 소매를 썩 걷어올리더니 손을 말끔히 씻고나서 쌀을 일기 시작했다.

《썩썩썩 쭈르르... 썩썩썩 쭈르르...》

바가지와 남박을 량손에 갈라쥐고 번갈아 기울이며 쌀을 이는 그 숨씨는 짬진 아낙네 찹찌먹을 지경이였다.

잠간사이에 쌀을 세번이나 일고난 그는 바가지를 잡그어 밥물을 가늠하더니 가마바닥에 쌀을 고루 안치였다. 그리고는 반찬거리까지 군물 한방울 흐르지 않게 깨끗이 손질해주었다.

(어느 료리집 숙수간에서 이다바 《료리사》노릇을 해먹던가봐. 부엌칸 숨씨가 보통아니거든.)

나는 그의 협조를 고마와하기는 고사하고 이렇게 빈정거리였다.

저녁식사를 치르고났을 때 선장이 나를 불렀다.
《희철이도 인젠 우리 배에 온지 뒤편 되지?》
나는 선장이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종잡
지 못한채 얼떨떨히 대답했다.

《열일급살 때 왔으니까 웅근 두해가 넘습니
다.》

《그만하면 바다물게도 퍼그나 텃겠는데 래일부
턴 절장(갑판)에 나와서 일하라구, 밥짓는 일은
(울진사람) 에게 맡기구.》

《그렇게 하지요.》

나는 최하급 선원으로 취급되던 《밥쟁이》로부
터 갑판원으로 승격된것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서
운했다. 취사원때엔 하루 세끼 밥만 끓여주고 나머
지시간은 공부를 할수 있었지만 이제부터 그럴수
없게 된것이다.

불현듯 일지도 않은 쌀을 안치려다가 《울진사
람》에게 들킨 일이며 《오늘저녁 밥맛이 별스레
좋다》고 때없는 과찬을 늘어놓던 선장의 모습이
떠오르며 이 돌발적인 조동은 다름아닌 《울진사
람》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이 이쯤되니 그가 더욱 미워났다.

하지만 어찌는수없이 선장이 시키는대로 했다.

결장일은 밥짓는 일에 비할수 없이 힘들었다. 천
오백발이나 되는 바줄을 바다밑에 원형으로 늘어놓
았다가 그물과 함께 당겨올려 물고기를 퍼실는작업
을 하루에 여러번씩 거듭하고나면 팔다리가 파김
치처럼 느른해지며 육신이 막 쭈서났다.

그렇지만 나는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포구로 돌아오던 어느 늦은밤,

선원실에 앉아서 참고서를 읽고있는데 《울진사
람》이 곁에 왔다. 그는 빨간 색연필로 밑줄을 그어
놓은 공식과 부호들을 송아지 우물 들여다보듯 멍
하니 굽어보더니 시무룩이 웃었다.

《꽤나 공부를 영악스레 하는쿠마. 이답에 박사
라도 될라노?》

내가 찌뿌둥해서 아무 응대도 안하자 그는 내 옆
구리를 툭 다쳤다.

《갑자기 병어리가 났노? 말 좀 하작고. 핵교는
어디까지 다녔노?》

나는 자꾸 말을 시키려는 그가 성가스러워서 툭
명스레 쏘았다.

《어느 학교를 다녔던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요.
상관이?》

그를 원래 달갑지 않게 여기던 나는 나이가 십여
년이나 우인 그에게 《당신》이란 말을 쓰는것도
꺼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별로 타내는 빛이 없었다. 오히려
저쪽구석에 누워있던 갑득선장이 나를 노엽게 쏘아
보았다.

《젊은사람이 무슨놈의 말본생가. 자네는 부모도

없이 돌틈에서 나왔나? 만날 공부를 한다는게 거
꾸로 했구만.》

그러자 《울진사람》은 도리어 미안한듯 나를 변
론했다.

《흠없이 한 말이겠는데 뭐랍니꺼.》

그런데도 선장은 나를 추상같이 나무리었다. 여
느 선원들도 선장의 말에 공감하는듯 나를 언짢게
바라보았다.

하긴 그들이 《울진사람》의 편역을 들만도 했다.

그는 밥을 짓는 짬짬이 결장일을 늘 도와주곤했
는데 힘이 센데다가 축기 또한 여간 빠르지 않아서
한번 눈으로 본 일은 다 할줄 알았다. 배를 몇해 타
야 배울수 있다는 큰산대질도 며칠어간에 손에 익
혔고 마구 찢어진 그물도 곧잘 기워놓곤하였다.

일이 사랑이라구 사람들은 책에 늘 정신이 팔려
있는 나보다 저희네 일을 직심스레 거들어주는
《울진사람》을 좋아할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런저런 꼴을 보지 않으려면 배에서 내려
야겠다고 결심했다. 아무리 험한 세상이기로서니
어디에 가서 제 몸통이 하나 건사 못하랴싶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배에서는 비상한 사건이 일어
났다.

물에서 퍼그나 떨어진 먼 바다에서 가재미잡이를
하던 우리 배는 갑자기 기관이 고장났다. 어업주의
강요로 련일 작업을 들이대며 기관을 혹사하는 바
람에 크랭크메달이 녹아난것이다. 바다우에서는 도
저히 고칠수 없는 치명적인 파손이었다.

배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기관이 떴어버린
《신강마루》는 열한명의 생명을 실은채 정처없이
표류했다.

닷을 펴구고 끝줄이 련결된 테구리그물까지 물에
쳐넣었지만 내륙쪽에서 내부는 《갈바람》이 하도
세차고보니 배는 그냥 떠밀리워갔다.

배가 먼바다로 밀려나갈수록 파도는 점점 더 높
아졌다. 날을 세운 산더미같은 파도에 떠들리운 배
가 하늘을 찌를듯 솟구쳐올랐다가 내려박힐 때면
금시 배밑창이 부서지는듯 벼락치는 소리가 나며
선체가 부르르 떨리었다.

그렇게 련 사흘을 떠가는동안 음료수도 쌀도 다
떨어졌다. 살판치는 풍랑우에 기근까지 덧씌워진것
이다.

웬만한 풍랑은 눈아래 굽어보곤하던 엄갑득선장
도 자기를 잃고 허둥거리기 시작했다. 무리죽음이
불가피하다는것을 느낀 그는 배에서 체일 막내격인
나를 불안더니 닢똥같은 눈물을 툭툭 떨구었다.

《나같은건 제 살만큼 살았으니 이렇다치구 앞이
구만리같은 임자가 불쌍하이. 아 하늘도 무심하
지!...》

선장의 비통한 울부짖음에 뒤이어 거의 모두가
제 가슴을 쥐짚고 태질하듯 덩굴며 별의별 녀두리

와 사설을 다 터쳤다.

바다에서의 참상이 어떤 것인가를 아직 체험해보지 못한 나는 이 아비규환이 꿈만 같았으며 어쩔수 없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 통 믿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무슨 기적이라도 생겨서 다시 땅을 디딜수만 있다면 이 배군놀음을 영영 등쳐버리리라는 한 생각 뿐이었다.

이런 복새판에서도 전이나 다름없이 태연자약한 사람은 오직 《울진사람》뿐이었다.

《무슨 초상이라도 났노? 청승맞게 울기들은… 우선 속들이나 고이소.》

그는 용케 저축해두었던 황적미로 죽을 몇식기 쑤어가지고 와서 고루 나누어주었다.

허기증을 좀 달래고나자 엉망으로 난판이 되었던 배의 분위기가 저으기 수습되었다.

멀건 죽물 몇술갈보다도 철기둥처럼 든직하고 바다가 통채로 뒤집혀도 살구멍은 얼마든지 있다는 듯 여유작작한 《울진사람》의 거동이 배사람들의 리성을 회복하게 한 것이다.

간단한 요기를 끝냈을 때 《울진사람》은 심평 좋게 뇌이였다.

《범한테 물려가도 정신은 잃지 말라하는데 왜들이 법석입니까. 입만 살아있다면 목에 넘길게 없을까요? 마음들을 놓이소.》

《울진사람》은 선원들과의 약속대로 멀정게 쏜 풀죽과 잘게 저민 가재미회로 하루에 세번 요기를 시켰다.

천운이 도왔던지 바람이 자며 바다가 양푼에 물을 떠놓은것처럼 잔잔해졌다.

남아있는 단 하나의 출로는 파도가 잠잠해진 이 기회에 구조선을 청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방 어디를 보나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수평선만이 펼쳐져있을뿐 배 한척 얼씬하지 않았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난 저녁무렵 한척의 기관선이 멀리 나타났다. 뒤이어 또 하나.

우리는 선장이 시키는대로 옷가지를 매단 길다란 장대를 휘두르며 필사적으로 구원을 부르짖었다.

그러나 경영주와 선장의 실무적의사만을 따라 움직이고있을 그 화물선들은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가버리었다.

어느덧 날이 차츰 어두워지면서 먼 바다쪽에 산발같은 매지구름이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또 다시 된바람이 터질 징후였다.

다가오는 밤과 함께 불어닥칠 그 바람은 우리가 다시는 해빛을 못보게 바다속에 영영 처박아버리고 말것이다.

배우에는 또다시 절망의 그늘이 짙게 서리기 시작했다.

바로 이때 한척의 기계배가 혜성처럼 나타났다. 선체에 남색 뺨끼칠을 한 그 배는 물쪽을 향해 상

당히 빠른 속도로 항해하고있었다.

우리는 배에 불을 지펴올리고 장대며 옷가지들을 휘두르며 목에서 피가 뿜겨나오도록 살려달라 부르짖었다.

너무도 처참한 그 정상을 가려보았던지 그 배는 우리쪽으로 돌아섰다.

이젠 살았다고 서로 부둥켜안고 돌아가며 팔을 맞비비는 사이에 그 배는 우리곁에 다가왔다.

마스트와 선장실에 사치한 도색을 한 그 배는 왜놈들만이 탄 소형운반선이었다.

도수높은 무테안경을 낀 그 배의 선장은 우리가 조난된 경위를 자세히 듣고나더니 배를 물에까지 끌어다주면 돈을 얼마나 내겠는가고 물었다.

《죽을 고비를 겪던 우리에게 당장이야 무슨 돈이 있겠소만 끌어다주지만 하면 그 은공을…》

감독선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전에 그놈은 손을 뻗 것더니 선장실로 뛰어올라갔다.

이윽고 그 배는 다기찬 기관소리를 울리며 가던 길로 내빼기 시작했다.

《에익 개새끼들!!》

어금이가 부서지게 이를 앙다문 나는 배장에서 집어든 연돌을 힘껏 내던지였다. 포물선을 그으며 날아간 연돌은 속도를 높이기 시작하는 나마운반선의 현등을 박산냈다.

《쟁가당》하고 유리가 무너져내리는 소리와 함께 온갖 악다구니가 다 쏟아져나왔다.

《빠가야로 !!》

《신데시마우까 ! (똥지고싶은가 !!)》

악에 받친 놈들은 배머리를 돌리더니 우리를 당장 떠박지를듯이 달려왔다.

놈들은 우리 배 가까이에 벗어나서더니 길길이 뛰며 갓은 욕설을 다 퍼냈는데 선장놈은 단검까지 뽑아들고 야단쳤다.

정신이 발칵 뒤집힐만큼 격분한 나는 취사실에서 식칼을 들고 나왔다.

《정신 있어?! 어찌자구이래?》

《울진사람》과 선장이 팔을 부어잡았으나 나는 그들을 뿌리치고 물속에 뛰어들었다.

이래저래 죽을판인데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흥정하는 선장놈을 요정내리라 작정한 것이다.

왜놈들도 올테면 어서 오라는듯 칼을 입에 물고 헤여가는 나를 노려보았다.

거칠게 숨을 헐떡이며 절반쯤 헤여건너갔을 때 등뒤에서 다급한 웨침소리가 울려왔다.

《앗 아! 아아… 빨리 돌아서라. 빨리잇!!》

《청새알이다, 청새알(푸른상어) !!》

자신을 의식하지 못할만큼 악에 받쳐있던 나였지만 난생처음 듣는 무서운 그 고탈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뇌리를 예리하게 자극하는 그 악청에 끌려 고개

를 피곳 돌린 나는 허연 물갈기를 일으키며 이쪽으로 곧추 다가오는 상어의 흉측스러운 지느러미를 보았다. 물에 떨어진 사람만 보면 피를 보고야 물러난다는 그 맹어는 한두마리도 아닌 여러마리의 떼거리였다.

우리 배에서뿐아니라 나를 당장 쳐죽일듯하던 왜놈들까지도 기겁을 하며 악마구리 꼴듯 고아대는 속에 벌써 선두 상어의 톱날같은 이발이 툭툭히 보이었다.

어쩔수없이 상어밥이 되었다는것을 직감한 나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모진 풍랑이 생명을 위협하는 표류속에서도, 입에 칼을 물고 사생결단을 한 순간에도 전혀 안중에 없던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것이다.

극히 짧은 순간에 많은 생각이 떠올랐다. 주접이 들다못해 조글조글 곁눈어버린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에 뒤이어 잡다한 상년들이 번개같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더니 앞이 캄캄해지며 온몸이 노그라지는 무력감이 사지를 가다들게 했다.

점점 희미해가는 웨침소리와 몸가까이에 육박해오는 상어떼...

순간 나의 겨드랑이를 역세게 휘감는 돌덩이같은 근육을 감촉했다. 나는 단말마적인 비명을 지르며 전를했으나 그것이 상어가 아닌 사람의 팔이라는걸 알자 의식을 잃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나는 물으로 향한 배우에서 정신을 차렸다.

제일먼저 눈에 띄운것은 선원실의 낮은 천정에 매달린 남포동과 나를 근심스레 굽어보고있는 《울진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는 내가 눈을 뜨자 좀 푸석푸석해진듯한 눈덕을 손등으로 문대더니 시무룩이 웃었다. 곧 엄갑묵선장과 배사람들이 내곁에 모여들었다.

그들모두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돌아오기나 한듯 나의 두팔에 매달리었다.

그러더니 《울진사람》이 나를 사경에서 구해내던 아슬아슬한 광경이며 그바람에 야자같이 굴던 왜놈선장놈이 대경실색하던 일, 결국 《울진사람》의 의기에 한풀 꺾인 일본배에 끌려서 이렇게 물으로 가고있다고 알려주었다.

어느사이에 밖에 나갔던 《울진사람》이 더운 김이 물물 피여오르는 미음그릇을 수저로 휘저으며 들어왔다.

느릿한 그 움직임은 상어에게 먹히울번한 나를 목숨 내대고 건져냈다가보다 오래뜰에서 장난질을 하다가 무릎을 벗긴 동생을 대하는 형처럼 범상스러웠다.

그렇지만 남다른 티라고는 조금도 나타내지 않은 그의 일거일동에서 어렸을적에 아버지와 어머니에

게서 받아보곤하던 더없이 살뜰하고 따뜻한 정을 온몸으로 느꼈다.

나는 그에게서 받아든 미음물을 눈물과 함께 삼키었다.

배가 부두에 닿자 일본언어업주와 순사가 동시에 나타났다. 레의 인사계장도 따라나왔다.

조난사고의 경위를 세세히 조사하고난 순사놈은 일본선박의 현등을 까부시고도 칼부림까지 하려 했다고 트집을 걸었으나 인사계장은 막다른 곤경에 처했던 《신강마루》의 형편을 재삼 변명하며 나마 운반선측에 손해배상과 후한 차례를 표하겠다고 했다.

순사놈에게 꼭돈까지 찢려주며 구슬려 돌려보내고난 어업주는 난파의 지경에서 《보국어업선》을 구해가지고 온 우리를 《칭찬》했다. 그러더니 배를 빨리 고쳐가지고 다시 바다로 나가라고 했다.

알고보니 쌍포거리에서 제일 큰 료정인 《영락관》에는전에 없이 《대본영》에서 내려온 일본군 장성급들과 《고관》나부랭이들이 줄달아 나드는데 우리 배에서 잡은 물고기를 거기에 대기로 계약되었다는것이였다.

구역질나도록 역심이 이는 일이였으나 배수리를 끝낸 우리는 다시 바다에 나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나는 물을 디디기만 하면 그길로 달아나버리리라 버르던 마음과는 달리 배에 그냥 눌러있었다.

극히 평범하면서도 아직 어느 사람에게서도 볼수 없던 웅심깊고 고결한 그 무엇을 지니고있는 《울진사람》과 떨어지고싶지 않아서였다.

《울진사람》은 전이나 다름없이 밥을 지었고 느릿한 경상도말씨로 사람들과 룡을 주고받았으며 결장일을 도왔다.

나는 그와 매우 가까이 지내며 어떤 때에는 내가 열독하는 참고서의 내용을 그에게 알기 쉽게 얘기해줄기도 했다.

그렇라치면 그는 나의 지식이 부럽다는듯 고개를 끄떡이곤하였는데 나는 그렇듯 어리무런한 그에게서 차츰 류다른것을 체감하기 시작했다.

신망의 빛이 어린것 같으면서도 어떤 명상에 잠기는듯도 한 그의 웅대는 《식자있는 사람》을 높이 쳐다보는 《까막눈》의 응수라고만 볼수 없었다.

어찌 그뿐이라, 아무리 험하고 어려운 고비에서도 리성을 잃지 않는 침착한 행동, 남을 위해선 어떤 수고도 가리지 않으며 필요한 때에는 위험도 무릅쓰고 남을 구해내는 의로운 성미, 그가 우리와 함께 지낸 나날들을 곰곰히 돌이켜보느라니 곁보기엔 심평 좋고 굽튼듯한 그의 일거일동에서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좀처럼 볼수 없는 높은 기품과 불같은 그 무엇이 감득되였다.

그런 느낌이 커갈수록 《울진사람》이 한낱 제밥벌이를 위해 우리 배에 밭을 올려놓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더 커지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눈을 밝혀보아도 그의 행동거지와 일과는 전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좀 달라진 게 있다면 바다에서 돌아온 저녁마다 한참씩 다녀오곤 하던 거리구경시간이 더 길어진 것뿐이었다.

《어디에 밤동무 할 색시를 친해놓은 게 아니냐요?》

능청스러운 나의 이 물음에 《울진사람》은 어깨를 들썩이며 웃어댔다.

《돈도 없고 권세도 없는 나같은 외바람치기에게 우편 가시내가 달라볼겠노. 핫하하...》

나는 실없는 소리를 했다고 여기며 더는 그런 걸 묻지 않았다.

별일이 없이 또 한달이 지나 추운 겨울이 닥쳐왔다.

우리 배는 산토끼처럼 지정된 외통길을 따라 전이나 다름없이 물고기잡이를 다니었다. 쌍포포구... 술섬...메바위곶... 그리고 《알봉내기》라고 불리우는 어장, 바로 이것이 우리 《신강마루》가 늘 다니는 배길이었다.

대체로 여느 선원들은 배가 어랑까지 나가고 들어오는 항해시간에는 선원실에 누워 밀렸던 잠을 봉창하기가 일쑤였지만 《울진사람》만은 취사실 문턱에 걸터앉아 물결너머로 천천히 지나가는 섬이나 도래굽이를 유심히 지켜보곤 하였다.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가림이 없이.

(참 별난 성미야. 눈만 떨어지면 보게 되어있는 그것이 뭐 그리도 구경스럽다구 저다지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어떤 야릇한 의혹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바다에서 돌아오던 우리 배가 술섬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였다.

선원들에게 저녁밥을 먹이고 뒤설것이를 끝낸 《울진사람》이 선장곁에 다가갔다.

입술을 읊뉘며 잠시 머뭇대던 《울진사람》은 힘들게 입을 열었다.

《미안하지만 술섬마을에 배를 좀 대주실수 없을까요?》

《그건 왜?》

《거기에 내 외사촌누이가 사는데 늘 지나다니면서 두 한번도 보지 못했지요. 그래서 잠깐 만나보려고...》

엄감득선장은 전혀 외토리인줄만 알았던 《울진사람》에게 누이가 있다는 소리가 반가운듯 얼굴 가득 웃음을 지었다.

《사람두 참, 그런걸 왜 이제야 말하나. 우리 배에 온지 두달이 넘도록말이야.》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난 선장은 두말없이 섬쪽으로 배를 돌리려다가 갑자기 무엇이 생각난듯 미간에 깊은 교랑을 지었다.

《술섬엔 배를 함부로 못대. 해상경찰의 승인을 받아야 하네.》

선장의 말은 옳았다.

술섬의 북쪽 변두리에서는 왜놈들이 여러개의 굴을 깊숙이 들이파고있었는데 놈들은 술섬마을에 나드는 작은 매생이까지도 엄격히 검속하는 형편이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울진사람》의 얼굴에는 짙은 실망의 빛이 어리었다.

나를 포함한 모든 배사람들은 어쩌다 누이를 만나겠다는 그의 청원이 실현될수 없게 된것을 펍서 운해하였다.

난처한 기색을 한 선장은 못박힌듯 서있는 《울진사람》을 점도록 지켜보았다. 딱 잘라 거절한다기보다 바재이는 빛이었다. 그런 기미를 감촉한 모두는 눈 질끈 감고 도와주자고 간청했다.

다시금 깊은 궁리를 거듭던 엄감득선장은 어떤 용단을 내린듯 배머리를 섬쪽으로 돌리었다.

《외따른 섬바위쪽에 대줄테니 잠깐 만나보구 나오라구. 시간을 끌었다간 경을 치네.》

엄감득선장은 역시 꺾개 있는 바다사람이었다.

배에 커진 모든 불을 죽이라고 지시한 그는 배를 전속으로 몰아가다가 섬가까이에 이르자 기관을 끄자고 했다.

그러자 배는 살같이 달려가던 타력으로 소리없이 섬바위에 닿았다.

배에서 나는듯이 뛰어내려 마을쪽으로 달려갔던 《울진사람》은 약속대로 곧 돌아왔다. 반시간도 되나마나한 짧은시간이었다.

들어돌 때처럼 은밀히 배를 빼낸 우리는 포구로 향했다.

하나 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섬을 떠난 우리가 얼마쯤 달렸을 때 수평선쪽에서 삼각형으로 배열된 푸른 신호등을 단 배가 나타났다.

나는 그것이 술섬부근을 싸다니던 해상경찰의 순찰정이라는것을 알았다.

우리 배를 향해 접근해오는 그 불빛을 먼저 발견한 《울진사람》이 나를 으스스진 고물로 끌고갔다.

배의 꿈무늬에 커진 미등이 순찰정을 날카롭게 쏘아보는 《울진사람》의 눈을 드러냈다. 소름이 끼칠만큼 섬찍한 눈매였다. 이윽고 그는 나에게 낯을 돌리더니 부드러운면서도 전과 다른 좀 빠른 어조로 말했다.

《희철이, 내 부탁을 하나 들어주게. 자네만이 해결수 있는 긴한 일이야.》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품속에서 물주리만한 참대토막을 꺼냈다. 필시 술섬 누이네 집에서 가져온것이라 짐작되었다.

《물에 들어가거든 이걸 인사계장에서 주라구. 만약 그가 없으면 〈동해면옥〉에서 접대부로 일하

는 숙이라는 처녀에게 전해주게.)

느릿한 경상도 사투리가 씻은듯 가시여진 정확한 조선표준어였다.

나의 가슴은 방망이질하듯 마구 들먹이였다.

《울진사람》은 갖게 오르내리는 나의 어깨우에 묵직한 손을 얹었다.

《이건 내 목숨보다 몇갑절 더 소중한거요. 나는 왜놈들을 그토록 중오하는 희철동무가 영명하신 **김일성** 장군님의 뜻을 받들고 싸우는 우리의 이 부락을 어김없이 들어주리라 민소.》

나는 수수년년을 두고 가슴깊이 간직해오던 그리운 그 이름을 듣자 목이 꺾 메어올라 갈린 청으로 낮게 부르짖었다.

《**김일성** 장군님! !...》

우리는 서로 가슴을 맞비비며 힘있게 불안았다.

나는 그가 주는 참대토막을 깊숙이 건사했다. 그리는 나를 미덥게 바라보던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는 아마도 당분간 헤어져야 할것 같소. 어디에 가던 책을 놓지 말라구. 하지만 광명을 보려고 배우는것으로 그쳐서는 안되오. 싸워야 하오. 원썩 일제를 때려부시는 성전에 나서야 하오! 이것이 조선청년의 길이요. 수많은 열혈청년들이 이 길에서 피를 흘렸고 청춘을 바쳤소. 나 하나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조국과 인민을 위해 **김일성** 장군님을 따라서 싸우는데 우리 삶의 가치가 있소.》

나는 깊은 혼몽에 빠져있던 흐리멍덩한 나의 인생관을 대번에 깨우쳐주는 그의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해먼처럼 빨아들이었다.

나는 그를 부어잡고 더많은 이야기를 듣고싶었으나 그럴 경황이 없었다.

어느사이에 우리 배에 다가붙은 순찰정에서 전투복차림을 한 해상경찰놈들이 몇놈 뛰어넘어왔다.

놈들은 다짜고짜로 조타실에서 선장의 떡살을 잡아 끌어내리었다.

《술섬에는 왜 들어갔더 ?》

선장이 어물대며 대답을 안하자 총탁이 그의 턱을 울려쳤다. 우지끈하고 생이발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놈들은 손에 잡히는대로 때리고 차고 하였으나 누구 하나 놈들의 물음에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좋다, 개처럼 쏘아죽일테다 !》

머리끝까지 서슬이 돋힌 정장놈은 권총의 격철을 절적 치켜올리었다.

사납게 씨근대며 선원들을 훑어보던 그자는 제일 어러보이는 나에게로 다가왔다.

《너도 말 안할텐가?》

《...》

천천히 쳐들린 권총이 나의 이마뺨을 겨누었다. 난생처음 총구앞에 서보는 나는 오한이 난듯 몸이 으스스 떨리었다. 총알이 금시 투여나올것 같은

행한 총구멍, 살기를 띠고 번뜩이는 포악스러운 눈초리, 이제 저자가 방아쇠만 당기면 모든게 끝장날것이다.

하지만 말 안할테다. 죽어도 말 안할테다! 나는 피가 나도록 허를 악물었다.

정장놈은 사격태세를 취하며 한걸음 뒤로 물러섰다.

이때 《울진사람》이 내앞을 막아나섰다.

《저때문에 섬으로 들어갔됐습니더. 선장님이 안된닥하는걸 제가 사정했어유. 누이를 좀 만나보라고.》

《음 그랬단말이지. 누이의 이름이 뭐가?》

《조귀녀라구...》

《섬의 어느쪽 몇번지에 사는가?》

제법 류창한 조선말로 따져물던놈은 가방에서 주민호적부를 꺼내들었다.

그 순간 《울진사람》의 함마같은 주먹이 정장놈의 면상을 들이쳤다.

그자가 채주를 넘듯 나뉘는것과 동시에 곁에서 덤벼들던 다른 몇놈이 련이어 꺼꾸러졌다. 비호같이 날래게 갑판에서 배전에 뛰여오른 《울진사람》은 우리 선원들쪽으로 몸을 돌리었다.

《해방될 날은 멀지 않았습니더. 그때까지 군세게들 살아가십시오 ! 그날이 오면...다시 찾아뵈겠습니다.》

이 한마디를 남긴 《울진사람》은 사선으로 몸을 날려 물속에 뛰여들었다.

배에서 얼마쯤 상거한 물우에 머리를 불쑥 솟군 그는 우리를 향해 손을 저어보이고는 물쪽을 향해 자신있게 헤여갔다. 그의 머리에 질끈 동인 흰수건이 어둑속에 차츰 묻히더니 곧 시야에서 사라졌다.

스산하게 울부짖는 새바람, 배우에 튀여오르자마자 양초물처럼 떡떡 얼어붙는 바다물.

아 ! 그를 이렇게 떠나보내면 다시는 보지 못할수 있다는 비감에 찌인 나는 입에 손나팔을 대고 울음섞인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울진형님 ! 형님 !!》

그러나 높뛰는 물결과 바람소리만 음산하게 들릴뿐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얼마후에야 정신을 차린놈들이 순찰정에 뛰여 올라 탐조등을 비치며 미친듯 돌아섰으나 어둑이 서린 시커먼 물결우에서는 여기저기 떠다니는 얼음장밖에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순찰정에 이끌리어 포구로 돌아온 우리는 매를 맞으며 문초를 당했다.

하지만 나는 그 살벌한 판에서도 한사코 기회를 얻어 《울진형님》의 참대통을 《동해면옥》의 숙이에게 전했다. 인사계장은 이미 종적을 감추었었다.

놈들은 우리 배사람들을 등쌀대다 못해 류치장의

로 끌고갔다.

하지만 누구 하나 《울진형님》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도리어 이를 갈며 왜놈들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우리는 두만강국경쪽으로 가던 왜놈의 군수렬차가 쌍포철교에서 폭파되고 메바위끝에 극비밀리에 굴설되었던 탄약창고가 날아났다는 소식을 접할 때면 《울진형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의 일에 한몫 끼운듯 장쾌한 기분에 잠기곤 했다. 그 감정은 직접 당해보지 못하고는 그 진가를 결코 헤아릴수 없는 가장 벽차고 환희로운것이였다.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나라오는 힘이 있어 놈들의 온갖 악형과 회유를 이겨낸 감방에서 조국광복의 날을 맞이할수 있었다.

해방을 맞은 이듬해 정월.

갖 조직된 수상보안대의 경비정 정장으로 근무하던 나는 평양에서 내려온 한 일군을 만났다.

그는 《울진사람》으로 불리던 조벽산동지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인솔하시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으로서 쌍포지구에 파견되었던 국내공작원이였으며 그는 조국해방전투를 위한 여러가지 중요정찰임무를 수행하고 장렬히 전사했다는것을 알려주었다.

나는 그 일군이 묻는대로 조벽산동지가 우리 배에서 지낸 나날들을 세세히 이야기해주었다.

그에게만 얘기한것이 아니라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함께 승무하는 젊은 해병들에게, 전후에는 깊은 바다 개척에 펼쳐나선 어로공들에게 자주 들려주었다.

그럴 때면 《울진형님》이 곁에 서서 그 심덕 무던한 얼굴에 웃음을 띠우고 나를 지켜보는것만 같았다.

그 모습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마음속 깊이 자리잡는 친근하고 소중한 모습이였다.

X

렬차는 쌍포역에 멎어있었다.

역구내밖에는 해안쪽으로 대통로가 곧추 뻗어있었는데 길옆으로는 현대식탑식건물들이 규모있게 들어서있었고 씨원하게 트인 인도로는 형형색색의 봄옷차림을 한 사람들의 물결이 흐르고있었다. 멀리 부두쪽에 산더미처럼 우뚝 솟아있는 랑동공장과 물고기가공공장 그리고 대형어선들의 은빛 마스트들이 어항도시의 운치를 돋구었다. 어수선한 골목마다에 고기비린내와 골란내만이 역하게 풍기던 어제날의 흔적이란 조금도 없는 오늘의 쌍포거리였다.

렬차가 음쪽 자리를 뜨자 혁명전적지답사에서 돌아오는 학생들이 노래를 불렀다.

...

항일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

불패의 힘을 지닌 조선로동당

김일성원수님의 령도를 따라

폭풍을 헤쳐가는 혁명의 기치

...

힘찬 노래를 싣고 바람같이 질주하는 차창에 불을 기댄 나에게는 얼마전 청진에서 만났던 엄갑득로인의 얼굴이 돌이켜졌다.

팔십고령인데도 혈색좋은 얼굴이 피둥피둥한 그는 이제 예순살을 갓 넘긴 늙은이처럼 청정했다.

내가 사들고간 《인품술》몇잔을 단꺼번에 랭수마시듯 한 로인은 자랑삼아 말했다.

《수산연구소에 다니는 손자녀석을 따라 삼지연에 갔드랬소. 한데 그곳 대기념비에 줄지어 서있는 항일유격대원들의 군상이 신통히도 〈울진사람〉처럼 보이질 않겠나. 나는 그를 다시 만난것만 같아 막 울려했네.》

엄갑득로인의 그 말은 나의 마음속 금선을 울리었다.

나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가랑잎처럼 표류하던 배우에 쓰러졌던 우리를 일으켜세우고 포악스러운 푸른 상어의 이빨앞에서 나를 목숨내대고 구해주던 《울진형님》 그리고 원썩놈들과 맞받아 싸우며 얼음장 덮인 난바다속에 서슴없이 뛰어들던 그를 다시금 생각했다.

바로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이끄심따라 조국광복의 성전에 나섰던 한 투사의 보통면모이며 더없이 살뜰하고 뜨거우면서도 가장 강의하고 숭고한 인간의 모습인것이다.

오래전에 곁을 떠났지만 어디서나 문득 만나볼듯한 그 모습, 평생을 두고 나와 함께 지내온 그 모습은 말겨진 일에 헌신해온 우리의 마음과 가슴우에 빛나는 혼장속에, 행복하고 벅찬 오늘날아니라 더 좋아질 먼 앞날까지도 함께 있을것이다.

쌍포거리를 뒤에 남긴 렬차는 일망무제한 논벌을 끼고 기운차게 달리였다.

꺼밋하게 모살이를 한 실한 벼포기들을 바라보던 농산작업반장이 다시 말쑥뚱을 뻗었다.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구 진짜 해볼만한 일이지요...》

그에 뒤이어 자재공급소 지도원과 중늙은이가 말추렴에 끼여들었다.

모두가 들을수록 기끼운 이야기들이였다. 그것은 땅속깊이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청춘과목처럼 나날이 룡성해가는 우리의 생활이기때문이다.

렬차는 강을 건너고 들을 지나며 질풍같이 달리였다.

보다 새롭고 보람있는 생활이 기다리고있는 모두의 목적지를 향하여.

형제의 나라 소련에서

홍석중

5. 중앙아시아의 옛도시들에서

명절기념행사에 예정된 일정은 29일에 전부 끝나기로 되어있었다. 행사에 초청된 대표단인것만큼 일정이 끝난뒤에도 여러날 주인에게 폐를 끼친다면 손님 된 도리가 아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조국으로 떠나는 비행기는 다음달 5일에 있었다. 부득불 그때까지 기다려야 할 형편이기에 우리는 관례대로 그 며칠동안을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머물기로 작정했다.

그러나 우리의 결심을 알게 된 소련작가동맹 중앙위원회 비서 워로노브는 당장 정색해지며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섭섭한데요.》

《어째서말입니까?》

《존경하는 **김일성** 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다녀간 이후부터 우리는 조선동지들을 각별하게 가까운 벗으로 생각하고있는데요.》

《우리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허물없는 벗들끼리 외교적인 관례를 따지는게 우습지 않습니까?》

《...》

우리는 대답이 궁했다. 반대로 워로노브는 상대방을 수세에 몰아넣은 장기군처럼 의기양양해졌다.

《벗들을 노엽히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떠나는 날까지 모든것을 우리 주인들의 처분에 맡기고 공손히 복종하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그의 익살에 웃었다. 그리고 주인의 의사대로 공손히 복종할것을 약속하였다.

바로 이렇게 되어 유독 우리 대표단만은 행사가 끝난뒤에 지방참관을 하게 되는 특권을 받게 되었다. 게다가 목적지는 우리가 마음대로 고르라는 것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선택의 자유를 준 소련벗들의 특별한 호의가 오히려 우리들을 곤경에 빠뜨렸다.

어디로 정할것인가. 여유는 고작 사나흘, 아무리 세계를 일일권에 넣고있는 현대여행수단을 리용한다고 할지라도 오가는 시간을 계산하면 겨우 한곳이나 찾아갈수 있을 빠듯한 날자가 남는다. 그런데

선택의 범위로 말하면 세계 북분의 일을 차지하고 있는 광대무변한 나라인것이다.

레닌그라드, 끼예브, 리가... 우리는 의논을 거듭하던 끝에 떠나야 할 림박에 가서야 우즈베크가맹 공화국을 목적지로 골라잡았다.

특별히 밝혀 말할 까닭은 따로 없다. 그러나 개별적인 나의 경우에는 어린시절에 책과 영화가 심어준 사막과 오아시스에 대한 환상적인 동경이 은연중 중앙아시아로 이끌었다는것을 숨기고싶지 않다.

...불별이 내려쬐이는 황량한 사막, 줄을 지어 걸어가는 락타대상의 행렬, 머리에 타반을 두르고 할라트를 입고 긴 수염에 물감을 들인 상인들, 사막의 한끝 아득한 먼지구름속에 신기루처럼 떠오르는 오아시스의 푸른 수림, 도시의 성벽과 금물을 올린 사원지붕, 왜가리가 동지를 뜯 아름드리 느릅나무, 물이 흐르는 보도랑우에 지은 차이하나의 향기로운 연기, 꼬챙이에 켜 양고기가 숯불우에서 지글거리고 양념을 다지는 칼도마소리가 흥겹게 들려오는 요리집들, 동방과 서방의 교역이 이루어지는 혼잡한 장마당들, 알라신을 찾는 회교승려의 구성진 저녁기도소리...

단순하고 막연한것들이기는 하나 이 모든것들은 어린시절부터 나의 머리속에 새겨져있는 중앙아시아의 량만적인 그림들이었다. 생각만 해도 곧 신비한 동화세계에 들어선듯 마음이 들떠지는 이 화폭들을 그려보며 나는 유럽에서 중앙아시아로 날아가는 비행기에 앉아 근 다섯시간동안이나 조급중에 시달렸다.

드디어 우리는 우즈베크가맹공화국의 수도 따슈겐트의 거리에 발을 내짚었다.

한낮의 뜨거운 태양이 머리우에서 이글거린다. 녀달째 개인 날씨가 계속된다는 먼지빛의 뿌연 하늘에서는 사막의 건조한 열풍이 황포를 부리고있다.

그러나 기분은 마치 신선한 바다바람이 불어오는 해변가에 나선듯싶다.

그것은 도시의 곳곳에서 솟아오르는 분수의 혜택이라고 하는데 말이 났으니말이지 참으로 따슈겐트는 분수의 도시라고 할만하였다. 지어는 가로수와 유보도의 잔디밭에서도 분수식 관수시설이 되어있

어서 나무잎새와 풀잎들이 금시 비를 맞고 푸르려 진듯 생신했 보였다.

거리마다에는 산뜻한 흰빛갈의 고층건물들이 짝 들어차있었다. 여기저기에 새로운 집들이 일어서고 있었고 중심부의 거리들은 지하철도를 건설하기 위하여 파헤쳐져있었다.

기계의 동음과 건설자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흘러넘쳤다. 한마디로 따슈겐트는 바야흐로 왕성하게 자라고있는 신흥도시의 약동하는 젊음이 한껏 빛나고있었다.

그런데 바로 도시의 이 활기와 젊음이 도리어 나에게서는 적지 않은 실망을 가져다주었다. 그것은 마치 오랜 골동품을 찾는 사람의 손에 번쩍거리는새 물건을 쥐여주었을 때의 느낌과 비슷한것이였다.

젊음도 좋고 활기도 좋다. 시대의 변천과 함께 옛 도시가 현대문명의 새로운 옷을 바꾸어입는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어쨌든 신비한 전설들과 수천년 역사의 파란곡절이 얹힌 옛도시의 고색창연한 빛갈만은 귀중하게 보존되어야 할것이 아니겠는가.

나의 말을 들은 안내원은 빙그레 웃었다.

《옳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지 못한 리 유숙에 이 도시의 자랑찬 역사가 담겨져있습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따슈겐트라는 도시의 이름은 우즈베크말로 돌의 도시라는 뜻이라고 한다. 원래 이곳은 무연한 사막이였다. 언제인가 우즈베크사람들은 치르치크강물을 끌어들여 이 사막우에 드넓은 오아시스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냈다.

이 오아시스에 자리를 잡은 따슈겐트는 오랜 옛날부터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로, 동방과 서방의 흥성거리는 교역지대로 되어왔다. 유명한 비단의 길도 여기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졌고 누에알과 종이와 화약의 비밀도 이 통로를 거쳐 유럽으로 흘러들었다.

도시는 네거리에 버려진 갓난아이처럼 너무나 일찍부터 참혹한 수난을 당해야 했다. 동방정복의 원정길에 오른 알렉산드르대제의 침략군이 도시를 재더미로 만들었고 서방정복의 원정길에 오른 칭기스한의 침략군이 이 도시를 폐허로 만들어놓았다.

그러나 세기에 세기를 이어 계속되는 참화와 수난은 오히려 이글거리는 솟불처럼 우즈베크사람들의 의지를 강철과 같이 버려냈다. 그들은 굴함없이 재더미와 폐허우에 또다시 도시를 일떠세우곤 했다.

이런 부단한 반복이 이 도시의 경난에 찬 력사이자 도시가 자기의 고유한 《폴리제》를 보존할수 없었던 불행의 원인이였다.

따슈겐트는 쏘베트련맹의 품에 안겨 비로소 새로운 개화기를 맞이했다. 그것은 위대한 힘의 비약이였다. 그 어떤 원썬들도 이제는 감히 강대한 사회주의국가의 한부분인 이 도시를 넘보지 못했다. 토벽 집들의 조그마한 도시가 불과 몇십년사이에 인구 이백여만을 헤아리는 중앙아시아 굴지의 대도시로 자라났다. 비단의 도시, 빵의 도시가 현대문명의 최첨단에 선 기계의 도시로 변모되였다.

그러나 도시는 룩십년대에 들어와서 새로운 시련을 겪어야 했다. 1966년 4월 26일, 도시의 중심에 원점을 둔 강한 지진이 일어났다. 이 재변으로 도시의 태반이 파괴되였다.

쏘베트련맹의 온 나라가 재난당한 도시를 복구하기 위하여 떨쳐나섰다. 전대미문의 기적이 이룩되였다. 불과 2년사이에 따슈겐트는 전국의 지원밑에 더욱 아름답고 현대적인 청춘도시로 건설된것이였다. 우크라이나거리, 백로씨야거리… 새로 건설된 거리들에 붙은 형제적인 가맹공화국들의 이름은 이런 기적을 창조한 쏘베트련맹의 단결된 힘을 시위하는 영원한 상징으로 되였다.

《…우리 우즈베크에는 옛 유적들이 훌륭하게 보존되어있는 싸마라칸트나 부하라나 히비야 같은 도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어떤 도시들보다도 따슈겐트를 가장 사랑하고 자랑합니다. 도시가 지닌 청춘속에 우리 인민의 자랑찬 역사가 담겨져있다는 내 말의 뜻을 리해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태운 자동차는 도시의 중심거리를 누비며 달렸다. 지난 조국전쟁시기에 열네명의 교아를 데려다가 키웠다는 싸나마흐무드부부의 동상을 지나 쏘베트청사광장에서 잠시 차를 멈춰세웠다. 하늘높이 솟구치는 수백개의 분수와 머리우에서 쏟아져내리는 수백개의 폭포가 뽀얀 물보라를 일으켜 아름다운 쌍무지개를 그렸는데 포효하는듯한 물소리는 마치 깊은 계곡안에서 듣는듯 귀를 멍멍하게 만든다. 아니다, 이런곳을 메마른 사막의 도시라고 부른다는것은 가당치않은 일이다.

자동차는 다시 달려 지진의 원점앞에 멈추어섰다. 원점의 한가운데에는 지진에 의하여 갈라진 집채같은 바위가 놓여있고 바위를 중심으로 수십명의 인상적인 군상이 화강석에 새겨져있었다. 지진의 번개불같은 화살이 쓰러진 어린아이를 향하여 달려드는데 무쇠팔뚝의 건장한 사나이가 그 화살을 막아 역세게 버티고 서있다. 이 사나이야말로 우즈베크사람들의 불굴의 의지와 사회주의적인 쏘베트련맹의 단합된 위대한 힘의 화신인것이다.

안내원은 조각군상앞에 서있는 우리를 자랑스러

운 눈길로 지켜보고있었다. 굵실굵실한 검은 머리, 활동처럼 휘어든 검은 눈썹과 반짝이는 검은 눈, 누가 보든지 한번 종이우에 옮겨보고싶을 정도로 아름답게 생긴 이 우즈베크청년의 눈길속에 담긴 자랑과 긍지의 뜻을 나는 잘 알수 있었다.

...도시가 지닌 청춘속에 우리 인민의 자랑찬 력사가 담겨져있다는 내 말의 뜻을 리해하시겠습니까? ...

나는 이 청년을 우리가 두고 떠나온 어머니조국의 사랑하는 수도 평양으로 초청하고싶었다. 그를 천리마동상의 높은 언덕과 주체사상탑의 타오르는 봉화밑에 세워주고싶었고 지난날 우리 인민이 겪은 수난과 미제국주의자들이 저지른 전쟁의 참화에 대하여 들려주고싶었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밑에 새로 일떠세운 우리 평양의 웅장하고 화려한 거리들을 보여주고 싶었다.

아름다운 파슈겐트청년이여! 우리는 그대의 말 뜻을 훌륭히 리해할뿐만아니라 그대가 지닌 자랑과 긍지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사람들이다. 왜냐면 우리 조선사람들이야말로 력사에 류례없는 수난과 전쟁의 참화를 이겨낸 사람들이며 맨주먹으로 폐허우에서 평양과 같은 지상락원을 일떠세운 사람들이기때문이다.

우리 역시 유구한 력사의 유물과 찬란한 민족문화의 유적을 침략자들에게 수많은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바로 그렇듯 귀중한것을 잃어버리면서까지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강대한 원수들을 때려눕혔는데 그 귀중한의 몇천배로도 비길수 없는 값높은 긍지와 자랑이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용서하라! 만약 도시의 젊음에 실망을 느낀 나의 경솔한 말이 그대의 긍지에 손상을 주었다면 부디 용서하라.

나의 의미심장한 시선을 느낀 안내원은 웃으며 다가와 나의 손을 굳게 잡았다. 주고받는 서로의 웃음과 눈길로 말은 소용없었으니 우리는 구태여 한창 정신없이 갈라진 바위들을 신기한듯 들여다 보고있는 통역을 가까이 부르지 않아도 되었다.

다음날 우리는 우즈베크에서 두번째로 큰 도시인 짜마르칸트로 떠났다.

짜바르칸트라는 이름은 성스러운 도시라는 뜻이라고 한다. 천구백삼십년대말 이 도시에서는 력사에 유명한 폭군이며 전설적인물인 절름발이 대왕 짜무르의 무덤이 발굴되어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었다. 현재 이 도시에는 짜무르왕의 가족무덤인 구르-에미르고분과 이름난 천문학자인 그의 손자 우르베크의 유적이 훌륭하게 보존되어있어 세계 방

방곡곡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칠새 없이 찾아온다고 한다.

인구 오십여만을 헤아리는 현대적인 도시이건만 민족의 력사적인 향취가 강하게 느껴지는곳이었다. 주차장의 승용차옆에 락타가 서서 태연하게 새김질을 하고있는가 하면 뜻밖에도 등뒤에서 하늘소의 울음소리가 터져 사람을 아연질색하게 만들기도 한다.

거리의 풍경도 한결 향토색이 짙다. 곳곳에 차이 하나와 불고기집이 늘어서있고 차이하나의 평상우에는 주베이까를 쓰고 흰수염을 길게 기른 우즈베크로인이 동양식으로 책상다리를 틀고앉아서 점잖게 록차를 마시고있다.

시장에 들어서면 마치 《아라비안나이트》의 옛 이야기속에 자신이 뛰어들듯싶다. 사람들과 상품들의 형용할수 없는 혼잡속에 중앙아시아의 특산인 과실무지들이 산처럼 쌓였는데 주베이까에 양복차림을 한 얼치기 신사청년이 구성진 목소리와 익살맞은 손짓과 능청스러운 눈짓으로 손님을 부르고있고 그옆에는 윤기흐르는 검은 머리를 여러 갈래로 땀아늘인 색동옷차림의 우즈베크미인이 흑진주같은 두눈을 반짝거리며 생글생글 웃고있다. 그 웃음이야말로 그 어떤 다른 나라의 녀인들을 감히 흉내낼수 없을만큼 매혹적이면서도 깨끗한것이어서 과실에 전혀 뜻이 없던 사람까지 저절로 그 웃음에 이끌려 흥정판에 끼여들게 만든다. 우리는 시장에서 안내원청년이 서서 대접하는 핑장히 크고 단 참회맛을 보았는데 나는 지금도 그 허물없는 대접이 물론 안내원청년의 남다른 호의에서 나온것이기는 하지만 그 미인의 매혹적인 웃음의 덕도 적지 않다는것을 믿어의심치 않고있다.

우리가 짜마르칸트에 도착한 다음날 안내원은 몸이 실한 우즈베크로인을 데리고 우리앞에 나타났다.

《우즈베크과학원 원사이며 명예예술인이며 짜마르칸트종합대학 교수인 보이드 아부둘라선생을 소개합니다. 우연히 조선작가동지들의 소식을 듣자 강의까지 뒤로 미루고 찾아오셨습니다.》

일흔다섯이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젊어보이는 로인은 역시 걸보기처럼 활달하고 씩씩하고 스스로없이 없었다.

로인은 우리에게 자기는 조선동지들과 남다른 인연을 가지고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하면서 누렇게 퇴색한 옛 신문 한장을 꺼내들었다. 오십년 류월이십칠일자로 된 그 신문에는 미제의 조선침략전쟁을 규탄하는 시가 실려있었는데 그 시의 구절구절에 새겨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에는 붉은 테두리가 정중하게 그려져있었다.

《내가 쓴 시입니다. 삼십오년전 나는 미제의 조선침략을 규탄하는 군중대회의 십여만 군중들앞에서 이 시를 낭송했습니다.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직도 조선의 절반땅을 강점하고 있습니다. 나는 삼십오년전 젊었을 때의 그 열정과 본노를 가지고 당신들앞에서 다시한번 이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로인은 우리앞에서 시를 낭송했다. 통역이 미처 낭송을 따라가지 못해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 조선이라는 말뜻밖에는 가려들을수 없었지만 상혈된 얼굴을 추켜들고 정열적으로 웨치는 그 표정과 목소리에 담긴 형제적우의의 절절한 뜻은 그대로 우리의 심장을 쳤다.

로인은 우리의 사양을 막무가내로 물리치고 자청해서 고적안내를 맡아나섰다. 우리는 곧 이 로인을 안내자로 앞세운다는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는 것인가를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었다. 우즈베크지식인의 첫 세대에 속하는 이 과학원 원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의 앞에서 길을 비키고 공손히 인사를 했으며 고적과 유적의 관리원들은 거의 숭배에 가까운 경건한 감정을 가지고 그를 맞아들였다.

안내자의 값에 따라서 뒤따르는 손님의 값이 오르내리는것은 자연스러운 리치다. 우리는 특별한 소개가 없이도 가는곳마다에서 귀빈의 특대를 받았으며 허물없는 베틀이 아니고는 권하지 않는 향기로 온 룡차의 대접을 받았다.

로인은 우즈베크의 력사와 문화에 대한 산 백과사전과 같은 인물이었다. 고적들에 대한 그의 설명은 대단히 훌륭하고 인상적인것이였다. 그러나 그보다 더 훌륭한것은 우리들에 대한 각별한 성의였다. 그는 힘에 부치는 언덕길도 앞장서 걸었으며 피악벌밑에서 땀을 흘리며 해설을 했고 지어는 우리의 리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목청을 돋구어 옛 우즈베크의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작별하기에 앞서 그는 우리에게 자기의 시가 적힌 종이를 주었다.

《어제밤 늙은 나의 안해가 신문에서 옮겨베꼈습니다. 변변치 않은것이지만 가지고 가셔서 이것을 볼 때마다 싸우는 조선인민의 곁에는 언제나 우리 우즈베크인민들이, 우리 소련인민들이 함께 서있다는것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우리는 그 종이를 천만금의 값이 나가는 보물처럼 받아들었다. 아니다. 그 귀중한것을 물건이나 값으로 비교한다는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다. 눈이 어두운 늙은 우즈베크녀인의 고르지 못한 글씨속에

담긴 그 뜨거운 마음이야말로 천만금으로도 살수 없는 계급적형제의 고귀한 의리인것이다.

비행기는 어둠속을 헤가르며 모스크바로 날고있었다. 일행의 다른 동무들은 통역과 함께 흐릿한 좌석조명밑에서 아부돌라원사가 준 시를 번역하고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이곳은 어제날의 사막이다. 관개수가 흐르는 무연한 벌, 눈내린 광야처럼 아득히 펼쳐진 목화밭, 분수, 폭포, 층층이 어깨를 겨루는 고층건물들, 공장들에서 쏟아져나오는 증기계들, 기계를 운전하고있는 주베이가를 쓴 청년들, 바로 저 청년들이 옛날 수업에 물감을 들이고 락타와 함께 모래밭을 횡단하면 전설적인 사막의 후손들이다...

나는 이렇게 어린시절에 간직했던 중앙아시아의 동화적인 환상대신 소비트중앙아시아의 새로운 화폭들을 머리속에 그려넣었다.

6. 그 품이여라 ! 조국이여 나의 조국이여

우리의 소련방문은 끝났다. 떠나기에 앞서 우리는 소련의 벼들과 작별의 술잔을 나누었고 비행장으로 나가는 자동차안에서 또나와 함께 《가추사》를 불렀다. 다시 찾아오라는 벼들의 당부는 얼마나 간절한것이였으며 다음번은 꽃필계절에 평양에서 만나자는 우리의 초청은 또 얼마나 절절한것이였던가.

진실하고 성실한 벼들과의 작별은 언제나 가슴이 아픈 법이다. 그러나 당장 조국으로 떠날 순간이 가까와올수록 작별의 그 아픔에 비할바없이 강렬해지는 감정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비행장에는 공화국기를 그린 우리 나라의 려객기가 은빛날개를 번쩍이며 서있었다. 비행기만 보아도 조국의 모습이 왈칵 끼쳐와 가슴은 울렁거리고 조바심에 마음을 진정하기가 어려웠다. 떠나서 보름, 이제 아홉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청다운 품에 안기겠건만 한초한초가 흐를수록 더욱 못견디게 그리워 안절부절하게 되는것은 무엇때문이나.

참으로 조국은 한마디로 이름하기 어려운 거룩한 그 무엇이다. 조국에서 떠날 때는 마치 철부지 어린아이가 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의 품을 떠나듯 마음은 서글퍼지고 가슴이 허전했었다.

모스크바에서 맞이한 이른새벽, 문득 머리맡 스피카에서 첫 방송을 알리는 음악이 울릴 때면 가슴

이 미여지도록 그리워진것이 대동강반의 러명을 맞으며 조국방송에서 들군하던 《김일성 장군의 노래》의 은은한 첫 소절이었다.

로씨야의 붓나무숲은 아름답다. 모스크바의 거리들은 화려하고 웅장하다. 그러나 아름다운 로씨야의 붓나무숲을 거닐 때 망향의 애수처럼 가슴을 옥죄이는것은 조국의 울창한 숲밭에서 풍기는 싱긋한 송진냄새였으며 화려한 모스크바의 거리를 거닐 때 불쑥 솟구치는 그리움에 마음이 수만리 조국으로 달려가 정답게 끌어안는것은 평양의 천리마거리와 창광거리였다.

《…조국이여 !

너는 무엇이기에

저 눈덮인 이국의 광야

비내리는 타향의 부두에 서면

두고온 네 하늘이 그리도 푸르려

살아서 너를 떠나간이들

죽어서도 돌아오길 소원했더냐…》

어느 한 시인의 이 절구는 어머니조국이 수난을 당하던 옛시절 부득이 이국의 광야를 방랑할수밖에 없었던 불행한 부모들의 애틋한 심정만을 읊은것이 아니다.

십여년전의 어느날 저녁이 소련을 방문하는 전기간 수시로 나의 머리에 떠올랐었다. 그때 나의 아버지는 칠십이 훨씬 넘은 고령의 나이에 중요한 국가대표단의 단장으로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왔었다. 돌아온날 저녁 나를 데리고 보통강반을 거닐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참 뜻밖이더구나. 오십년전 내가 고학이라도 해보려고 동경거리를 헤맬 때 밤잠을 자려 찾아다니던 공원이 옛모습 그대로 있으니말이다. 그때 난 잠자리를 얻을 돈 몇푼이 없어서 흰 신문지통구리를 얻어들고 밤마 다 그 공원으로 찾아가곤했었다. 신문지를 이불삼아 덮고 풀밭에 누우면 이슬보다 먼저 신문지를 적시는게 두 눈에서 쏟아지는 눈물이었느니라. 망국노의 설움에 겨워서두 울구, 두고 떠 나온 불행한 조국이 그리워서두 울구… 그러던 내가 존엄있는 국가대표단의 단장으로 오십년만에 다시 그 공원안에 들어섰구나. 낮익은 풀밭에 서있느라니 나두 모르게 가슴이 뭉클하구 눈물이 두볼을 적시더라. 그야 물론 행복에 겨워서지. 그런데 행복에 겨운 그 순간에 두고 떠 나온 조국에 대한 그리움은 수난의 시절인 오십년전보다 몇백배루 더 했어. 참, 그걸 너에게 무어라구 설명해야 할지… 하긴 내가 잘 설명한다구 해두 웬걸 네가 그 감정을 리해할수 있겠느냐 ?》

《왜요? 저두 알만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내가 안다고 생각하였었다. 그런데 나의 대답이 아버지를 노엽게 만들었다.

《주제넘은 소릴, 그런 대답은 너처럼 그렇게 수월히 하는게 아니다. 도대체 네가 무얼 안단말이나? 배우들이 무대에서 각본을 외우며 체험하는 그런 감정?》

나는 그때 아버지의 노여움을 응당 그럴수 있는 로인의 피뎌기로 치부해버렸었다. 그러나 나는 십여년후인 지금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그 질책이 정당하였다는것을 깨닫게 되었고 어렵듯이나마 아버지가 말하던 그 감정의 뜻을 리해하게 된듯싶었다.

소련의 벗들은 참으로 우리를 친형제와 같이 따 뜻이 대해주었다. 방문 전기간 그들이 보여준 형제적우의의 뜨거운 정은 비할데 없이 깨끗하고 성실하고 진실한것이 었다. 천리비린이란 비록 네마디의 짧은 말에 불과한것이지만 그 말속에 담긴 계급적의리의 끓을수 없는 깊은 정을 어찌 말마디의 길고 짧음을 가지고 론단할것이라.

하지만 깨끗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천리비린의 그 모든것도 사회주의조국의 위대한 품을 떼어놓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모든것은 아무리 찬란하게 빛나는것이라고 할지라도 어머니조국의 후광에 불과한것이니 태양이 없이 아름다운 달빛을 바랄수 없듯이 사회주의 내 조국이 없다면 그 모든것도 의미없는 미사려구에 불과한것이다. 그래서 행복에 겹고 긍지로 부푸는 오늘도 이국땅에 나서면 오히려 수난의 옛시절보다 조국의 위대한 품이 더욱욱 그리워지는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 조국은

수령님 찾아주신 우리의 삶

수령님 안겨주신 우리의 긍지

영원한 영원한 그이의 품

그 품이여라 !

조국이여 나의 조국이여 !》

밤이다. 비행기는 동쪽으로 날고있다. 나는 소련의 벗들이 안겨준 천리비린의 뜨거운 정을 안고 조국으로 돌아간다. 시창멀리 아득한곳에 러명이 보인다. 바로 그 러명이 밝아오는곳에 나의 조국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한없이 넓은 품이…